

15호

1999년

속초문화



속초문화원



설악산 관광을 더욱 소중한게 하는
단 한가지 이유!!



회장 韓丙起



대표이사 愼容文

설악에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명물-
설악산 여행의 잊지 못할 추억거리-
설악산 관광을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게 만드는 것은
바로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에 신뢰와 정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해외여행부 업무안내 ■

- 해외여행
- 신혼여행
- 여권 비자 수속대행
- 각종 항공권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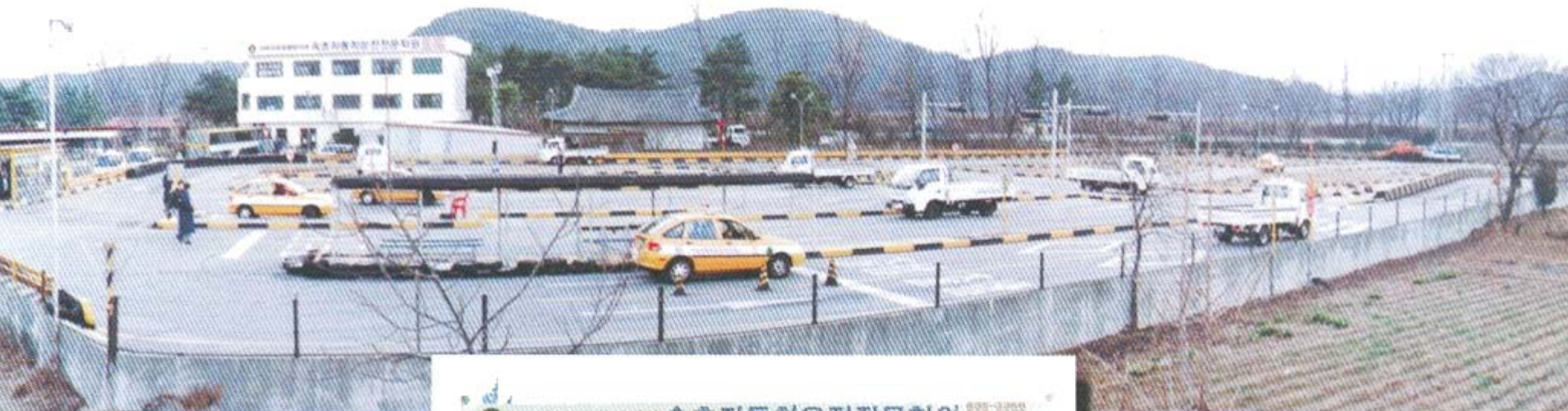
설악관광(주) 케이블 카 · 해외여행부

■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TEL 0392-636-7362 ■ 여행부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82-5번지 TEL 0392-636-10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8-13번지 TEL 02-545-9726

강원도 경찰청지정

속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리) 1628-14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 (속초의료원, 인심의원)

고성, 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 :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 및 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TEL. 633-3333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TEL. 635-3366. 3377. 3388. 3399



원장
김 광 수

<매주 기능검정, 도로주행 검정시험 실시>

인간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Man

Total Communications

Event

Multi-media

Advertising

강원애드가 열어갑니다.

강원애드
Total Communications

광고기획

· 이미지 컨설팅 · 광고 컨설팅 · 광고 인쇄물(카드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팜플렛, 포스터, 스티커, 명함)
· 산업디자인(포장디자인, 파우치) · 인쇄물제작(사보, 연보, 서적류, 정기간행물)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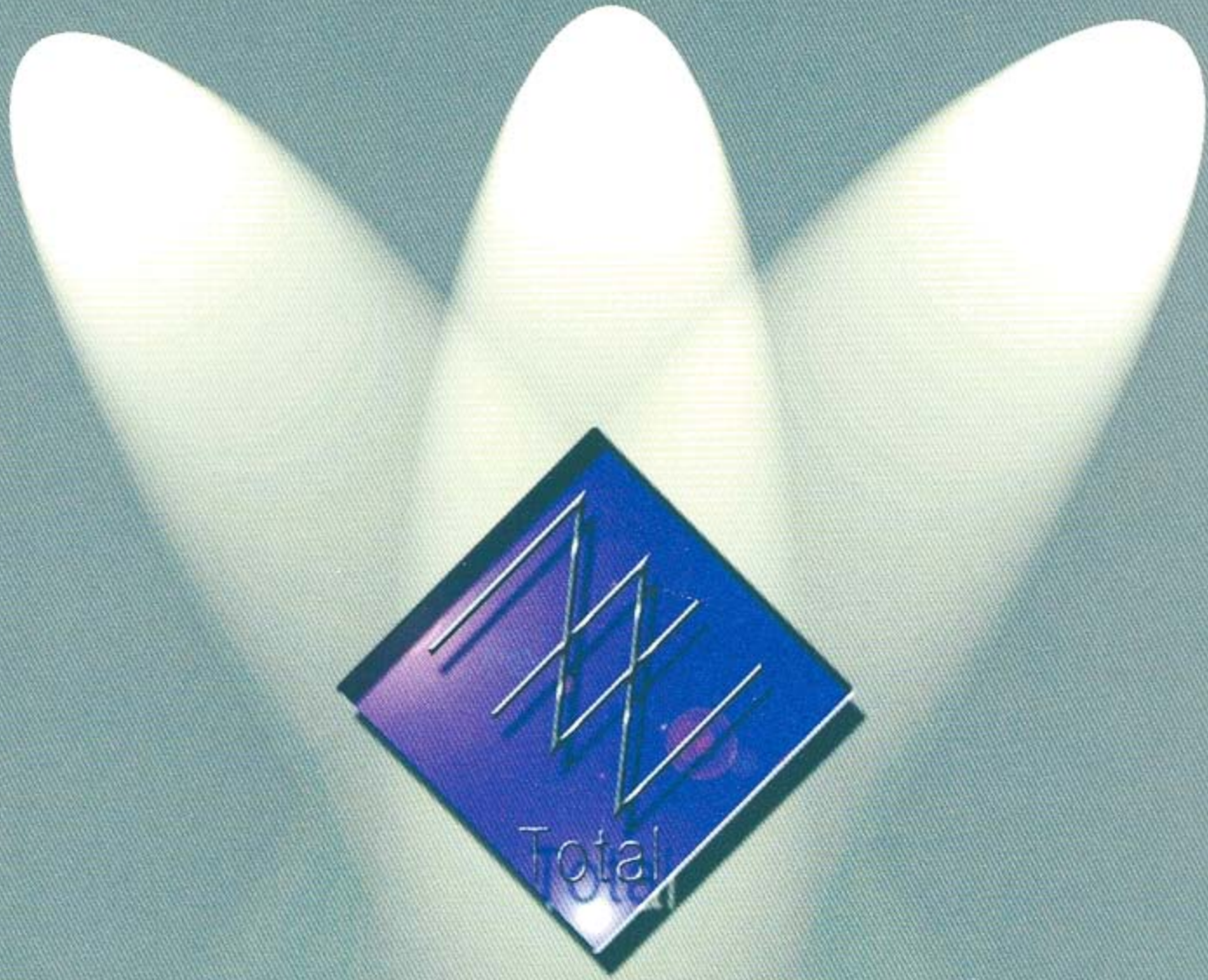
· 각종 오픈행사, 기념행사, 단체행사, 판촉물, 기념품, 사은품, 트로피, 상패, 배너

멀티미디어

· 홍보 비디오 제작, 사진, 비디오, 촬영, 앨범 제작

강원도 속초시 교동 673-4
T (0392)636-5575, 5569
F (0392)636-5586

22C 기획



디자인·출판·인쇄
인테리어·간판·배운
관측물·단체복
음향·조명·무대설치
정보제공·여론조사
이벤트·행사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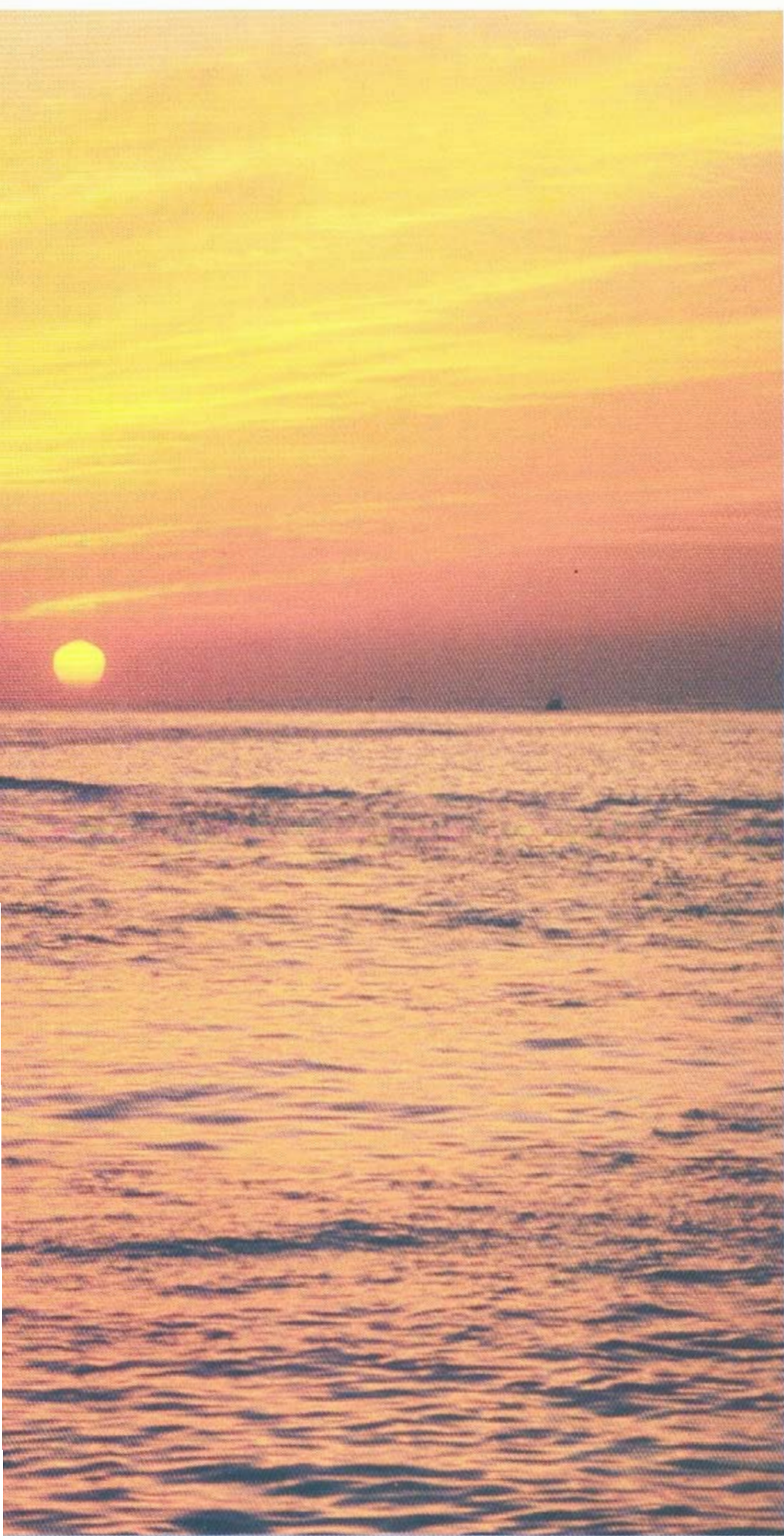
강원도 속초시 교동 636-3(속초중앙교회 맞은편)
전화 : 0392) 636-3631, 3567
전송 : 0392) 637-3631



故鄉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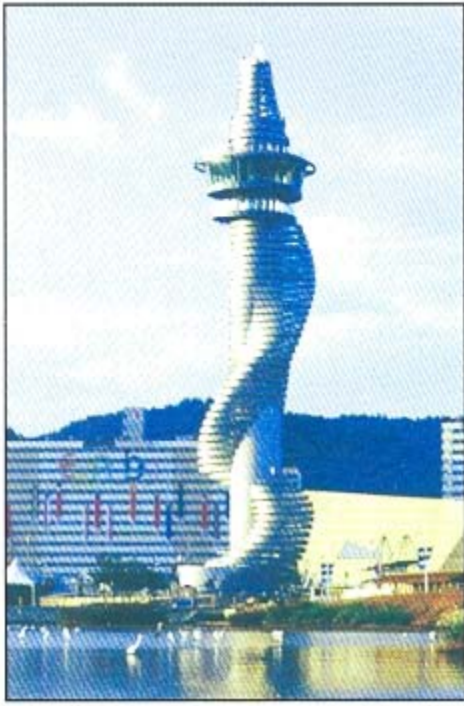
胎動



사진/최낙민

속초문화

1999년 제15호



표지의 말

'99국제관광엑스포상징탑
자연, 환경, 관광을 모티브로 발전하는 강원
도의 미래를 상징하며, 나선형의 상승 구조
는 역동성과 함께 아름다운 여인상을 상상하
게 한다. (글: 편집부 사진: 최낙민)

사색의 창
목차
Focus

6
8
10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제34회 설악문화제
제17회 민속경연대회
제8회 전국무용제

휘 호

20

이계남

권두시

21

최광호/설악신문 취재부장

속초시가

22

문예중흥선언

23

발간사

24

최용문/속초문화원장

문화원동정

26

속초문화원 365일

기획논단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결산과 그 의의
채용생/속초부시장

38

지방자치와 의회의 오늘
박학성 의장

46

IMF를 극복하는 길
이기을박사

49

백두산 관광 속초에서 출발
장세호/속초시 관광과장

57

대학문화와 속초시
사득환/동우대학교수

61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
김희철/속초상공회의소 사무국장

63

건강과 흡연
주왕기/강원대학교수

67

• 발행인 / 최용문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편집위원 / 이인철, 이기을, 오윤근, 김광수, 김호응, 박영도, 윤의구, 주상훈, 최현식
• 발행일 / 1999년 12월 29일 • 인쇄일 / 1999년 12월 30일
• 편집·편집디자인/광고방(0392-636-4443) •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 217-010 강원도 속초시 명랑동 570-5 TEL 0392-632-1231 FAX 0392-632-1241

기획특집

문화의 생

70 설악산 국립공원 시리즈(15) 최구현/원로사진작가

76 속초 영랑호반에 세워진 안축선생의 시비

그리운 고향

79 속초는 무궁한 비전 이 반/송실대 문예창작과 교수

역사의 향기

83 신라 범일선사의 낙산사 중창과 그 의미 최현식/강원도 문화재위원

88 속초 노학동 3층석탑

전통민속놀이

90 든대질 놀이 주동진/영북민속문화연구회 기획단장

93 양양조산초등학교 노광복/속초문화원 부원장

95 북청사자놀음의 재현 이병연/동우대 교수

98 돈돌놀이

100 영랑호 보광사에서 맞이하는 정월대보름 장승제 석문스님

우리문화

103 인터넷과 문화예술, 지역정보화 엄경선/설악지역정보센터

108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

111 지역을 알리는 우리신문-설악신문 장재환/설악신문 편집국장

115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가칭) 발간계획 오윤근/속초문화원 이사

117 20세기 강원인의 역사-타임캡슐 매설

문화광장

119 속초시 문화상 수상인

120 서예 한마당

125 속초예총 소식

130 민예총 소식

132 만화만평 조영길/강원도민일보 편집부 기자

134 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 ① '99강원국제관광EXPO 개막제 축하공연(99년 9월 11일)
- ②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외국 민속공연에 넋이 나간 듯 지켜보는 모습들...
- ③ 제26회 관광진흥축전대회 김대중 대통령 EXPO場 방문

- ①
- ②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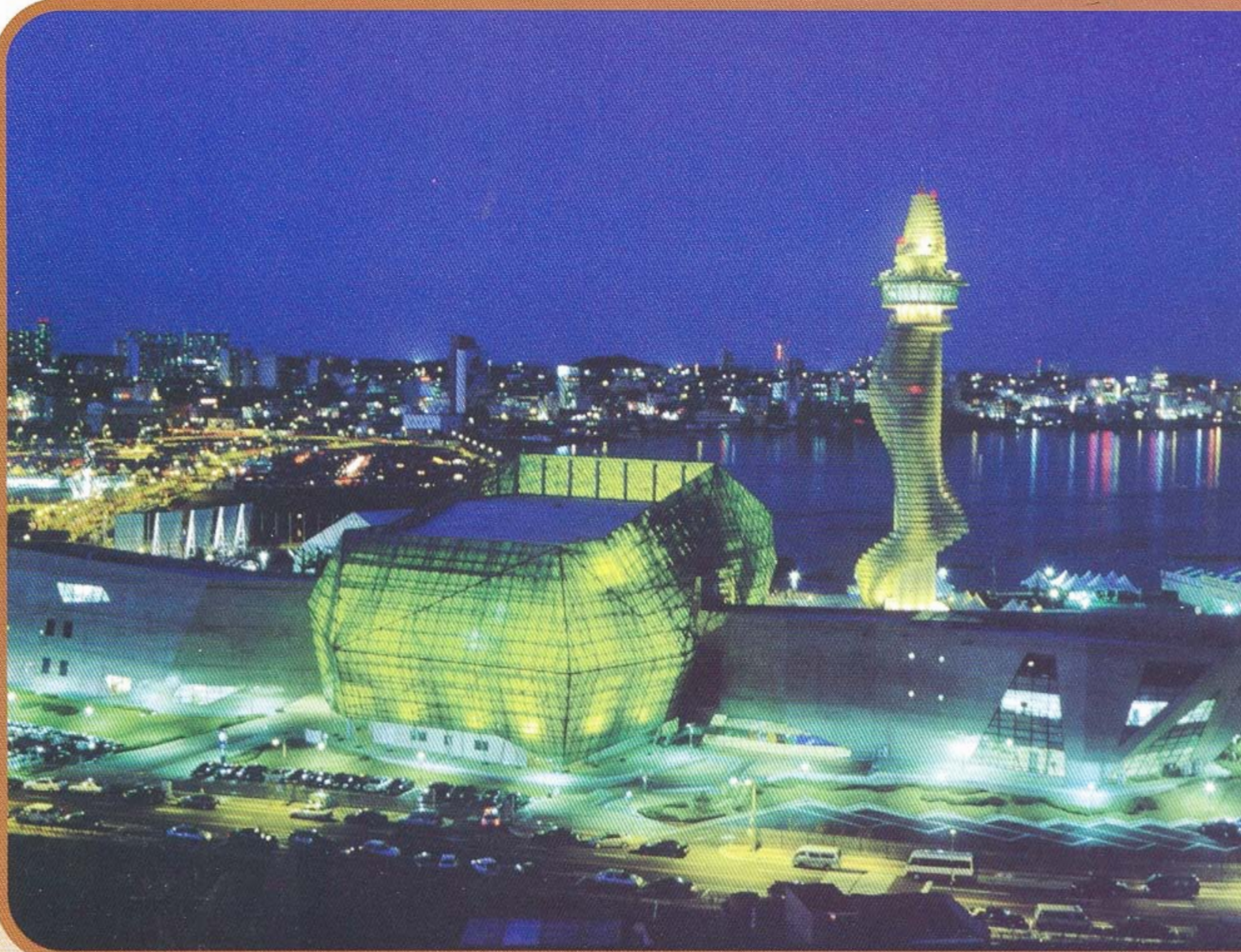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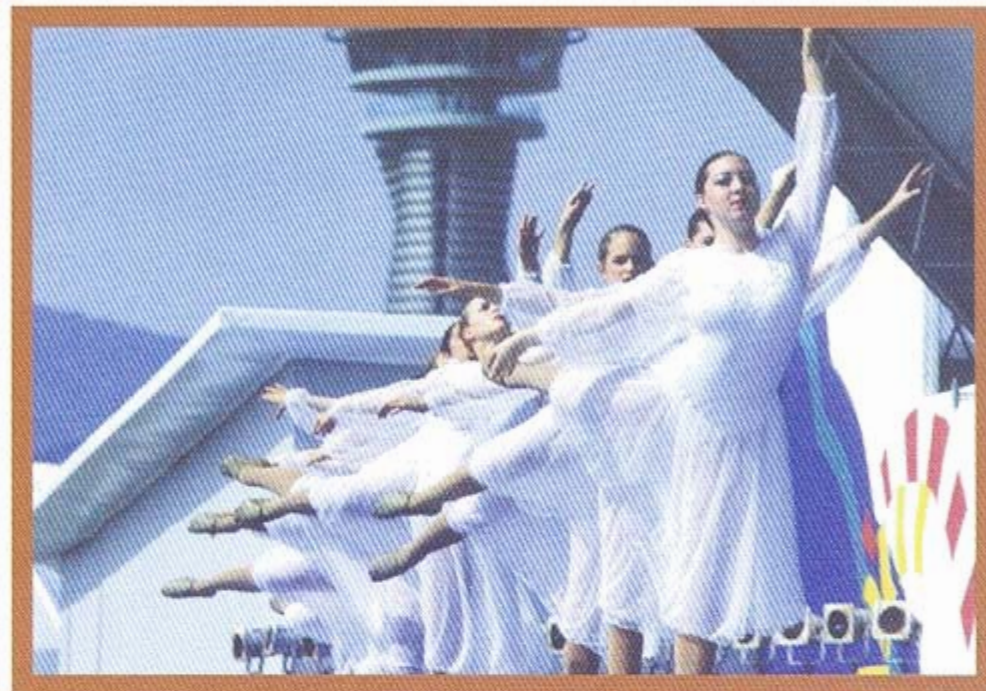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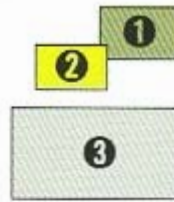
①

②

③

- ① EXPO국제관 광장에서 8명의 댄서가 4m장대끝에서 유럽풍의 전통 구혼의식을 열연 15일간 '스트레인지 플루트' 공연
- ② 내셔널데이에서 미국 그레삼시의 공연
- ③ 속초시가지와 청초호 국제관광EXPO場 밤 풍경





- ① 중국 요령성의 국립민속공연단
- ② 일본 민속공연단의 즉설모델(토야마 현)
'강원도 양양 송이버섯이 최고!'
- ③ 10월 15일 경상북도의 날 화려한 부채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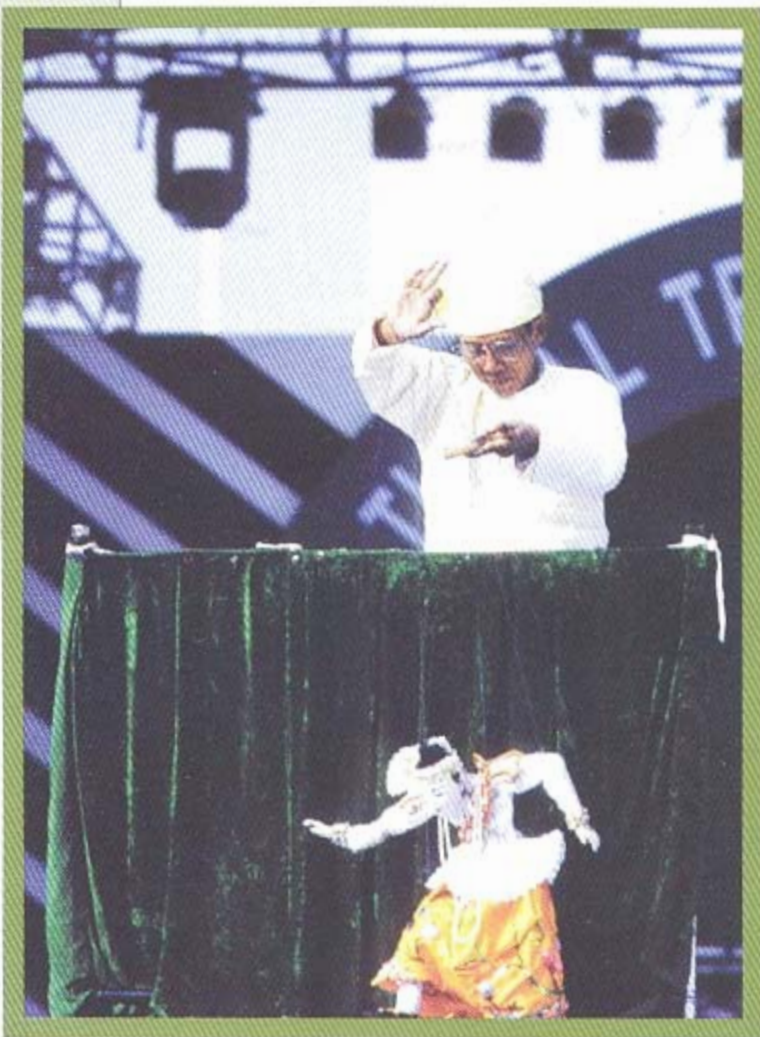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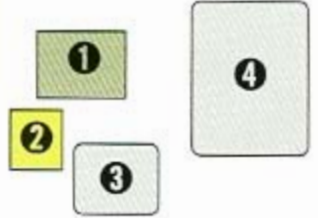




- ①
- ②
- ③

① 이스라엘(ISRAEL) 전통혼례식 공연
 ② EXPO 폐막제까지 장기간 환상적 공연을
 마친 몽골(Mongolia)국립서커스단 Acrobatics
 ③ 남 아프리카(South Africa) 민속공연





- ① EXPO場內 수변공연장에서 현대무용을...
- ② 미얀마(Myanmar)의 날 민속공연-인형과 사람이 동시에 출연하였으나 인형극만 촬영하고 우측옆의 인형과 똑 같은사람을 화면에 담지 못하여 못내 아쉽게 되었다.
- ③ 최다 입장객을 기록한 10월 3일 오후에 아남프라자 옥상에서 본 북문광경
- ④ '99강원국제관광EXPO 50일간의 이벤트 속초 청초호주변의 신화를 남긴채 역사속으로 우리들 가슴속에 남는다. 수많은 공연을 다 보여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최낙민

'98 남북산하 사진전(세종문화회관)
'98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정부종합청사)
'99 금수강산 국립공원 사진전
(국회회관 1층 중앙홀)
한국 사진작가협회 회원
〈千의 姿態 雪嶽山〉 지은이
H.P 017-371-3459

제34회 설악문화제

10월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까지 오징어 할복, 그네, 통일법회 등 다채롭게 열렸다.

올해의 설악문화제는 10월 1일부터 사흘간 속초시 동명항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시내거리와 설악산 일원에서 그네, 줄다리기등 각종 민속놀이와 등산대회, 통일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다.

첫날 악천우로 대청봉의 통일대제가 무산되고 개회식과 문화상 시상식을 문화회관에서 치르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설악제례, 통일염원제전, 설악산악제전, 설악예술축전, 거리문화축전, 향토민속축전, 놀이문화축전, 해양문화제전으로 막을 내렸다.

제34회 설악문화제에서는 특히 신흥사(新興寺·주지 도후스님)의 통일대불에서 이수성 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과 신도, 실향민등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법회가 봉행 되었으며, 북청사자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국악「장사익과 떠나는 소리여행」이 특별공연을 하여 설악문화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노젓기대회





장사익과 떠나는 소리여행



오징어 할복대회



시민가요제

제17회 민속경연대회

강원도·KBS춘천방송국 주최, 속초시·속초문화원이 주관한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10월 9 - 10일까지 속초종합경기장에서 18개 시·군 20개 민속단,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축제에서 춘천의 「외바퀴 수레싸움」이 대상을 수상 했으며, 속초문화원의 출전작인 「속초든대질놀이」는 우수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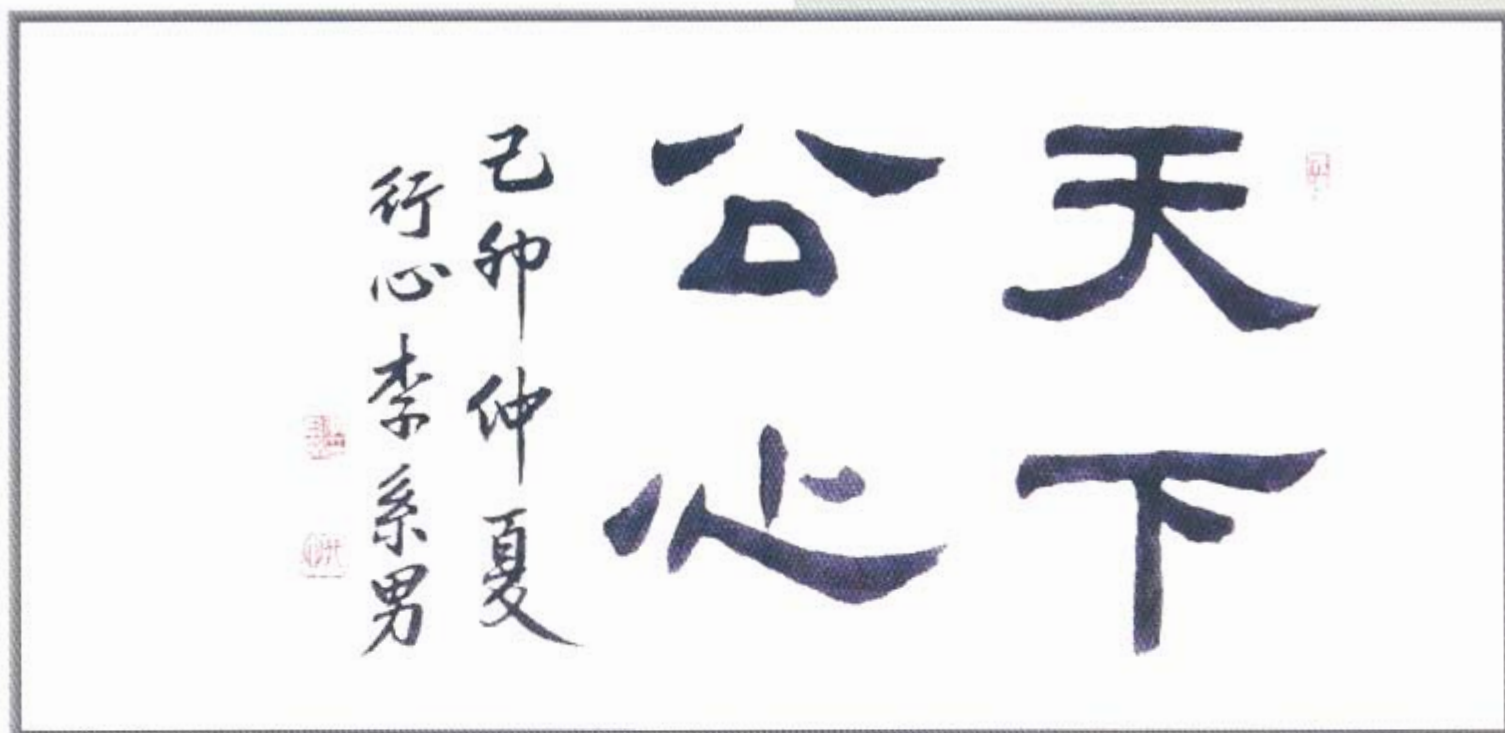
경축행사로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학생들의 꽃꽂이전을 선보였다.



'99
제8회 전국무용제

'99 The 8th KOREA DANCE FESTIVAL





行心 李系男 (이계남)
 1995년 향토문화학교 입교 3기생
 한·중 서예 교류 입선 2회(97,98)

배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던 밤
 나의 바다 위에 낚선 배가 떠 있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으리오.
 세상이 고통받고
 때로 기뻐할 순간도
 냉담한 관객이었던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죄를 만들었네.
 이제 다시 밤바다로 나와 보는 건,
 물들은 하나의 잔잔한 흔들림으로
 흔들리며 저리 만나고
 밤별들은 여행의 정다운 벗이거늘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나는
 무엇과 흔들리며 만날 수 있으랴.
 작은 배는 돛을 울리는데
 나는 저 배의 선원도 승객도 아니니
 돌아가 닻을 내릴 항구도 없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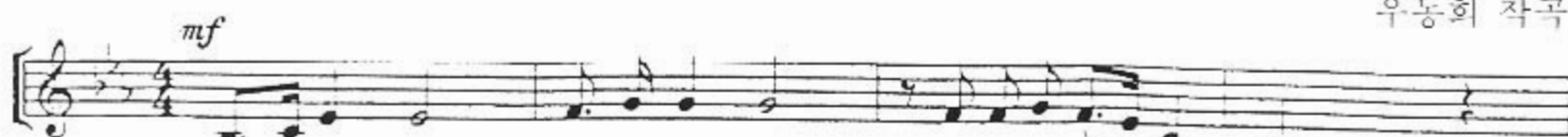
최광호

1990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현재 설악신문사 취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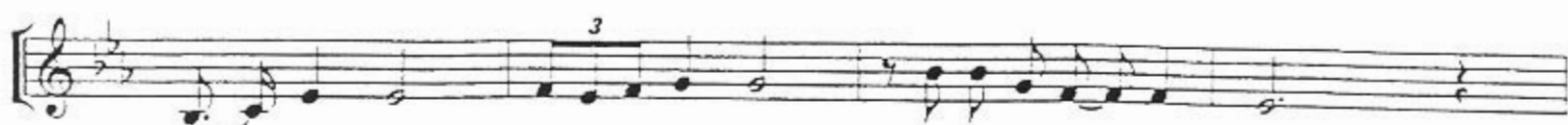
속초시가

♩ = 92 -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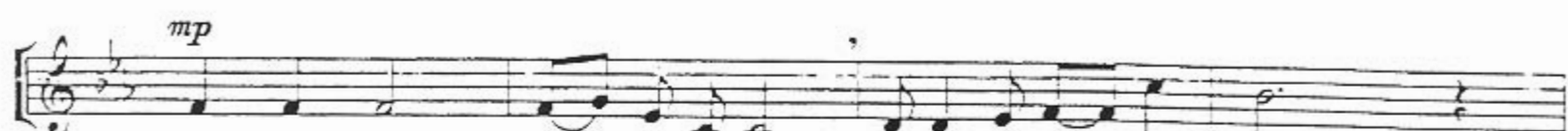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침해 떠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 리 예 새벽잠 깨 - 이 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 에 펼 - 치 네
천 - 불 동은 골 - 짜 기 에 흰 구름 몸을 묻 네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닷가 거닐 어 라



정 성 과 보 - 람 으 로 다 저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라 보 니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손 짓 하 니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제 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녀 이 그 - 음 허 깊 어 지 네
항 - 구 에 묵 인 배 가 대 양 으 로 차 비 하 네



가 자 배 를 젓 - 자 산으로 바다향 - 해



우 리 얼 것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최용문/속초문화원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
 문화를 통한 삶의 향상은 우리의 몫인 것이다.
 이의 밑 바탕인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
 개발하면서 지역의 득과 실을 판단하여 소득에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을 속도있게 개발해 나가야...

우리가 그리도 모질게 살아왔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또 새천년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들은 두 밀레
 니엄 새에 자리하여 우리것의 가치관을 재확인하고 조명해 보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지난 20세기 우리의 역사는 이데올로기로 남과 북으로 국토가 절단되
 고, 동족상잔과 부정부패, 보리고개에 이은 기나긴 군사독재, 문민정부의
 IMF 환란이란 비참이었다. 이 지난 세기의 모든 것은 도덕성 문화의 상실
 이 그 주인이라고 진단해 본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질과 양을 포괄, 평가의 척도로 하기에 우리
 문화인의 사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지대하다고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는 내년을 '새로운 예술의 해'로 정하고, 문화예산으로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의 1.03%로 대폭올려 문화의 활성화가 국가의 제2의 건국에 으뜸임
 을 확인 해 주었다. 우리 다함께 희망찬 내일의 보다 진하고 감동찬 문화
 의 삶을 위해 끝없는 고고의 성을 다해보자.

우리 강원도민들은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눈앞의 이익이 32억원이지만 미래의 효과는 가히 천문학적 계산이라면
 가히 긍정적일 것이다. 속초항을 기점으로 러시아 포세이트(자루비노)항,
 중국의 훈춘을 통한 백두산 관광길이 2천년에 열린다.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 양양국제공항 개항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문화가 활짝피어 소득이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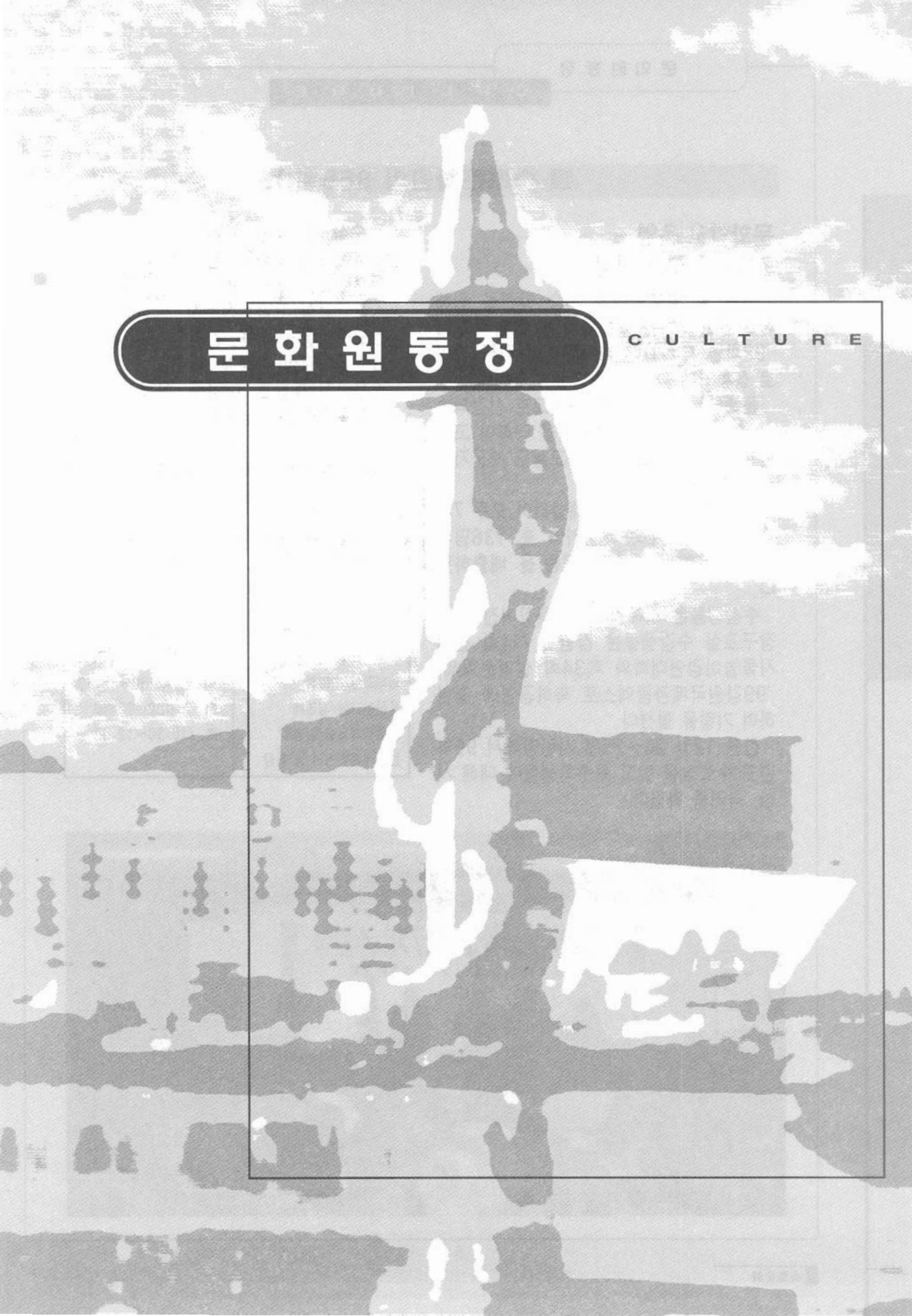
21세기는 '문화의 세기' - 문화를 통한 삶의 향상은 우리의 몫인 것이
 다. 이의 밑 바탕인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존, 개발하면서 지역의 득
 과 실을 판단하여 소득에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을 속도있게 개발해 나가
 자.

문화체육센터(문화원 원사, 예술회관 포함)등의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소득에 연관된 각종 문화 아이템사업을 펼쳐 내실을 굳히는 문화시민
 이 되기를 기대한다.

'속초문화'가 지령 15호로 1천년을 마감하면서 감회가 새롭다.
 우리 전통문화지가 과연 제 몫을 다 했는가 반성해 보면서 새천년에는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문화의 세기를 다함께 호흡할 것을 약속하며 발간사
 에 대신하고자 한다.

문화원동정

CULTURE



■ 속초문화원의 365일 ■

**문화학교 운영 -
7개분야 교실 상설**

전통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속초문화원 문화학교가 '99학년(제7기)에도 시민들의 적극 참여로 성황리에 한 해의 수업을 마쳤다.

올해에는 지정 한국문화학교로 선정되면서 종전의 장구교실 초급반을 더하여 고급반을 신설 하였으며, 서예교실도 사군자교실을 추가하였다.

또한 전통요리교실을 개설하여 모두 7개 교실을 주내 계속 개강하여 총 138명의 수료생(문화관광부장관 수료증)을 배출하였다.

수강생들은 서예전 1회, 꽃꽂이전 2회, 장구교실 수강생들은 강원도 제4회 강원사물놀이경연대회와 제34회 설악문화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축하공연에 출연하여 기량을 펼쳤다.

한편 12월 24~25일 사랑방에서 99학년도 수료식을 갖고 우수학생들에 대해 시상, 격려를 하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서예교실-박태욱, 김선진, 윤정순
- △장구교실(초급)-최재규, 김추자
- △장구교실(고급)-전추자, 김경선
- △노래교실-이정옥, 김경임, 노경자
- △꽃꽂이교실-엄경애, 박현수
- △사군자-홍월표, 이영주, 최정자
- △전통요리교실-남정련, 이금옥

속초문화원은 새해에도 3월초 같은 과목으로 개강할 계획이다.

강좌 및 강사	요일 / 시간
장구교실(초급)/김동연	월·목/10:00~12:00
장구교실(고급)/박치영	목 /13:00~15:00
서예교실/지응준	화·금/09:30~11:30
사군자교실/지응준	금 /11:30 ~13:30
노래교실/최봉하	화·금/13:30~15:30
꽃꽂이교실/김영애	수 /10:30~12:30
전통요리교실/김병학	토 /10:30~12:00
전통예절및시사 등 특강	



■ 속초문화원의 365일 ■

청소년 한아름교육기관 선정



속초문화원은 올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 한아름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내 20개 초·중학교 학생 총 7,459명에 우리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하루 3~4시간씩 모두 36회의 한아름특활에서는 풍물놀이, 소고춤, 탈춤, 제기차기, 굴렁쇠, 팽이치기, 줄넘기 등 우리전통민속놀이 마당으로 펼쳐졌다.

우리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수준 높은 공연의 관람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생활속에 자리매김하는 계기와 더불어 문화 체험의 장이 되었다.

속초문화원은 명년에는 관내 학교는 물론 이웃 학교도 확대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한아름특활을 할 계획이다.



■ 속초문화원의 365일 ■



열아홉번째 대보름민속놀이 성료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와 한마당

속초문화원이 전통문화 전승보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매년 정월 대보름에 펼치고 있는 「대보름 민속놀이」는 올해에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D-200일인 3월 2일(음력 1월 15일)속초시와 공동으로 주최, 엑스포장에서 1만시민의 참여속에 성대히 열렸다.

올해에는 종전의 주관단체인 농협, 신협, 축협 외에 수협, 마을금고연합회, 보광사가 참여하여 연날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윷놀이, 투호경기를 가졌으며 이어 달집태우기, 다리밟기와 불꽃놀이 등으로 엑스포를 성공기원하는 밤샘 놀이마당을 가졌다.

효행청소년시상

속초문화원은 올해의 효행상으로 다음 학생들을 선정, 시상했다.

학교명	수상자	시상일
영랑초등학교	양승연	2월 12일
중앙 "	장혜진	"
속초 "	이상호	"
교동 "	함종현	2월 19일
은정 "	손민정	2월 12일
청대 "	김도영	"
조양 "	이주원	"
청호 "	신승태	"
대포 "	이성희	"
설악 "	손경훈	2월 19일
속초중학교	신채영	2월 13일
속초여자중학교	김유미	"
설악중학교	김한빛	"
설악여자중학교	김은경	"

■ 속초문화원의 365일 ■

시민큰잔치

7월 30일 속초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가진 제4회 시민큰잔치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기념하는 행사였다.

관광도시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전통문화의 접촉을 위해 매년 속초문화원이 주최하고 풍물패 갯마당이 주관하는 시민큰잔치에는 길놀이, 속초도리원농악시연, 사물놀이(삼도풍물굿), 락그룹공연, 댄스공연, 상모판굿공연, 대동놀이 등 다채로운 레파토리가 펼쳐져 3천여 관광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다.



관광 EXPO 성공기원을 위한
시 민 큰 잔 치
 화예슬진훈원, EXPO속초시민후원회, 설악신문

제3회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속초문화원이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여름풍물학교는 도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판굿과 사물놀이 등 우리가락을 교육하는 것으로, 올해로 3회째 8월8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졌다.

참가학생 70명이 수련관에서 합숙을 하며 전통문화의 체험 교육에 열심이었다.



■ 속초문화원의 365일 ■

제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내역	문화원명	비고
대상	고성문화원	강원도지사상 (상장, 상금)
최우수상	춘천문화원	문화원도지회장상 (상장, 상금)
우수상	강릉·정선문화원	속초시장상 (상장, 상금)
장려상	삼척·영월·횡성 양구·원주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장상 (상장, 상금)

전국 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제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9월 17일 속초항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전통놀이 문화의 우수성 인식, 사물놀이의 신명감 감지(전통성과 현대성 가미), 전통놀이 문화의 계승발전 문화향수권의 신장, 도민의 정서함양,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홍보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열린 이날 경연에는 관내 16개 시·군 문화원에서 2백여 주부사물놀이패가 출전, 열연하였다.

'99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 단종애사의 고장, 문화유적지답사(6월 11일)

올해의 문화유적지답사는 문화원 가족 90여명이 6월 11일 단종애사의 고장 영월을 찾았다.



김승수(金勝洙) 영월문화원장의 안내로 소나기재, 선돌, 장릉, 보덕사, 민충사, 창절사, 자규루, 고씨동굴, 청룡포 등을 관람하면서 단종애사의 일편이나마 봐야 보았다.

■ 속초문화원의 365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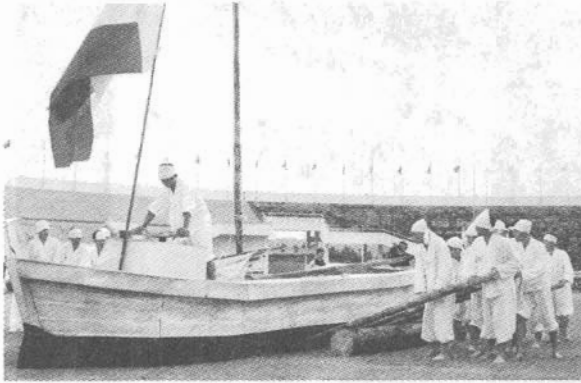
제4회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10월2일 문화회관>대상에 강원도지사상

속초문화원이 주최, 영북민속 문화연구회 '갯마당'이 주관한 제4회 청소년풍물겨루기 한마당이 10월 2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초·중·고교생 1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올해의 풍물겨루기 한마당에는 대상에 강원도지사상과 금상에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이 신설, 우리 청소년들의 풍물교육에 뜻을 더해 주었다. 이날의 수상 학교는 아래와 같다.

구 분	학 교 명		비 고
	초 등 부	중 등 부	
대 상	교동초등학교		강 원 도 지 사 상 (상장,상패,상금)
금 상	희룡초등학교	속초여자중학교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상장,상패,상금)
은 상	죽정초등학교	속초고등학교	속 초 시 장 상 (상장,상패,상금)
동 상	속초초등학교	강일여자고등학교	강원도속초교육장상 (상장,상패,상금)
장 려 상	영랑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	설악중학교	속초문화원장상 (상장, 상금)
특 별 상	중앙초등학교	설악여자중학교	설악문화제위원장상 (상장, 상금)
지도교사상	속여중(김영삼)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상장, 상금)

■ 속초문화원의 365일 ■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작 - 속초든대질놀이(우수상)
강원도, KBS춘천방송국 주최, 속초시,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10월 9 ~ 10일 속초종합경기장에서 18개 시·군 20개 민속단,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축제에서 춘천의 「외바퀴 수레싸움」이 대상을 수상 했으며 속초문화원의 출전작인 「속초든대질놀이」는 우수상을 받았다. 경축행사로는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학생들의 꽃꽂이전을 선보였다.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서예 작품전시회

본 문화원 부설 문화학교 서예교실(지도 강사/지응준) 수강생들이 12월 24~25일까지 2일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속초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서예작품전을 가졌다.

이날 테이프 절단식을 시작으로 수강생 28명, 전시된 작품수는 모두 64점이었다.



■ 속초문화원의 365일 ■



◀전통요리교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장구교실



◀꽃꽂이교실

■ 속초문화원의 365일 ■

갯 마 당

신년맞이 새해굿

장소:속초 동명항

일정:1월1일

내용:비나리/사자춤/사물놀이/연합판굿

연출:박치영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D-200기념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장소:엑스포 행사장

일정:3월2일

내용:다리밟기/속초농악 시연/

상모판굿

제10회 KBS서울국악대경연

일정:6월4일

풍물부문 차상수상

日本초청공연 2회

일정:7월24~25일

히로시마 가이노세키현 수군축제

일정:12월10~12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원폭피해자 위령제

제4회 시민큰잔치 주관

장소:속초해수욕장

일정:7월30일

내용:1부-민속놀이/손도장찍기 등

2부-속초농악/사물놀이/판 굿/락밴드/판소리/댄스경연

제3회 청소년 풍물교실

장소:속초시 청소년수련관

일정:8월9~14일

내용:풍물강습/문예강좌/단소/

택견/공동체학습

제1회 원주 한지문화축제

장소:원주시청 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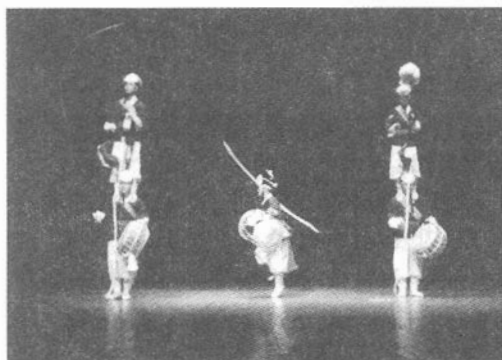
일정:9월11일

주최:한지문화축제위원회

내용:풍물(상모 판굿 공연)



■ 속초문화원의 365일 ■



제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장소:속초시 동명항 특설무대
일정:9월17일
내용:상모판굿 시연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속초시의 날

장소:EXPO행사장
일정:9월30일
내용:상모판굿

제34회 설악문화제

장소:동명항 특설무대
일정:10월1~2일
내용:속초 도리원농악 시연

제4회 강원도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주관

장소:속초 문화예술회관
일정:10월2일
내용:축하공연/사물놀이/농악/판굿경연
참가단체:초·중등부 18개팀 참가

제17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장소:속초시종합경기장
일정:10월9~10일
내용:속초농악시연/속초튼대질소리출품
(우수상)
연출:주동진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장소:인천시 종합경기장
일정:10월11일
내용:개막행사(풍물굿)

제1회 전국농악 명인전

장소:한국민속촌
일정:10월16일
주최: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회
수상:쇠놀이-우수상, 장구놀이-우수상,
북놀이-장려상

제3회 전국농악경연대회

장소:전북 정읍시 문화예술회관
일정:11월4일
주최: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한국농악보존협회
내용:안성 서운농악
수상: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수상

청소년 한아름 교육강사

장소:속초,고성,양양 초·중학교
일정:4월1~11월27일
주최:속초문화원
후원:문화관광부
내용:풍물공연관람, 민속예능배우기(소고춤),
민속놀이



■ 속초문화원의 365일 ■

향토사료관



98년 4월 29일 개관한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양동 청동기시대 유적지, 향성사지 3층석탑, 6.25전쟁과 속초의 수복, 영상자료실 등 속초문화유산을 집합한 전시실에는 99년말 현재 2만 2천 5백 29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외국인도 3백여명이나 된다.



사료관은 특히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속초문화원은 향토사료전시관을 통해서 본 『속초문화유산』책자 2천부를 발행하여 속초 역사 익히기에 도움을 더해 주고 있다.

■ 도서출간안내

속초문화원은 올해의 민속지로 『속초지역 구전설화집』을 펴냈다. 잊혀진 속초에 대한 지명 유래나 산악과 해양, 자연부락 전설등을 묶음을 한 것이다.

- 조사자 : 장정룡(강릉대교수, 문학박사)
양언석(관동대 교육과학연구소 문학박사)
- 국판264쪽

■ 원고를 모집합니다.

“속초문화”지에 실리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상적인 생각이나 이 고장의 잊혀진 지명, 전설, 사진, 속초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찾습니다.
보내주시면 귀하게 실겠습니다.

38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결산과 그 의의
채용생/속초부시장

46 지방자치와 의회의 오늘
박학성/속초시의회 의장

49 IMF를 극복하는 길
이기율/박사

57 백두산 관광 속초에서 출발
장세호/속초시 관광과장

61 대학문화와 속초시
사득환/동우대학교수

63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
김희철/속초상공회의소 사무국장

67 건강과 흡연
주왕기/강원대학교수

'99 국제관광엑스포의 의미와 성과

50일간 속초 청초호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지구촌 관광가족의 환호와 열광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대단히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그동안 슬한 고뇌와 조바심, 설레임과 안타까움으로 점철되었던 시간들이 부듯한 자부심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는 그때 그순간들을 되돌아 본다.



채용생 /속초부시장
속초시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장

50일간 속초 청초호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지구촌 관광가족의 환호와 열광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대단히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우리지역 사상초유의 대규모 국제행사였고, 금세기 마지막으로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우리시로 집중시킨 지구촌 대축제였던 만큼, 대회준비와 관광객 수용대책이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모든 의지와 역량을 기울여 준비해 왔다.

준비과정에서 슬한 염려와 걱정어린 목소리도 많



았다.

“대회전까지 미시로와 온천로가 완공되겠냐”느니, “개막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대회장이 흠땀이만 있느냐”, “IMF의 시대적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그만 소도시에서 치르기에 너무 큰 행사가 아니냐”는 등 각종 우려와 노파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EXPO대회장을 비롯하여 도시전반에 걸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획된 날짜에 성대히 개막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쾌적한 도시환경, 원활한 교통소통, 따뜻한 손님맞이, 풍족한 엑스포 내용 등은 국내외로부터 찬사와 경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고, 역대 지방이벤트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엑스포를 치러내기까지 그 이면에는 많은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부단한 정성과 협조가 기울여졌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PO를 계기로 그동안 흘린 땀과 정성은 앞으로 국제적 관광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꽃을 피울 것이며, “하면 된다”는 범시민적 자신감은 2천년대의 번영을 창조해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1. 개최배경과 성공요인

새 천년의 주력산업은 정보통신과 환경 그리고 관광문화산업이다.

그리고, 청정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목표가 관광진흥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관광진흥과 강원관광의 세계화를 위해선 관광문화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관광문화의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므로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관광 엑스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산과 바다, 호수의 전경이 함께 어우러지고 주위에 많은 관광수용시설을 갖춘 속초 청초호변으로 장소를 결정하여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관광진흥이란 명백한 목적과 이에 상응하는 뚜렷한 테마, 그리고 주도면밀한 준비작업 등이 삼위일체됐고 이에 더해 완벽한 운영체제와 최적의 입지여건이 맞물려 “성공 엑스포”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

관광마인드를 공통으로 인식한 전 강원도민의 야심찬 의욕과 헌신적인 노력이 성공의 밑거름이었고, 특히, 자가용운행을 자제하고 가로변 꽃박스에 물을 주며 보도블럭 하나, 나무끼는 행사깃발 하나에도 정성을 쏟은 속초시민들이 엑스포 성공을 견인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 대회준비 과정

속초시는 엑스포를 지역발전의 결정적 호기로 삼기 위해 지난 4년동안 지역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우선, 대회장인 청초호유원지의 12만3천평 부지 기반조성을 위해 호안공사, 매립공사, 연약지반처리, 상하수도 공사, 도로교량공사, 통신



전기관로공사 등을 공기내에 차질없이 완벽하게 끝냈다.

또한, 행사장소인 청초호의 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정을 당초보다 앞당겨 지난 99년 7월부터 임시가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 3만본을 청초천에 식재하는 등 수질정화에 힘써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와함께, 엑스포 성공의 최대 관건이었던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엑스포장의 접근도로망을 확충하고, 각종 교통시설과 시스템 정비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7번국도를 포함해 5개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포장과 시설을 정비했으며 차선도색 시가지 인도정비도 시행했다

그리고, 폭증이 예상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대회장 주차시설(4천56대)과 유흥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시설(3천9백60대)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책을 강구했고, 도심의 전체적인 교통여건을 분석 연구해 교통체증 취약지 5개구역 13개소를 대상으로 지·정체 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량 분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회장 경유 시내버스를 증회운행하는 등 대회장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했으며,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택시·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을 깔끔하게 바꾸었다.

특히, 대회기간중에는 자가용 운행안하기 운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교통소통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속초의 지도가 일부분 바뀔 정도로 대규모 도로망 확충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시켰다.

온천로 확포장 사업(교동 소야교~척산3거리)이 1백13억원, 미시로확포장 사업(국민은행 연수원~한화입구)에 2백36억원, 이 밖에 2백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도7호선 우회도로(엑스포장 옆)가 개설되는 등 총 9개의 접근도로망을 확충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사관계자들이 엑스포 개막일 이전 완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고, 특히 공사 막바지에 보여준 공사관계자들의 투혼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최지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성원을 최대한 모아 지원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전 시민의 능동적 참여분위기를 확산 시키고 엑스포의 품 조성을 위해 순수민간조직인 시민후원회가 조직 운영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업무기능별로 지원협조할 유관기관단체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시민설명회 시민실천 다짐대회, 계층별 엑스포 장 견학, 시민의식개혁 교육, 성공기원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시민동참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D-1년 기념행사, D-300, 200, 100, 50, 30일 기념행사 등 특별 이벤트를 시기별로 다양하게 추진해 엑스포 성공을 위한 사전 품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엑스포기간중에는 전국무용제, 태권도 대회, 윈드썰핑, 씨름왕선발, 민속경연 등을 장외행사로 유치하여, 개최함으로써 유사 이래 속초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개최(총32종)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엑스포 개최의 의의와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고 국제적인 관광지 설악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고물 설치와 홍보매체 활용, 관광업체 홍보

참여,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엑스포 관람하기 운동 전개, 국내외 각종 축제와, 이벤트행사 현장홍보, 국내·외 자매교류 도시를 통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특히, 대도시 현장홍보활동에 공무원 뿐만아니라 시의회의원, 관광업체종사자, 출향인사 등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솔선 활동해 주신 점은 고맙기만 할 따름이다.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선 관광객 수용시설 확충 등 관광환경의 조성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가져다 줄 관광이익을 위해서도 엑스포와 연계된 관광명소개발과 먹거리, 즐길거리 발굴이 중요했다.

이에따라 기존 관광유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며, 속초8경을 별도로 선정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힘썼다.

특히, 해맞이 조각공원과 등대전망대, 산책로 조성등은 앞으로도 관광객유치뿐만 아니라 시민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엑스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여행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보양관광, 체험관광, 생활현장관광 등 테마관광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여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설악향수, 동충하초, 수산가공식품 특색 먹거리 등 지역 특산품 홍보도 아울러 추진했다

또한, 엑스포 기간중에는 관내 관광과 숙박, 음식안내, 불편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으로 안내하고자 종합안내센터와 임시안내소를 설치 운영했고, 관광종합안내서와 지도 등을 제작 배포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엑스포장과 시내를 연계해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치시키고, 지역관광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자는 취지에서 동명항 속초생선회 대축제를 추진하게 됐다.

또 실향민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로 청호동 미리내 마을에서 함경도 음식축제를 운영했고, 대회 기간 중 영랑호낚시를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즐길거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선회축제 등 일부는 여러가지 제약에 부딪히면서 활성화되지 못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완벽한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손님에 맞는 시민들의 선진시민 의식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국제관광지다운 도시환경 정비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솔루션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질서의식 개혁 교육, 교통자원봉사자대 운영, 관광접객업소 손님맞이 운동, 개방 화장실 확대와 화장실 청결운동, 시민 대청결 운동 등 손님맞이 "질서·친절·청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관내 모든 기관단체 업소 등 모든 시민이 따뜻한 환영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했고, 질서있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바가지 요금과 호객행위가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충분히 보여줌으로써 EXPO를 계기로 방문한 관광객에게 수준높은 관광지의 깊은 인상을 심어준 점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소득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3. 대회 성과와 아쉬운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정 사상 최초이며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범도민적인 단합된 의지를 이끌어 내고, 관광발전을 위한 공통된 인식을 함께 한 점은 우선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 5만여명을 포함한 2백26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관광을 소재로한 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 시켰고, 수준높은 엑스포를 치러낸 자긍심과 긍지를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18개의 다양한 전시관, 63종의 공연행사,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본 엑스포운영은 전반적으로 전시참가, 규모, 내용면에서 알차고 짜임새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제관의 강원도 홍보영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다만 국제관 운영과정에서 각국 특산품 쇼핑의 묘미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부스마다 정식수입 통관된 5종이내의 품목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으나 일부 부스에서 판매 위주로 과열된 점이 옥의 티가 되어 아쉬웠을 뿐이다.

개최지인 우리 시를 중심으로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겼다는 것이다.

강원포럼이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대회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엑스포가 지역발전에 도움된다는 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지역개발의 기회제공, 도로정비

효과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주제관과 상징탑 등 도심 관광명소가 확보돼 자연관광과 균형을 이루며 종합관광여건을 갖추게 된 점 또한 큰 성과 중의 하나다.

이와 함께 엑스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금유입효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잠정추계이지만 이번 엑스포의 도내 생산유발효과가 약 2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국내 타지역에서 겪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엑스포로 인해 우리는 무난히 이겨낼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장기적인 성과는 속초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돼 향후 폭넓은 관광유치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환동해권 등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폭넓은 국제관광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지역발전의 모티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 또한 크다.

특히, 미국 KWR사 등 해외투자회

사들이 엑스포장 주변 관심을 보이며 관광레저시설 투자 의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광고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큰 관광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무형의 성과를 거둔 반면, 아쉬운 점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도 많이 도출되었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한계점이 노정됐다.

해외 관광객 알선업체의 경우 항공편 등 수도권에서 행사장까지 접근성이 취약하고, 육로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해외관광객 유치에 제약이 따랐다.

또한 일본, 중국 등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관광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속초관광이 세계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외국인에 대한 수용기반이 확충돼야 한다.



속초주민 스스로가 느끼듯이 언어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자고, 먹고,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외국식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외국인들의 관심사항이 우리의 문화라는 것을 주민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도시형태나, 생활모습 등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면서 외국인 수용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행사기간 중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치하지 못했고, 연계관광 알선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주민소득과 연계해 관광객을 도심에 유치하려던 속초 생선회 축제와 설악문화제 등이 굶은 날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큰 차질을 빚어 관광객의 시중유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더욱이 영랑호 개방과 관내 여행사의 관내관광 패키지상품 개발추진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광알선이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 등 하드웨어 부문도 중요하지만 훨씬 취약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의 확충으로 실제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4. 앞으로의 전망과 해야 할 일

이제 풍성했던 잔치는 끝이 났다.

텅 빈 유원지에 오롯이 서있는 주재관과 상징탑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면서 유원지 어귀에서 물질하는 철새들을 자연관광상품화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엑스포 개최지의 명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국제적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 나

가야 할 것이다.

우선, 청초호 유원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철새 도래지를 비롯한 호수변쪽은 자연생태계 보전차원의 녹지와 자연관찰지역과 다목적 광장 등 시민휴식공간 차원의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재관과 상징탑은 주변 시설을 보강하여 "창조된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즉 엑스포기념관 등 관광관련 전시와 홍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상설이벤트 공연시설을 갖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설악산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정례 답사코스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2천년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메머드급 세계적 행사와 연계해 관광엑스포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고 있다.

이는 ASEM대회, APEC관광장관회의, 한국방문의 해, 2002월드컵 개최 등 새천년부터 이어지는 세계적인 행사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수용 전용시설을 이곳으로 유치 추진하고 있다.

면세용 관광쇼핑센터와 컨벤션센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 등을 국제규모로 민자유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2천년대 관광진흥의 호기에 관광객 유치의 최대 걸림돌은 역시 설악권으로의 접근성 문제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우선 3~5만톤규모의 관광유람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속초항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2011년까지 2만톤급 1선식, 3만톤급 2선식 접안시설을 담고 있는 '속초항 관광선 부



두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9년 8월 발주해 놓고 있다.

또한, 미시령 동서 관통터널과 확포장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양양국제공항이 이른 시간내에 완공되고 기존 속초공항도 시설확충이 되면 외국관광객의 설악권 유치에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속초~러시아 포시에트(자루비노)~중국훈춘~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관광항로 개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고, 이 밖에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동해북부선 철도복원(강릉~고성간), 춘천~속초간 철도부설, 속초~일본 쓰루가 항로개설 등 설악권에 접근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입체적 교통망 구축이 지역 관광진흥의 관건임에 틀림없다.

이런 설악권 접근성 제고(提高)노력과 함께 우리는 나름대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가 있는 특색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지관광 알선 영업방식을 외지모객(外地募客) 설악권 관광알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 여행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 관광단지 조성, 설악

동 관광휴양시설 개선 및 4계절 관광지반 확충, 문화자산 발굴과 생태공원 조성, 해양박물관 조성 등 인문 및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문화의 가치를 창조하는 관광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끝으로, 21세기 통일한국을 대비해 설악~금강산간 연계관광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즉, 금강산과 차별화된 설악권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다양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전항과 해상관광호텔을 연계한 다양한 일정의 속초발 쾌속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본 하카다~속초~장전간 항로 개설도 강구 추진하는 것이다.

세계로 미래로 무한히 뻗어가는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추였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그 성공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현안사업들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그 성과물들이 분명 우리앞에 시나브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文**

지방자치와 의회의 오늘



박학성 의장/속초시의회

91년 4월 15일 초대 속초시의회가 개원되고, 95년에는 민선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의 환호속에 전면적으로 시작된지 벌써 8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 속에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91년 4월 15일 초대 속초시의회가 개원되고, 95년에는 민선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의 환호속에 전면적으로 시작된지 벌써 8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 속에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정에 불만이 있는 일부 주민들은 관선시대와 지방자치시대의 차이점이 없고, 심지어 지방자치시대에 들어 시정이 더욱 나빠졌다고 불평한다.

아직도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상급기관과 연계되어 시일이 늦어지거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말미암아 각종사업이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을 경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언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간에 보조금, 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과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대단위 사업을 획득하려는 열정이 지나쳐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일 때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공직자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 자위도 해본다.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커다란 변혁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관치의 개념으로 주민의 위에서 군림하면서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주민이 "고객"이라는 관념이 없었고, 또한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은 바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상급기관이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주민대표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행정의 주도권이 지방으로 옮겨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각종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그 정책과

사업예산을 사전심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집행부와 같이 책임을 나누고 있다.

이 과정이 하나의 절차로 굳어지자 주민들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 진정, 청원의 형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의회는 주민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타당한 의견은 서면질문, 보고요구, 시정질문, 행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주민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은 반드시 주민청문회를 개최하고, 의회에서 시정 전반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는 절차가 선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며 필요악 내지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의회는 필요하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의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만연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의 이끄는 두 축중 하나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활동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하고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방권한의 확대이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분권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아직 초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무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 위주로 배분돼 자치단체는 그 명칭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97년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국가사무의 비율이 70%이고, 그 이후 지방에 내려온 사무가 단순등록, 조사업무 등에 불과하고 중요한 결정사무는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장악하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심지어 지방의회의 회의일수, 일비 등 운영사항까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58%인 146곳으로 대규모 자체사업이 힘든 현실이다.

따라서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실행을 촉구하여 분권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것이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수단이다.

둘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불균형적인 관계의 개선이다.

단체장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데 비해 의회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의거한 10개 의결사항과 부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갖는 반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외에 상응하는 집행기관 견제권이 없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연구과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일례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에 귀속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지방의원 급여의 상향조정이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신분 유지는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을 지닌 인물들을 의회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회기중 잠시 시간을 내어 나날이 복잡다단하여지는 사회의 각종 자치법규와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지난 8년간 아마추어 정신으로 지방의회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행정을 선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인으로서 의원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나갈 시기가 도래되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동참하여 의원정수를 감축한 지금이 바로 생업에 신경쓰지 않고 임기중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 위상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지난 2대 의회기간중 14명의 의원으로 상임위원회까지 운영되었던 속초시의회에서도 현재 8명의 의원으로 의원정수가 줄어든만큼 의정활동비, 회의출석수당의 인상으로 의원들이 상시 출근하여 연구하게 하는 등 의원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몇가지 방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주민의 박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릇된 사업방향과 운영으로 인한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주민의 지탄을 야기한다.

따라서 아직도 주민의 눈에는 미약하게 보이는 지방의회가 굳건히 자리잡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30여년만에 재개된 지방자치가 그 꽃봉우리를 활짝 펼 수 있을 것이다.

文



IMF와 재무구조



이기율/경영학 박사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동우대학 명예교수

차례

1. 국민경제와 재무구조
국민경제, 기업의 재무구조.
2.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기업의 경영원칙, 문제점 1.
은행의 경영원칙, 문제점 2.
문제점 3.
3. IMF와 기업이익
IMF, 기업이익의 감소.
4. 자기자본의 증대
해결방책.

요새 우리의 경제사회를 계속 뒤흔들고 있는 것은, IMF니 구조조정(構造調整)이니 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한다.

1. 국민경제와 재무구조

- 국민경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사회(經濟社會)에 있어서의 지상목표는, 산업의 부흥으로서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는 종합경제(綜合經濟)로서 여러 개별경제 상호간의 분업(分業)과 교환의 기구에 의하여 결부 형성되어 있다.

즉 국민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그 밑받침이 되어 있는 여러 개별경제(個別經濟)이며, 이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국민경제를 존속 발전시킨다.

종합경제로서의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개별경제로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국가(國家)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이고, 둘째는 개인가정의 경제이며, 셋째는 개개 사업체의 경제이다.

첫째의 개별경제를 일반적으로 재정(財政)이라고 하고, 둘째의 개별경제를 가계(家計)라고 한다.

그리고 셋째의 개별경제, 즉 개개 사업체의 경제를 보통 기업(企業)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째의 재정(財政)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제

단위이며, 그의 주목적은 조세나 기타의 수입으로서 국가 또는 그 지방의 행정상(行政上)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경제(消費經濟)이다.

둘째의 가계(家計)는 각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의 경제이며, 오로지 소비경제를 내용으로 한다.

즉 가계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목표는 주인(主人) 또는 주부가 받아들이는 수입을, 그 범위내에서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욕구(欲求)를 유효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세째의 기업(企業)은 경영자에 의하여 영위되는 개별경제이며, 그 활동내용은 오로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生産經濟)이다. 더우기 기업경영체(企業經營體)는 국가재정과 개인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의 원동력인 조세(租稅)를 납부하고, 가계의 원동력인 개인수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활동이나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 윤택 활발하려면, 이들의 동력원으로서의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되어, 보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service)를 값싸게 풍부히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이 사실은 국가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소득(國民所得)의 수준이 높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용이하게 수긍될 수 있다.

- 기업의 재무구조

이러한 기업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기업(企業)은 금전상의 이익을 획득할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재화(財貨)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단위체이다.

그런데 기업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

기 의해서는, 우선 인적요소인 노동과 물적요소로서의 자본(資本)이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자산	고정부채 자기자본

우리 인간도 신체(身體)의 구조가 건전해야 제대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업에 있어서 자본의 조달형태와 그의 운용형태인 제자산(諸資産)과의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업에 투하되어 있는 제자본(諸資本)의 조달형태와 그 운용형태인 제자산과의 관계를 일정시점에서 표시한 것을 재무구조(財務構造)라고 하며, 재무구조는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에 표시된다.

요새 보통 말하는 구조조정(構造調整)이라는 것은, 재벌기업(財閥企業)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요새 문제되고 있는 재벌기업은 국내은행이나 외국으로부터 부채(負債)를 과다하게 차입하여, 국내은행은 물론 외국에서도 더 이상 대출(貸出)을 꺼리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원칙적인 상태로 복구(復舊)하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그러면 어떤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健全)하다던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基準)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기업의 입장(건전성)에서 부채비율(負債比率)을 체크(check)

하는 일이고, 둘째는 은행의 입장(안전대출)에서 유동비율(流動比率)을 보는 방법이다.

- 기업의 경영원칙

첫째의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自己資本)으로 나눈 것이며, 기업주가 그 회사에 대하여 많은 출자(出資)를 했는가, 또는 기업자본의 대부분이 은행 등 채권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가를 표시한다.

즉 부채는 자기자본을 미끼로 차입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많은 채무(債務)를 지고 있음을 뜻한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 부채비율이 100% 이하가 건전하다.

이것이 기업의 경영원칙(經營原則)이다.

- 문제점 1

그러나 IMF사태가

〈표 1〉

재무구조의 국제적 비교

(단위:%)

구분	한국 기업				미국	일본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7년	1997년
부채비율	287	317	396	303	154	186
유동비율	95	92	92	90	135	130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9년 6월호, p.42

발생한 1997년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치가 396%이어서, 자기자본의 4배에 해당하는 타인자본(他人資本)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해 쓰고 있었다(표1).

그리고 작년인 1998년에는 303%로 약간 호전(好轉)되기는 하나, 아직도 부채가 과다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우기 〈표2〉에서 재벌기업(財閥企業)의 부채비율을 보면, 1998년말 현재 삼성(三星)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치인 300% 이상이며, 특히 대우그룹의 부채비율은 526%(부채규모 60조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주원인, 즉 첫째의

문제점(問題點)은 재벌기업이 과다한 부채에 의해 과잉시설(過剩施設)이나 중복투자를 하는데 있다.

그런데 대우(大宇)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이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200%로 인하(引下)한다고 공표하였다.

〈표2〉를 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오히려 588%로 인상(引上)되었다. 공표는 공포(空砲)로 끝날 가능성이 짙다.

그뿐 아니라 단일기업으로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63빌딩)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즉 대한생명은 1999년 7월 30일 기업매각을 위한 3차 입찰이 무

〈표 2〉

	1998년 12월말		1999년 6월말	
	부채비율	부채규모	부채비율	부채규모
대우그룹	526%	599,000억원	588%	618,000억원
현대그룹	449	615,000	340	649,000
LG 그룹	341	364,000	246	352,000
SK 그룹	354	225,000	227	214,000
삼성그룹	275	447,000	192	393,000
5대재벌평균치	386	450,000	302	445,000

(자료) 조선일보, 1999년 8/26

〈표 3〉

대한생명의 BIS (1999년 6월말 현재)

자 산	135,600억원 (115,785)	부 채	141,676억원 (142,538)
자기자본	△ 6,076		(△ 26,753)
합 계	135,600억원 (115,785)	합 계	135,600억원 (115,785)

① ()은 실사금액(實査金額) ② 자기자본 중 자본금은 300억원 (자료) 조선일보, 1999년 8/30

산되므로서 문제화되었고, 미국의 파나콤투자회사가 8월 30일까지 500억원의 증자(增資)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9월 14일 다시 대한생명에게 대해 부실금융기관(不實金融機關) 지정 및 감자(減資) 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표3〉을 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대한생명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이 적자(赤字)이어서 계산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금(資本金) 300억원도 소진되어, 자기자본은 6,076억원(장부가격)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자산(資産)을 다 매각해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것이다.

- 은행의 경영원칙

둘째의 유동비율(流動比率)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流動負債)로 나눈 것이며, 은행이 차주(借主)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데 쓰이는 중요비율이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부채이므로, 유동자산(流動資産)으로부터 나오는 자금으로서 상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보아, 기업의 유동비율은 200% 이상이 안전하다.

이것이 은행의 대출원칙이다.

더우기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일반은행의 건전경영(健全經營)을 위하여 위험가중자산(危險加重資産, 주로 대출금)에 대해 최저 8%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BIS 자기자본비율).

여기서 BIS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이며, 193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 추심 분배 등을 주요업무로서 스위스(Swiss)에 설립된 은행이다. 현재는 통화안

정(通貨安定)을 위한 국제협력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 BIS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일반은행들이 감자(減資) 합병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1998년 1월 각각 8.2분의 1주로 감자하고, 그 후 제일은행은 1999년 8월, 서울은행은 동년 9월에 주식매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주식(자본금)을 소각(消却)하였다.

그리고 현재 외국투자가에게 은행의 매각(賣却)을 진행 중이다. 그 중 제일은행은 1999년 9월 17일 미국의 뉴브리지캐피털(Newbridge Capital Ltd.)에 매각하기로 계약(투자약정서)을 체결했다.

한국 상업은행은 1998년 9월에 10분의 1주로 감자하고, 한일은행은 동년 10월에 10.4분의 1주로 감자했다. 그리고 두 은행은 1999년 1월 신설합병(新設合併)하여, 한빛은행이 되었다.

한편 조흥은행은 1999년 2월에 4.5분의 1주로 감자한 후, 9월에 강원은행을 흡수합병(吸收合併)하였다.

- 문제점 2

그러나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의 유동비율은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치가 92%이어서, 유동부채가 과다하여 지급능력이 악화되고 있었다(표1).

그리고 작년인 1998년에는 90%로서, 지급능력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나 삼성자동차주식회사(부채 44,000억원)도 부채에 의한 확장제일주의(擴張第一主義)로 너무 많은 은행 빚을 지고 있어, 구조조정이 문제되고 있다.

이리하여 은행에서는 몇년 전부터 재벌기업에 대해 대출거부(貸出拒否)로 나왔고, 이것이 얼마있지 않아 어음부도로 전환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借款導入)에도 거부반응이 일어났고, 이것이 상환금 반제에 대한 채무불이행사태(債務不履行事態)로 발전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주원인, 즉 들쭉의 문제점은 재벌기업의 과잉투자(過剩投資)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과다한 부실채권(제일은행의 BIS비율은 7월말 현재 15%)에 있다.

- 문제점 3

요즈음의 우리 사회는 너무 복잡하여 가장 알기 쉬운 원칙(原則)이 망각되고, 현실문제의 해결에 얽매어 변칙(變則)이 변칙(비자금)을 낳아,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 것 같다.

그 일례로서, 그렇게도 건실(健實)했던 우리나라 은행이 경영원칙(經營原則)을 어기면서 지급능력도 없는 재벌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준 이유, 즉 기업이나 은행이 그의 경영원칙을 어기고 변칙적(變則的)인 경영을 계속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제의 문제점이 되며, 정경유착(政經癒着)에 의한 부

정부패이다. 즉 정치가나 고급관리(일부)들이 은행의 인사권(人事權)을 미끼로 은행장에게 압력을 넣으면, 이 압력을 뿌리치지 못하는 부실(不實)한 은행장들이 요술주머니(뇌물)에 놀아나, 부당한 대출을 계속 실행했기 때문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不正腐敗)가 경제계를 휩쓸고, 이것이 입신출세의 길인 양 오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 치부(恥部)의 노출이며, 양심의 마비이다.

양심있는 인간은 이것을 꺼리면서도 당근(요술주머니)에 현혹되어 회계상(會計上)의 변법을 쓰게 마련이다.

원칙으로부터 이탈된 변법(變法)은 다시 변칙을 낳게 함으로써 구제불능의 사태에까지 발전한다.

사업가는 성실한 아이디어(idea)와 꾸준한 노력으로 깨끗한 돈을 차근차근 벌어야지, 고객과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하여 일확천금(一獲千金)을 노려서 되겠는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일부현상(一部現象)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가공할 부패상(腐敗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IMF와 기업이익

- IMF

이제 잠시 눈을 거시경제(巨視經濟)로 돌려 보기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1996년 일인당 GNP 11,380달러로서, 세계 11위의 중진국(中進國)으로 발전했었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1997년 1월 한보그룹 부도사건(不渡事件)이 발생하고, 그 후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사태가 계속되었다.

10월에는 정부가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의 공기업방안(公企業方案)을

발표했고, 그 후 기아 자동차는 현대그룹에서 인수하였다.

11월에는 외환위기(대미환율의 급등)에 이어, 금융위기(은행의 減資 매각)가 발생하였다.

급기야 12월에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救濟金融)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우선 550억달러의 차관(借款) 도입이 시작된다.

특히 외환위기(外換危機)는 대미 달러 환율의 급등을 말하는 것이며, 1996년 평균이 1달러에 804이던 것이 1997년에는 849원에서 1,484원까지, 그리고 1998년에는 1,706원에서 1,213원까지 변동하여, 1999년 11월 현재 1,15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1944년 국제간의 외환 단기금융 등의 문제를 조정 지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적 기관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에 이에 가입했다.

이에의 실행기관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있다.

이러한 IMF 사태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표 4>에서와 같이, 종래 총외채잔액(總外債殘額)이 420억달러 정도(1992년말)이던 것이,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특히 94년부터 한 해에 100억달러, 200억달러, 300억달러, 500억달러씩 증가하여 1997년말 현재 1,580억달러에 달해, 이제 더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기 때

문이다.

즉 부채가 과다하고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사태로, 국내은행은 물론 외국에서도 그 이상 자금을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에 융통해 주지 않게 되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우리나라는 매월 외채에 대한 이자(利子)만 20억달러, 즉 매년 200억달러의 이자를 외국에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외압(外壓)을 받게 된다.

이러한 IMF위기의 간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문제점 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뇌물로 연결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官治金融)이 가져다 준 결과이다.

정부는 대우문제(大宇問題)의 일차적 조치로서 주력계열사(主力系列社) 12사에 대하여 1999년 8월 26일부터 워크아웃(workout), 즉 채권단에 의한 은행관리(銀行管理)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법정관리(① 회사정리법 ② 파산법 ③ 상법상의 청산절차 등)에 앞서는 기업개선작업(企業改善作業)으로서, 채무연장 금융지원 등 구제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표 4>

외채통계 (단위:억달러)

경상수지	적자	기타	연간외채	총외채잔액
1990년말	20			317
91	83	△9	74	391
92	39	△2	37	428
93	△10	21	11	439
94	39	91	130	569
95	85	130	215	784
67	230	33	263	1,047
97	82	452	534	1,581
98	△400	313	△ 87	1,494
99 6월말	△136	56	△ 80	1,414

(주) 경상수지=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거래
기타는 순외채(純外債)의 증가와 대외자산의 증감(增減), 즉 자본거래와 오차임.
(자료) 이기을, 경영통계와 사례연구, 1986, p.321

〈표 5〉

수익상의 국제적 비교

(단위:%)

구 분	한국 기업		미 국	일 본
	1997년	1998년	1997년	1997년
매출액영업이익율	8.3	6.1	7.6	3.5
매출액경상이익율	△0.3	△1.8	8.5	3.3
금융비용 대매출액비율	6.4	9.0	-	0.9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9년 6월호, p.48

- 기업의 이익의 감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가 과다해지면, 즉 재무구조(財務構造)가 악화되면 기업의 금융비용(金融費用)이 과다해짐으로써 기업의 목적인 이익(평균이익율)의 획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1997년의 매출액에 대한 금융비용비율은 6%이었고 1998년에는 9%이었다(표5).

바꾸어 말하면 매출액 100원 중에 차입금(借入金)의 아자 등이 6원, 9원이 들어있다는 계산이다.

그 결과 기업의 수익성(收益性), 즉 매출액경상이익율은 1997년에 △0.3%이고, 1998년에는 △1.8%로서, 우리나라 기업은 본래(本來)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이익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율 8.5%이고, 일본기업은 3.3%임을 볼때, 적어도 10%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무엇 때문에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무슨 꿍꿍이속이거나 변칙(變則)이다.

즉 기업이 정상적으로 돈을 못 버니까, 기업주가 슬쩍 자기의 실속이나 차려야 하겠다는 변법이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사업계(일부)는 변칙이 또 변법(비자금)을 낳아, 원칙이나 법보다 정상배(政商輩)에 의하여 변칙에 쫓들인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원칙이 안 통하는 사회의 일각(一角)은, 부정부패가 만연되는 사회(일부)로 변질되는 것이다.

4. 자기자본의 증대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은행을 시장원리(市場原理)에

따라 공정경쟁 할 수 있는 건전경영(健全經營)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한국의 정치·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개조(改造)되어야 한다.

즉 ①부실기업은→ 건전기업(健全企業)으로, ②변칙에 쫓들인 사회는→ 원칙(原則)이 통하는 사회로, ③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는→ 정직과 사회정의가 통하는 투명 사회(透明社會)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왜곡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재무구조를 시정하고 금융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작년(1998년) 초부터 투입한 공적 자금(예금보험공사·성업공사)은 64조원(1999년 8월 현재)에 달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세금의 낭비, 국가부채의 팽창, 한국은행의 통화발행(通貨發行), 인플레이션, 국민의 부담을 뜻한다.

- 해결방책

이래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 적정이익(適正利益)을 올릴 수 없거나 결손(缺損)이 나는 기업은, 재벌기업이건 금융기관이건 과감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어려운 문제일 수록 원칙(原則)에 충실해야 한다.

부실한 기업은 퇴출(退出)시키고, 최고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과 동시에,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不正腐敗)는 우리 사회의 치부(恥部)이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즉 기업주나 최고경영자는 사업가이어야지, 정치가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써 기업의 경영원칙과 투명성(透明性)이 확보될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의 산업계에서는 업자간의 경쟁이 격심하여, 개개 기업체는 이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력(競爭力)을 자체내에서 배양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는, 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생산원가(生産原價)를 절감하고 판로(販路)를 개척하는 일이며, 합리화를 위한 국제경쟁력의 배양을 소홀히 하는 경우, 곧 그 기업은 업계로부터 패퇴(敗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 경영자에게는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가 절실한 문제로서 오늘날 제기되고 있다.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면, 경영자가 자기회사의 실태를 상세히 조사 분석하여, 그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을 발견하고, 합리화를 위한 개선책(改善策)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세계기준(global standard)에 의거하여 부채(負債)를 감소시킴과 동시

에,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자본(株式資本)의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負債比率) 300% 이상을 미국이나 일본의 150% 이하(표1)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자기자본(自己資本)을 증대시켜야 한다.

더우기 자기자본은 자본금(資本金)과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잉여금(剩餘金)은 매년 획득되는 이익금 중에서 법인세나 배당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적립하게 되므로, 급격히 증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 주식(株式)의 발행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회계(企業會計)의 투명성이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기업인의 상도덕(商道德)과 경영자의 양심을 일반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이 증대되면, 부채가 감소되어 매출액 중에서 금융비용(金融費用)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9%→1%)으로 낮아져, 기업의 이익금(利益金)이 정상화됨으로써 모든 기업의 경영활동이 활기(活氣)를 되찾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해결방책은 기업의 재무구조(財務構造)를 개선(문제점 1)함과 동시에, 은행의 부실채권(문제점 2)도 치워 없애게 한다.

이와같이 종래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을 변칙(變則)의 함정에 몰아 넣었던 주원인(主原因)이 제거되고 경제사회가 정화되면,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문제점 3)도 자취를 감출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으로 기대된다. **文**

백두산 관광 속초에서 출발



장세호/속초시 관광과장

새 천년 들어 속초지역은 북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제관광도시로 그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년부터 속초항~러시아 포시에트(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백두산 항로가 개설돼 금강산에 이은 백두산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명년 3월 27일 1만 2천톤급 동춘 1호는 컨테이너 175개 여객 500여명을 싣고 속초-포세이트(자루비노) 295마일 첫 뱃고동을 올린다.

한국, 중국 훈춘 합작회사인 『(주)동춘항운』을 설립 완료하고 속초항 북항 항만부지내에 1천6백여평 규모의 터미널 건립을 시작, 빠르면 2000년 3월 27일 취항 예정하고 있는 (주)동춘항운은 속초 국제 여객터미널 착공을 추진하는 등 카페리취항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한-중-러 3개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될 속초~훈춘해륙 항로는 "신(新) 실크로드"라 불려질 만큼 경제적으로는 물론, 환동해권의 문화교류와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대상선의 금강산 관련 선박도 속초항

에서 취항할 것으로 이는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이 이번 백두산 항로 개설에 따른 터미널 신축부지를 내 주면서 “금강산 쾌속선 취항때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임에 따라 더욱 확실해 졌다.

속초에서 출발될 예정인 백두산관광의 항로는 동해권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연해주 및 우리나라간의 인적·물적 교류 『소무역상』거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까지 더 한다면 속초는 명실상부한 북방교역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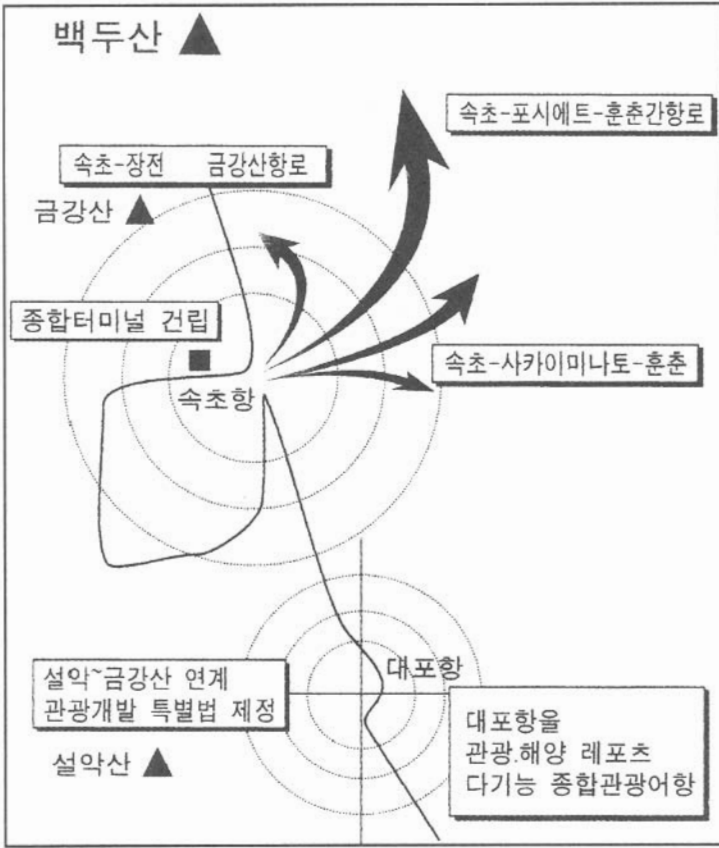
또한 속초시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전항의 해상호텔과 연계하여 1박 2일~8박 9일까지의 여행상품을 운영할 금강산 쾌속선을 취항하여 관광휴양시설의 차별화 및 특성화로 새로운 관광의 물꼬가 트일 예정이다.

정부에서 명년 5월까지 설악~금강산 연계 관광개발 방안에 대하여 연구 용역중이며 설악권 종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악권 관광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렇듯 속초는 2~3만톤급 관광 유람선 입·출항이 가능토록 관광선 부두 건설을 토대로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명년 하반기부터 부두건설을 착공하며, 민자유치의 속초항 종합여객터미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항을 관광·해양 레포츠, 유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고 속초항을 일본 사카이미나토항~속초항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항로개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속초시는 한국관광의 1번지로 거듭 발전하고 북방교류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이다.

-교역중심지로 부상하는 속초-

백두산 관광객, 한~중~러 3개국을 잇는 소무역상(보따리 무역상)이 주고객이 될 속초~포세이트(자루비노)~훈춘간 해륙항로가 명년 3월 27일 첫 출항을 예약해 놓고 있다.

500여명의 여객과 컨테이너 175개를 선적할 수 있는 동춘1호는 오후 3시 속초항을 출항 다음날 9시(러시아 현지시각) 포시에트(자루비노)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포세이트(자루비노)에서부터 훈춘까지는 관광버스와 트럭으로 이동하게 된다.

운임은 2등실기준 여객 1인당 120달러(특실-180달러, 1등실-150달러)이며 컨테이너는 개당 700달러로 책정돼 있다.

속초~훈춘간 해륙항로의 개설은 백두산 관광의 최단 교통로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존 인천~중국단둥~백두산해운코스에 비해 거리와 시간, 비용에서 약 50%가 절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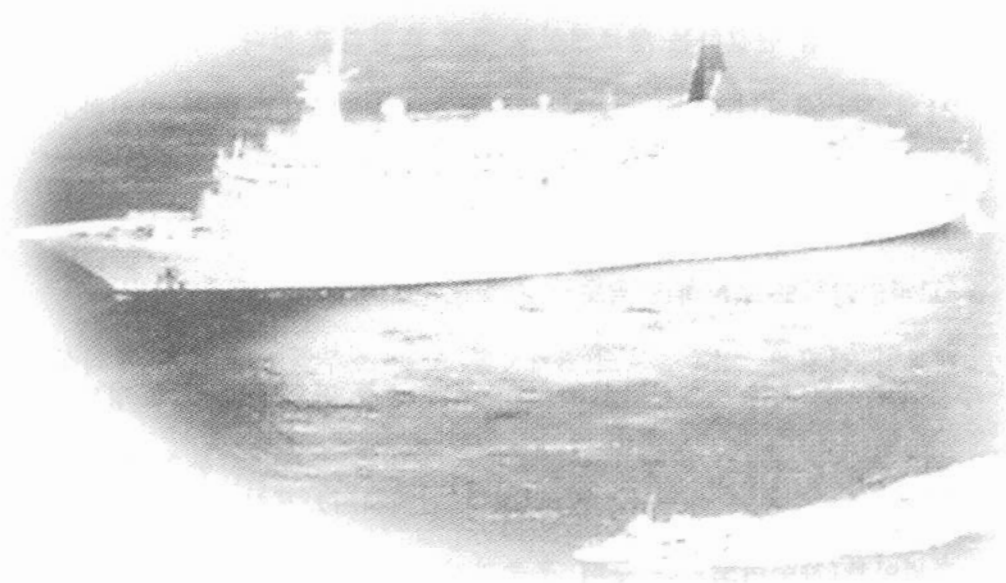
또한 항공편과 비교할 때 30%의 비용으로 백두산 나들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속초~훈춘항로가 지닌 잠재력은 백두산 관광객 수송보다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란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수역의 인구가 상주하며, 무한한 구매력을 지닌 러시아 연해주 및 중국 동·북 3성과 속초간에 직교역로가 열리는 것이다.

(주)동춘항운측은 항로개설 첫째 주3회의 카페리운행으로 약8만명의 여객이 속초~훈춘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훈춘 등 중국 동·북 3성지역이 중국대륙을 횡단, 대련항을 이용하는 악조건속에서도 지난 97년 기준으로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각각 2억달러를 넘는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을 기록, 새로운 무역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文



대학문화와 속초시



사득환 /

동우대 교수, 기획홍보담당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중심의 사회구조로의 전환은 그 지역사회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 및 생활세계를 창출하고

공유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지역대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I. 머리말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역중심의 새로운 사회구조로의 재편이 예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모든 사고, 행동, 문화, 교육, 삶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중심의 사회구조로의 전환은 그 지역사회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 및 생활세계를 창출하고 공유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위치한 지역대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II.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

속초시에 유일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동우대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얼마남지 않은 21세기에는 지역대학(local college)으로서 본 대학의 역할을 더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1) 지역인재의 양성

오늘날 대학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흔히 제시되는 것이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라는 점이다.

사실 대학은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년 동안 나름대로 이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으로 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고, 모든 속초시민 및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전면 개방할 계획으로 있다.

2) 지역사회와 20년!

동우대학은 개교한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속초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1980년에 개교한 우리 대학은 당시 7개 학과로 시작하여 이제 15개 학과 5천여명의 학생들이 학문을 익히고 씩씩하며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는 캠퍼스로 발전하였다.

사실 지난 20년 동안은 우리 대학이 기반을 쌓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역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학교건물의 확장, 전산시설과 어학 시설의 완비, 유아교육관 신축 등 교육시설과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급급해 왔다.

작년에는 “동우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고, 올해에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영광의 뒤에는 속초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른 한편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역할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무의탁노인들의 간호활동 지원, 노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치위생과의 순방,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각종 축제, 지역단체에 대한 운동장 개방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다.

최근에는 강원관광엑스포 행사에 대규모 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엑스포의 성공을 이끄는 데 기여토록 하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에 소홀히 해 온 감이 없지는 않다.

21세기에는 우리 대학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3) 속초문화 창조와 대학역할 강화

지역사회에, 특히 지역문화 창조에 본 동우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대학이 지역사회에 들어섬으로서 창출되는 수많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가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역사회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인들은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문화와 교류한다. 호프집에서, 옷가게에서, 택시안에서, 도서관에서, 각종 모임에서, 이웃에서... 이런 와중에 지역문화 창조와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우리 대학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받을 것이다.

무릇 고유한 지역문화를 창출하지 못한

지역사회는 그 정체성(identity)을 잃게 되고 21세기 새로운 경쟁사회에 낙오하게 될 지 모른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에 펼쳐질 속초시 신문화 창출과 발전에 우리 대학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

III. 결론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경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 역시 신입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

사실 우리 대학의 모든 교수들과 재학생 및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하고 대학을 알리는 등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3년후에는 대학지원사가 내학정원에 비해 8-9만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강원도내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상황이 조금 낫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 대학이기는 하지만 대학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게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대학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대학이 힘을 합쳐 신입생 유치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학교와 대학의 육성, 지방정치 선진화 등은 모두 시민, 단체, 대학, 공공기관이 다같이 함께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고유한 속초문화(특히, 관광문화)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며 외부에 알리는 작업 또한 속초시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지역문화 창출과 발전에 적극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文

금강산과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관광개발



김희철 /

-속초(고성, 양양, 인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강원)지구 홍보분과 위원장

序文要旨

1. 관광산업은 21세기의 미래산업으로 강원도의 전략산업(戰略産業)입니다.

「금강권」과「설악권」의 연계개발이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하면 설악권의 관광산업은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2. 「설악권」지역은 「'99강원국제관광EXPO」가 이미 개최되었고, 2001년 「양양국제공항개항」, 「양양 여운포리 신항만 건설」, 「속초항 국제관광항으로 개발」, 「금강권·설악권 연계개발」, 「속초-포시에트-훈춘-백두산간 최단거리(78Km) 항로개설」등 관광환경이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3. 남북교류에 따른 금강산 개발사업과 동북아시아 지역교류로 이어질 「환동해권」의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동북아 관광사업은 이미 환동해권 협력사업 추진으로 그 가능성이 열려있고 금강산 개발은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방북이후 물꼬가 열리고 있습니다.

4. 「설악권」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어 금강산과의 연계한 개발이 성사만 된다면 우리 강원도의 관광사나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수준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또한 유람선 항로가 개설되는 지역은 관광산업 환경이 크게 변할 것이며, 금강산 관광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설자재가 「속초항」등을 통하여 수송될 수 있으며 내륙으로는 「철원」을 관통(貫通)하는 금강산선 복원을 통하여 물자수송(物資輸送)과 관광객 유치에 가능해 질 것입니다.

6. 이렇게 되면 관광산업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시박람회(展示博覽會), 학술세미나, 문화예술행사, 스포츠행사, 외국기업의 인센티브 관광행사 등의 유치에 필요한 「컨벤션산업」이 설악권에 태동 될 것입니다.

展望과 課題

7. 문화관광 진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설악권」-「금강권」연계 개발 계획이 지난 '99년 9월에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어 설악권의 관광개발은 보다 빠른 상승효과(相乘效果)가 기대됩니다.

8. 강원도는 지방자치 차원의 관광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권」및 「금강산권」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 구상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2000년초에 실행 가능한 관광개발 계획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9. 정주영 명예회장의 활동과 복측의 자세로 보아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강원도·관광공사 그리고 속초·고성·철원 등 강원도 관련 지

자체에서도 「설악권」과 「금강권」연계 개발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0. 앞으로는 「금강권」으로의 접근성(接近性)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방안과 숙박시설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구체성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 중앙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통일부 등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광공사에서는 「설악권」-「금강권」공동개발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2. 설악권이 금강권과의 연계개발이 현실화되면 강원도와 설악권은 SOC 확충뿐만 아니라 환동해 경제권시대의 주도권 확보는 물론 관련사업의 진흥으로 인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경제외적인 파급효과도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13. 속초-포시에트-훈춘간 해운항로 개설이 가시화되면 동해안 지역의 해운항만(海運港灣) 산업의 발전이 속도 있게 진행되고 「영동광역권개발」이 가속화되어 침체일로에 있던 강원도 전역의 관광권에 각종 투자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 「양양국제공항」이 오는 2001년에 마무리되고 앞으로 현대측의 장기적인 계획대로 속초항이나 양양 여운포리항에서 1천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금강산으로 오고갈 2만~3만 톤급의 유람선 3~4척이 지속적으로 운항되면 설악권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만도 엄청날 것입니다.

15. 설악권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되면 설악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어 관광거점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속초는 물론, 양양·고성 주변 관광지까지 개발되면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16.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물적교류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관광객을 통한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평화시 건설 문제와 맞물려 한층 더 활발한 남북교류의 기능이 가속화되어 「설악권」지역이 통일시대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 또한 남북통일시대를 전망하면서 동해안의 항만이 환동해권 무역의 중심지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동해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8. 지난 '94년도 강원도에서는 국토개발 연구원에 의뢰한 「환동해 경제 대응 전략구상」에서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은 남한에 대한 관광수요 대처라는 새로운 관광 휴양지 확보를, 북한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남북한 양쪽에 대해서는 긴장완화와 이질감 해소, 공동협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19. 「컨벤션산업」은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자가 보통 1백명에서 1천명이상에 달하므로 대량관광객 유치의 첩경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회의 참가자는 1인당 소비액 또한 높아 관광수입 측면에서도 매우 짝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 한국 관광 공사가 지난 '98년 국내에서 열린 국제컨벤션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소비액은 미화 3,500\$로 일반외래 관광객 평균소비액 1천1백 달러보다 3.1배나 많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각국에서 많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對應方案

21. 동해안의 관광구도(觀光構圖)는 금강산권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크게 약화될 것이 예측되고 있어 이러한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설악권」관광개발에 대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2. 앞으로의 관광개발 방향은 남북한의 관광환경과 남북강원도의 관광조건 및 동북아시아 입지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여 강원도 관광권역의 지역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권역별로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추진은 빠르게 구상하고 실행은 주도면밀해야 하겠습니다.

23. 이제부터는 강원도와 설악권의 관광과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관광을 단지 과시적(誇示的) 소비행위가 아닌 삶의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서 선진관광국을 보고 배우려는 학습적 자세

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4. 또한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자연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선진 관광국의 선진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Event 개최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25. 앞으로는 금강산으로 연결하는 육·해·공 접근망 확충이 일정한 형태로 구체성을 갖춘 실행이 이루어져서 금강권으로의 접근할 수 있는 SOC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26. 이번에 이루어지는 남북관광교류 및 설악권-금강권 연계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는 강원도와 설악권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남북교류 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연계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본 틀을 잘 짜야만 합니다.

27. 우리들의 남북 대치상황(對峙狀況)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어 DMZ 등 남북의 경계선을 특수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그야말로 금강권-설악권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 될 것입니다.

28. 앞으로 설악권은 국민 레크레이

션 수요에 대처하는 대중관광지로 금강권은 외화획득을 목표로 하는 고급 관광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29. 금강권-설악권 연계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현대측 혼자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외국기업과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관광업체·관광행정·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행태가 이루어져야만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0. 설악권은 다가오는 21세기 환동해권 시대를 맞아 통일전진 기지로써 관광·무역·수송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산악·해안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31. 이제부터는 국제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전시박람회, 문화예술행사, 스포츠행사, 외국기업의 인센티브 관광행사 등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2. 마지막으로 설악권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나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천연자원 및 인적·물적 투자에 더하여 친절-청결-질서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될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우리모두의 사고의 발상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건강과 흡연

한번 중독되고 나면 평생 헤어날 수가 없다.

주 왕 기

강원대학교수/한국약물남용연구소장
청소년보호위원

한 국인의 대표적인 일상성의 하나는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이다.

즉, 술과 담배가 한국인의 일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연간 1천억달러(120조원)로 계산하고 있으며, 담배로 인한 피해는 750억달러(90조원), 그리고 마약류로 인한 피해는 500억달러(60조원)로 보고 있다.

1920년 미국은 술로 인한 사회·경제·의학적 피해가 심하여 금주령을 내렸다.

그러나 13년후인 1933년 금주령을 해제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온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수많은 종교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

령에 당선되면 불스테드법(금주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술로건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루즈벨트는 당선됐고 취임 1주일 지나자마자 단호하게 금주법을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죽었거나 살았거나 가슴에 손을 대고 선거공약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쯤이라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그러면 왜 금주법을 해제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두가지 예를 들면 술을 밀매하는 범죄조직(알카포네)이 사회를 장악하여 법질서가 파괴되고 나쁜 밀주로 인해 발병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다.

1964년 미국정부는 유명한 책 하나를 발간해냈다.

이름하여 건강과 흡연(health and smoking)이라는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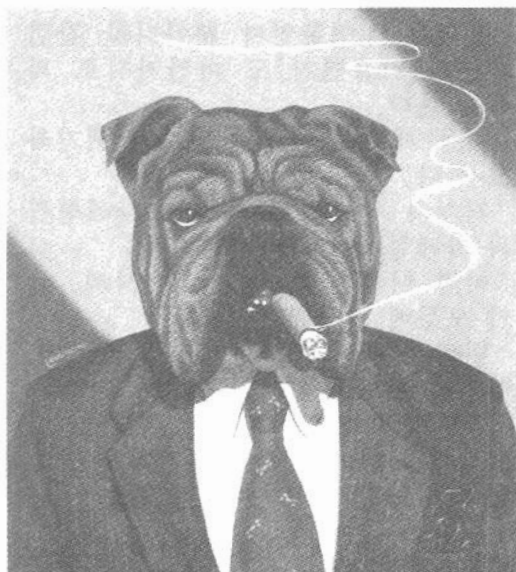
보고서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는 흡연자중에 폐암환자가 많음을 발견하고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중의 하나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 작용 메커니즘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미국은 법으로 담뱃갑에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써 넣도록 했다.

35년간의 담배와의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흡연인구가 89%에서 현재 20%수



준으로 떨어졌으며 유타주같은 곳은 13.7% 수준에 와있다.

그래서 클린턴대통령은 담배를 마약이라고 했다.

클린턴이 마약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담배가 마약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알게됐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흡연자가 10%미만으로 떨어지면 마약법(통제약물법)으로 담배를 묶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담배는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고 금단증상이 있다.

어느 약물이든 이들 3가지 작용이 있으면 그것은 마약이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도 그렇다.

폐암환자의 95%는 흡연자이다.

흡연자의 14%가 폐암에 걸린다.

그리고 각종 암의 35%가 흡연과 관련을 맺고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1964년이후 35년간 수많은 세계의 학자들이 흡연과 암의 관련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그리하여 많은 내용이 밝혀졌다.

그중에 하나는 유전자 P53과의 관련성이다.

유전자 P53은 체내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담배연기중에는 수십가지의 암유발물질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벤조피렌이다.

벤조피렌의 발암성은 일본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밝혀낸 역사적 기록이다.

흡연에 의해 벤조피렌이 체내, 즉 세포에 유입되면 유전자 P53의 기능이 상실된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환하는 것

을 막지 못하게 된다.

고로 각종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전자 P53은 현재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담배는 '마약성'에서도 아편다음에 랭크(순위)되어있다.

필로폰보다도, 대마초보다도, 환각제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

한번 중독되고나면 평생 헤어날 수가 없다.

극한 상황이 아닌 경우 금연하는 경우는 5%미만이라고 한다.

학문적으로는 3~5년 금연하였을 경우를 금연자라고 한다.

금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한다.

전 세계에서 흡연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다.

뿐만아니라 청소년 흡연인구도 세계1위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학교건물내에서는 흡연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그간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학교를 실내이건 실외이건 금연지역으로 정할 것을 추진하여왔다.

지금의 조치는 1단계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흡연은 직접흡연자 뿐만아니라 간접흡연자(비흡연자)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다.

다음 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세기라고 한다.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면 자해행위와 자해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모두에 해당된다.

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절도 강도 살인범은 사라지지 않는다.

금연법이 없더라도 스스로 금연함으로써 자타에 피해를 주지않는 문화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文**

기획특집

C U L T U R E

- 문화의 샘**
70 설악산 국립공원 시리즈(15)
76 속초 영랑호반에 세워진 안축선생의 시비
- 그리운 고향**
79 속초는 무궁한 비전
이반/송실대 문예창작과 교수
- 역사의 향기**
83 신라 범일선사의 낙산사 중창과 그 의미
최현식/강원도 문화재위원
- 88 속초 노학동 3층석탑
- 전통민속놀이**
90 든대질 놀이 주동진/영북민속문화연구회 기획단장
93 양양조산초등학교 노광목/속초문화원 부원장
95 북청사자놀음의 재현 이병연/동우대 교수
98 돈돌놀이
- 100 영랑호 보광사에서 맞이하는 정월대보름 장승제 석문스님
- 우리문화**
103 인터넷과 문화예술, 지역정보화 임경전/설악지역정보센터
108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
111 지역을 알리는 우리신문-설악신문 장재환/설악신문 편집국장
115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가칭) 발간계획 오윤근/속초문화원 이사
117 20세기 강원인의 역사-타임캡슐 매설

雪嶽山 國立公園 시리즈 (15)



최구현/원로사진작가

우리겨레의 영산(靈山)이며 진산(鎭山)이고 신산(神山)인 설악산은 정부가 금강산(金剛山) 연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 1번지로 자리하는 각광을 받게 됐다.

백두대간의 허리에 자리한 설악산은 남무국토대자연(南無國土大自然-鷲山李殷相), 『금강산 구경갈세 설악이 있음에, 설악을 구경하지 못함은 금강을 보지 못함이오, 설악을 오르지 못함은 어찌 금강을 올랐다 할소냐』- 옛 선인(仙人)들의 읊음에서 기암괴석과 폭포수는 그 비경이 하늘에 닿음이라 하겠다.

오늘 설악에 올라 비천(飛泉), 현천(懸泉)을 찾아 대자연에 몰입해 보고자 한다.

국립공원 설악산은 주봉(主峰)인 대청봉(大靑峰)을 주축으로 북쪽 인제(麟蹄)방면을 내설악(內雪嶽)이라 하고, 남쪽 양양(襄陽)방면을 남설악(南雪嶽)이라 하며 동쪽인 속초(束草)방면을 외설악(外雪嶽)이라고 칭한다.

이 외·내·남설악에는 폭포로서 알려진 명소로는 외설악의 비룡폭포(飛龍瀑布), 내설악의 대승폭포(大勝瀑)

布), 남설악의 독주폭포(獨州瀑布) 등 10여개소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외에 크고 작은 알려지지 않은 폭포수까지 모두 20여개소가 있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노산 이은상(鷺山 李殷相)은 『쌍용의 저 두어른 어느적에 만나신지 아들 손자들 무릎 아래 거느리고 상기도 사랑이 넘쳐 어깨걸고 웃으시네 가없는 인생이야 청춘이 삼시였만 저 두 분 천만년에 늙을 줄 모르고서』 폭포단지의 쌍용폭을 노래 하였다.

■ 외설악(外雪嶽)

★육담(六潭)폭포 - 담소가 6개로 이루어져 있어 육담폭포라 하는데 1965년 국립공원 이전부터 육담조교가 가설되어 그풍치가 장관이었으나 1981년 11월 1일부터 폐쇄되었다.

★비룡(飛龍)폭포 - 높이 약 150척이나 되며, 줄기차게 떨어지는 맑은 물은 금강산의 구룡폭포와 흡사하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 첫눈에 띄일 때에는 마치 용이 굽이쳐 석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다하여 비룡폭포라 한다.

★토왕성(土旺城)폭포 - 신흥사(新興寺)를 향해 장항치(獐項峙; 노루목고개)를 넘어가면 남쪽하늘 높이솟아 있는 천여척에 넘는 석장절벽에 한쪽의 흰 비단처럼 보이는 폭포다. 토왕성폭포는 지난 날 이태백(李太白)이 개성 박연폭포와 금강산의 구룡폭포



를 거쳐 토왕성폭포로 왔는데, 이 거대한 폭포를 보면서 중국의 연산폭포를 연상케한다고 하여 시를 하나 지었는데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이다.

이는 “떨어지는 물은 삼천자. 또한 떨어지는 물은 은하수에 비치어 구천에 떨어지고, 폭포의 장관을 멀리서 바라볼때는 하늘에서 흰 비단을 걸쳐 놓은 것 같고, 가까이서 볼때는 꽃구슬을 석벽에 박아 놓은 듯한, 사철 변함없이 쏟아져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네” 라고 하였다.

그 밑에 큰 용소가 있는데 가뭄이 심할때면 근처에 사는 농민들이 기우제를 지냈다.

수량(水量)은 그리 많지 않으나 떨어지는 물이 옥(玉)처럼, 흰 눈처럼 보이고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 해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시원하다.

★오련(五連)폭포 - 귀면암에서 천불동(千佛洞)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병풍처럼 바위가 늘어서 있는데 이 병풍교를 지나면 협곡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가 다섯 개 연이어져 있다. 폭포주위에 둘러있고 맑고 깨끗한 물은 티하나 없이 골짜기를 매워 선경을 이룬다.

★양폭(陽瀑)과 음폭(陰瀑) - 천불동계곡의 오련폭포를 지나 골짜기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에 있다.

물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좌편으로 흐르는 물이 양폭이고 우편으로 흐르는 물이 음폭이다.

양음이 합쳐서 천불동계곡을 이루었으며, 이곳에는 양폭산장이 있어 정감을 이루며 등산객의 편의 제공 및 조난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천당(天堂)폭포 - 양폭에서 올라 천불동계곡의 맨 윗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몇십년전만해도 이곳에 올라가 조망하지 못한 험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등산로 개설과 함께 조교와 사다리가 놓여 있어 모든 속세에서 고난을 겪고 살아오다 이곳에 오르면 마치 천당에 이른 통쾌감을 느낀다하여 천당폭포라 한다.

■내설악(內雪嶽)

★쌍룡(雙龍)폭포 - 일명 쌍폭이라 부르는데 청봉골과 봉정골이 만나는 지점으로 디딜방아 같이 Y자형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쌍폭이다.

이 쌍폭은 그아래로 용손(龍孫)폭과 용아(龍兒)폭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 아래 상용담(雙龍潭)을 이루고 있다.

쌍룡폭은 오른쪽의 청봉골측을 남폭, 왼편의 봉정골측의 여폭(암폭)이라 부르는데 남폭은 낙차46m, 여폭

은22m이고 솟폭은 장부같이 장엄한데 비해 암폭은 요조숙녀가 치마자락을 펼쳐들고 깊숙한 안방에 점잖게 앉은 모습과도 비교하며, 여폭 쪽의 치마바위라 불리우는 움푹 파들어간 천길 돌벼랑으로 폭포가 떨어지고 있다.

★대승(大勝)폭포 - 개성(開城)의 박연(朴淵)폭포, 금강산의 구룡(九龍)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꼽히는 낙차 88m의 이름 있는 폭포이다.

숲이 우거진 높은 단위에서 오색 무지개를 만들고 물보라를 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사철을 두고 특이한 운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중(四仲)폭포 - 대승폭포로 들어가는 도중에 있는 폭포로서 연속적인 사중으로 형성된 폭포이다. 여름이면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그리 큰 폭포는 아니다.

■남설악(南雪嶽)

★독주(獨州)폭포 - 대청봉으로 오르는 독주골 중간쯤에 있는 폭포로 예전에 이곳에 덕주사가 있었다고 하며 그래서 이 지방 촌로들은 아직도 덕주폭포라 부르고 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독주폭포는 덕주폭포의 와전,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대청봉 연봉에서 발원한 물이 오색을 향해 독주골로 흘러 내려오다가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서 이뤄놓은 장엄한 폭포이다.

독주폭포는 그 첫째폭을 백문(百門), 둘째 폭을 천문(千門), 맨 끝의 폭을 만문대장이라고 한다.

대승폭포, 토왕성폭포와 더불어 설악



의 3대 폭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용소(龍沼)폭포 - 선녀탕 주계곡 큰고래골에서 올라가면 계곡이 양쪽으로 갈라진 지점에 이르러 있는데 왼쪽은 주전골로 들어가는 계곡이고 오른쪽이 용소골이다.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용이 승천하는 듯한 비폭의 장관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용소폭포이며 그 아래 맑은 물이 담겨있는 깊은 소가 용소이다.

★등선(登仙)폭포 - 주전폭포에서 800m 지점에 있으며, 이 폭포는 폭포 위에 얹혀있는 바위 밑으로 물이 흘러 내리고 있어 마치 입에서 물을 토해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홀림골 입구에서 700m쯤 들어가면 오른쪽 계곡 속에 여성의 은밀한 곳을 닮은 절묘한 폭포가 숨어 있다. 이름하여 여신폭포(女身瀑布), 여신폭포(女神瀑布), 여심폭포(女深瀑布), 선녀폭포(仙女瀑布)라고 한다.

옛날 선녀탕에서 목욕을 하다 천의를 잃은 선녀가 등천을 못한 채 주전골 만 불등을 넘어 이곳에서 나신(裸身)의 폭포가 되었다



는 전설이 있다.

★십이(十二)폭포 - 용소폭포와 갈라지는 길목에서 왼쪽의 주전골을 따라 들어가면 12단 12폭의 비단폭같이 아름다운 연폭이 나온다.

마치 하늘나라의 은하수 같다하여 일명 은하수폭포라고 하며 이 12폭포의 상류계곡을 12담계곡 또는 은하수계곡이라고 부른다.

오른쪽 바위 절벽에 걸려있는 철제 다리와 계단은 오작교라 이름한다.

★옥녀(玉女)폭포 - 폭포 위에 큰 바위가 끼어 있어 두줄기로 물이 내려오다가 한줄기로 합쳐져 떨어지는 여성적인 폭포이다.

선녀탕에서 목욕하던 선녀가 선관(仙官)이 천의를 감춰버리는 바람에 다시 등천하지 못하고 이 옥녀폭포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옥녀폭포를 거쳐 북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을 가는 고래골이라하며 특히

옥녀폭 하류를 청운동(靑雲洞)이라고 부른다.

★치마폭포 - 독주골의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마치 널찍한 치마폭을 펼쳐 놓은 듯한 우아한 폭포를 이루고 있다.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양이 마치 통 속에 발을 담그는 모양과 흡사하다 하여 일명 발(足)폭포라고 한다는 설도 있으며, 또한 물의 발을 늘어뜨려 놓은 것 같아서 발폭포라고 한다는 설도 있다.

치마폭 위에 또 하나의 작은 폭포가 있는데 이를 속치마폭포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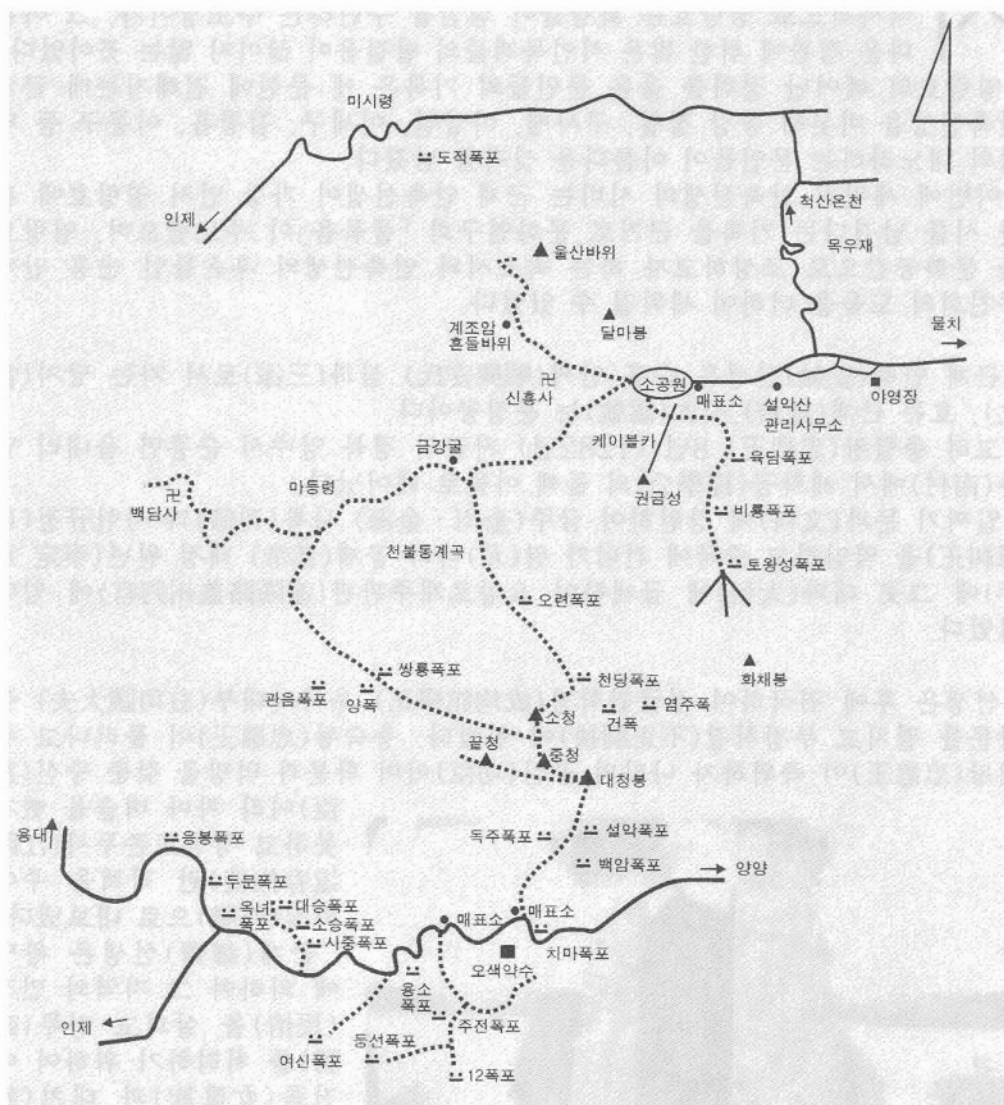
★주전(鑄錢)폭포 - 만상대에서 500m지점에 있는 폭포로서 2단의 깨끗한 와폭으로 주전골, 만불동 중간에 있다.

위의 설악의 폭포수를 대하면서 자

문화의 샘

고로 물이 흐르는 근원(根源)에서부터 아무런 장식도, 수식도 없이 여울물이 모여 신비한 음곡(音曲)을 자아내면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 풍경은 인간이 자연을 신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종교이시여! 미쁘다 남무대자연! 이는 나의 임이니이다.』 文



束草 永郎湖畔에 세워진 謹齋先生의 詩碑

지난 7월 10일 속초시 영랑호반에 근재 안축선생의 시비가 세워졌다. 역사적으로 영랑호는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하는 수도장이자, 그 아름다운 경관에 취한 많은 시인묵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영랑호의 빼어난 정취를 읊은 문인들의 기록은 옛 문헌에 전해지는데 근재 안축선생을 비롯해 송강 정철, 구사맹, 이상질, 이세구, 김창흡, 이몽구 등 당대의 내노라하는 문인들이 아름다운 시귀를 남겼다.

이번에 세워진 안축선생의 시비는 근재 안축선생이 가장 먼저 영랑호에 관한 시를 남겼다는 기록을 근거로 문화연구회 「풀뭍음」이 주도했으며, 영랑호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속초시와 안축선생의 후손들인 순흥 안씨 종친회의 도움을 더하여 세워질 수 있었다.

근재 안축(安軸)선생은 순흥 안씨(順興安氏) 삼파(三派)로서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시호(諡號)는 문정공이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8년(1282년) 지금의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남촌(南村)에서 제학공(提學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찌기 문과(文科)에 장원하여 금주(金州·金海) 사록(司錄)과 사헌규정(司憲糾正)을 역임하고 중국에 건너가 원(元)나라 공제(恭帝) 태정 원년(泰定元年)에 그곳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요양로개주판관(遼陽路蓋州判官)에 임명되었다.

선생은 후에 귀국하여 성균관학정(成均館學正)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등 학문을 펼치고 부정척결(不正剔抉)에 힘썼다. 충숙왕(忠肅王)이 물러나고 충혜왕(忠惠王)이 즉위하자 나라의 공신(功臣)이며 학문과 덕망을 갖춘 중신(重臣)이라 차마 벼슬을 뺏지 못하고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란 직책을 주어 외직(外職)으로 내보냈다.

근재(謹齋)선생은 왕명에 의하여 그 지역의 민정(民情)을 살피고 정무(政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진족(女眞族)과 대치(對峙)하고 있는 요새(要塞)를 시찰코자 화주(和州·



永興地方)를 행하여 충숙왕(忠肅王) 17년(1330)5월30일(忠惠王이 2월에 登極) 개경(開京)을 떠났다.

이 관동별곡(關東別曲)은 강원도를 순시하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읊은 가사문학(歌辭文學)으로서 모두 구장(九章)으로 되어 있으며 정철(鄭澈·1536~1593)의 관동별곡(關東別曲)보다 250년이 앞서 있다.

서민들의 속요(俗謠)에 대치되는 귀족계급에 유행하던 가사체(歌辭體)이며, 한문(漢文)과 이두문(吏讀文)을 혼용하여 지었고, 끝 구절에는 경기하여(景畿何如)로 되어있어 경기체가(景畿體歌)라 하며, 일명 하여가(何如歌)라 하기도 한다.

소백산(小白山) 계곡인 순흥지방(順興地方)을 읊은 죽계별곡(竹溪別曲) 오장(五章)과 더불어 가사문학(歌辭文學)의 효시(嚆矢)로 손꼽히고 있다. (榮州市 順興面事務所안에 있는 옛 順興都護府官衙鳳棲樓 2층에도 죽계별곡 오장이 새겨져 있음)

판전교지전법사(判典校知典法事·1332)를 자원(自願)하여 어머님을 봉양하였던 극진한 효자(孝子)이기도 하다.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1344), 첨의찬성사(僉義贊成事),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1345), 판정치도감사(判整治都監事)가 되어 양전(量田)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네번이나 사사(士師·整治官·裁判長)가 되어 양민(良民)이 억울하게 종이 된자를 풀어주었다.

민지(閔漬)가 지은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이제현(李齊賢)등과 더불어 개찬(改撰)하기도 했고 충렬(忠烈), 충

선(忠宣), 충숙왕(忠肅王)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편찬(編纂)하기도 했다.

충목왕(忠穆王) 4년(1348) 6월11일 향년(享年)67세로 세상을 떠나셨으니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과 문정공(文貞公)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예를 갖추어 조문을 보내었으며(訃聞王命有司弔贈以禮)백관들이 받들어 회장(會葬·國葬)을 치루었다.

묘지(墓地)는 경기도(京畿道) 장단군 송서면 대덕산 두솔암 해좌(長湍郡松西面 大德山兜率菴 亥坐)이다.

묘지명(墓誌銘)은 가정(稼亭) 이곡선생(利穀先生·牧隱 李穡의 아버지)이 지었으며 익재(益齋) 이제현선생(李齊賢先生)은 근재(謹齋)선생의 문집인 관동와주집(關東瓦注集) 서문을 쓰면서 문장의 뛰어난 말할 것도 없거니와 풍속과 사물의 관찰 그리고 열에 아홉은 나라를 근심하고 관리들을 훈계(訓戒)한 글이라 했다.

또 우리 동방 유학자의 우두머리이다(吾東方斯文領袖也)라고 극찬했으며, 목은 이색선생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근재 안축선생은 영랑호 관련 시문 두편을 남겼는데 시비문에는 안축선생의 영랑호에서 지은 한시 2수중 영랑포범주(永郎浦泛舟)로 시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永郎浦泛舟(영랑포범주)

平湖鏡面澄(평호경면징)
 滄波凝不流(창파응불류)
 蘭舟縱所如(난주종소여)
 泛泛隨輕鷗(범범수경구)
 浩然發清興(호연발청흥)
 沂河入深幽(소회입심유)

丹崖抱蒼石(단애포창석)
玉洞藏瓊洲(옥동장경주)
循山迫松下(순산박송하)
空翠涼生秋(공취량생추)
荷葉淨如洗(하엽정여세)
蓴絲滑且柔(순사활차유)
向晚欲廻棹(향만옥회도)
風煙千古愁(풍연천고수)
古仙若可作(고선약가작)
於此從之遊(어차종지유)

번역 1. <영랑호에 배 띄우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국역본)

평평한 호수는 거울인 양 맑은데 푸른 물결 엉기어 흐르지 않네.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등실등실 떠서 날으는 갈매기 따라가네. 호연하게 맑은 흥 발동하니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대로 들어가네. 붉은 벼랑은 푸른 돌을 안았고 옥동은 경주를 감추었네.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이니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이제 가을이네. 연잎은 맑아서 씻은 것 같고 순채실은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저물녘에 배를 돌리려 하니 풍연이 천고의 수심일세.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번역 2. <영랑호에 배 띄우고>
(근재사상연구회 역)

잔잔한 호수는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아름다운 배는 가는 대로 흘러가고 경쾌한 갈매기 물에 떠 따라오네. 맑은 흥취가 크게 일어나니 물을 거슬러 깊은 곳으로 들었네. 붉은 낭떠러지에 푸른 바위 서 있고 아름다운 골에는 고운 모래톱 펼쳐 있네. 산을 돌아 푸른 숲 밑에 머무르니 울창한 푸른 기운 서늘한 가을을 주네. 연꽃잎은 씻은 듯 깨끗하고 순채나물은 미끄럽고 부드럽네. 해 저물어 뱃머리 돌리려 하니 좋은 경치 천고의 수심을 자아내네. 옛날의 영랑

선도 다시 올 수 있다면 여기에서 그를 따라 놀으렷마는.

번역 3. <영랑호에 배 띄우고>
(안상운 역)

잔잔한 호수는 거울같이 맑으며 푸른 파도는 엉켜있어 흐르지 않네. 아름다운 배는 빨리 가는데 갈매기는 배따라 가볍게 날아오네 맑은 흥취가 득히 일어나기에 물을 거슬러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갔도다. 붉은 절벽이 푸른 바위를 안고 있어 마치 옥동굴(玉洞)이 옥섬(玉洲)을 품은 듯 하네. 산을 돌아 소나무 아래에 배를 대니 울창한 푸른 소나무 서늘한 가을을 안겨 주네. 연잎은 씻은 듯 깨끗하고 순채나물 줄기는 미끄럽고 부드럽도다 해가 기울어 뱃머리 돌리려 하니 뿌연 안개는 오래된 근심을 자아내게 하도다. 그 옛날 신선(四仙)들이 될 수 있다면 선경(仙境)인 이곳에서 그들따라 놀 수 있었으리라.

근재(謹齋)선생의 영랑호 시문 나머지 한수를 더 소개한다.

「저문 구름 반쯤 걷히니 산은 그림 같고 가을비 새로 개이니 물결이 절로 이네.

이곳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배위에서 노래 한 곡조 다시 듣노라.

暮雲半捲山如畫 秋雨新晴水自波 此地重來難可必 更聞船上一聲歌

모운반권산여화 추우신청수자파 차지중래난가필 경문선상일성가 文

■자료

- 문화연구회 풀림음 「永郎湖와 謹齋安軸」(99.7.10)
- 「順興安氏 第三派宗報」(99. 제18호)

속초는 무궁한 비전

엑스포 성공을 보면서...



이 반 /

송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우리가 어렸을 때, 청초호에서는 청어가 잡혔다.
수협 어판장 부근에서는 굴도 났다.
수경을 쓰고 호심으로 자맥질 해 들어가면,
바지락과 피조개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여름 장마로 양수리 다리가 떠 내려간 적이 있다. 1961년이 었다. 서울 신설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속초행 버스를 타면 차는 포장되지 않은 먼지 길을 따라 굼벵이같이 움직인다.

망우리 고개를 넘으면 논과 채소밭이 펼쳐지고 작은 판자집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귀통이에 모여 있었다.

두물머리 북한강가에 이르면 사람들은 모두 버스에서 내린다. 강변에는 먼저 도착한 차 몇 대가 기다리고 있다.

버스는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넌다. 새벽차를 타고 간다고 일찍 기숙사를 나섰지만, 버스가 강을 건너면 벌써 한나절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열 다섯, 여섯 시간이 지나야 이르는 곳. 진부령을 넘고 간성을 지나고도 한참 더 뒤통거리야 이르는 곳.

영랑동을 지나 동명동으로 내려서면, 어떻게 다가섰는지도 모르게 눈앞에 전개된 바다.

바위를 때린 작은 파도가 버스 바퀴를 적신다. 그러면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지른다.

학교와 가정교사하는 집 사이로 오간 지난 학기의 피로가 한꺼번에 가시는 순간이다.

그리운 고향

아침햇살을 받고 맑게 빛나는 청초호가 우리 앞에 다가선다. 호수가 갈대밭 사이로 작은 물새들이 머리를 맞대고 먹이를 찾고 백조들은 호심 가운데서 한가롭게 떠다닌다.

겨울이 되면 진부령이나 대관령길은 눈으로 막힌다.

그러면, 우리는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간다. 강릉에서 버스를 타고 부월리에 이르면, 아침햇살을 받고 맑게 빛나는 청초호가 우리 앞에 다가선다.

호수가 갈대밭 사이로 작은 물새들이 머리를 맞대고 먹이를 찾고 백조들은 호심 가운데서 한가롭게 떠다닌다.

울산바위가 청초호위에 떠 있다.

속초가 청초호 위에서 유명하고 있다.

그래서, 속초는 물위의 도시로 우리를 품었다.

속초를 사람의 얼굴에 비하면, 영랑호와 청초호는 그 얼굴의 두 눈이라 할 수 있다.

호수가의 갈대와 수초는 속 눈썹에 해당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청초호에서는 청어가 잡혔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청초호에서는 청어가 잡혔다.
수협 어관장 부근에서는 굴도 땀다.

수경을 쓰고 호심으로 자맥질 해 들어가면, 바지락과 피조개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배돔과 항어 낚시는 늦은 봄에 시작되어 하늬가 불때까지 계속되었다.

청호동 방파제에서는 놀래미, 열기에 가끔은 씨알 굵은 우럭도 잡혔다.

청초호에서 우리는 작은 전마선을 타고, 노젓는 법과 돛으로 배가 바람을 타는 방법을 익혔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계획, 그리고 탐욕이 청초호를 오염시키고 더럽혔다.

동명동 바다와 청초호의 매립이 어찌 어제 오늘에 계획던 일일까?

70년대나 80년대에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는가?

청초호의 속눈썹을 매립하고 그 곳에서 관광엑스포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주제를 인간, 자연 그리고 미래라고 했다. 단어의 순서가 바뀐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자연'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가솔을 이끌고, 행사장 구석 구석을 돌아 보았다.

입장객 수가 예상을 넘었다니, 다행이고 축하 할 일이다.

도로도 정리되고 세계와 전국에 속초를 알린 홍보효과는 자산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수자에 이르리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강원도와 속초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두 곳에서 구경가자는 전화가 왔다.

한 사람은 특별할인 티켓이 있다고 유혹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여행경비를 델테니 동행하자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실항민들의 통일의지를 처

나는 열살 전에 남쪽으로 피난왔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다
속초에서 멈췄다. 내가 태어난 곳은
금강산보다 더 북쪽에 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서 고향도 못보고
다시 북쪽을 향해 보이지도 않는
고향 산하를 그리워 하란 말인가?

그리운 고향

음으로 연극무대에 올린 작가가 금강산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는 것이었다.

두 번다 벌 이유를 대지않고 거절했다. 내 생각은 이렇다.

.....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서 속초시민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엑스포 행사를 치루는 주인으로 있었는가, 그 행사를 보아야 하는 관광객의 역할을 했는가?

나는 열살 전에 남쪽으로 피난왔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다 속초에서 멈췄다.

내가 태어난 곳은 금강산보다 더 북쪽에 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서 고향도 못보고 다시 북쪽을 향해 보지도 않는 고향 산하를 그리워 하란 말인가?

내 고향은 함경남도 홍원이다. 홍원 천도에 있는 등대밑 큰 집이 우리 집이다.

등대 동쪽 삼 키로 지점에 죽섬이란 조그만 섬이 있는데, 나는 그 섬 두 세길 물밑 바위의 생김새와 촉감을 지금도 느끼고 그것들을 내 뼈와 살의 일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곳으로 못간단 말인가.

금강산으로 안가는 이유가 또 있다. 관광의 대상은 자연, 역사, 예술 등 다양하다.

그런것들을 보기 위해 여행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소곳한 삶의 모습이다.

그들의 집 색깔과 형태, 창과 부엌, 해묵은 책상과 걸상, 일하고 쉬는 모습 등이다.

그리고 그들과 차를 마시거나 저녁 상에서 살아오고 살아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 한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에는 그것이 없다.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초관광엑스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다.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서 속초시민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시민들은 속초에 있었다.

내말은 엑스포 행사를 치루는 주인으로 있었는가, 그 행사를 보아야 하는 관광객의 역할을 했는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느냐는 것이다.

엑스포장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안내병의 인도로 군병영을 구경하는 학생들 처럼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의 관광안내와 물품 부스가 잘 진열된 진열장과 공연을 보고 속초를 땡하니 떠났다.

관광엑스포라는 행사가 속초라는 공간에서 이루어 졌을 뿐 시민들과의 연계프로그램은 찾기 힘들었다. 산과 바다를 보여줬을 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관계는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 행사라면서 학술회의 한건 없었다.

파리 만국 박람회때 에펠탑이 세워졌다.

그때 파리시민들은 에펠탑은 파리의 아름다움을 헤치는 괴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 었다.

그러나 지금은 에펠탑없는 파리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에펠탑은 친숙하게 되었다.

속초의 엑스포 기념탑이 속초의 괴

속초는 수상도시다. 배를 타고 조도쪽에서 육지를 바라보면 건물과 설악산은 물위에 떠 있다. 청초호속에 잠긴 울산바위를 다시 뜨게 해야 된다. 베네치아 뱃놀이의 추억은 청초호에서도 가능하다.

물이 될지 시민들의 친숙한 이웃이 될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시민들과 친해지길 바랄 뿐이다.

내 생각으로는 관광하면 라스베가스 스타일과 스위스식이 있는 것 같다.

속초는 환경은 스위스식이지만 정책은 라스베가스식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

어느 쪽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일까 깊이 생각했으면 한다.

호주 멜보른에서 하루 관광길에 오른적이 있다.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관광길이었는데 목적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코알라 한놈 보는 것과 바닷가에서 기어오르는 한 뿔만한 펭귄들을 관찰하는 관광이었다.

역사적 유물이 파리나 런던보다 없는 뉴욕은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모은다.

북구에도 우리와 비슷한 보리 고개가 있었다.

봄에 파종하고 나면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람들은 자연히 허기진 6월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스톡홀름시에서는 이 기간에 시내 가운데 공원에서 식당축제를 개최한다.

공원에 열평 미만의 식당 오십여개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고 시내 식당에 세를 받고 대여한다.

시내 본 식당의 문을 닫고 식당 축제에 참여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축제 식당 영업만 하는데도 있다.

음식값은 본 식당보다 삼십 프로 정도 싸다.

축제 기간 총리와 시장 등이 이 곳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허기를 매우기 위한 이 축제에 세계 여러 곳의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곧 관광객을 위한 행사가 된 좋은 예다.

엑스포 행사때처럼 세계 각국 관광 기념품점을 개설하자는 어느 도의원의 발상은 매우 바람직 한 것이다.

속초는 수상도시다.

배를 타고 조도쪽에서 육지를 바라보면 건물과 설악산은 물위에 떠 있다.

청초호속에 잠긴 울산바위를 다시 뜨게 해야 된다.

영랑호에서 신선봉이 춤추게 해야 된다.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아직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베네치아 뱃놀이의 추억은 청초호에서도 가능하다. 청호동의 작은 집들은 이 나라 청소년들의 산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근대화는 그 작은 집에서 산 어른들의 피와 땀으로 가능했다.

속초는 물의 도시다.

물은 우리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대지를 깨끗케 한다. 물은 우리를 정화하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리는 물에서 와서 땅으로 간다.

서양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다.

속초는 물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물의 도시로 그 의미를 부여 받아야 된다. 文

新羅 梵日禪師의 洛山寺 重創과 그 意味

…梵日禪師의 浙東地域과 關聯하여…



최현식/

속초문화원 이사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1.

한 국 제일의 관음도장 낙산사(觀音道場 洛山寺)의 창건(創建)이 의상대사(義湘大師)(625~702)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범일선사(梵日禪師)에 의하여 중창(重創)되었다는 사실은 「삼국유사(三國遺事)」권 3,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및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44, 「양양 불자 낙산사(襄陽 佛宇 洛山寺)」등에 자세히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반에 아무런 이의(異議)없이 받아들여져 통설화(通說化) 되고 있다.

그런데 낙산사에 관한 후대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상대사에 의한 개기설화(開基說話)가 크게 강조되어 범일선사의 중창에 대한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본 고에서는 먼저 「삼국유사」의 기사를 중심으로 사찰의 창건과 중창에 관한 내용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범일선사의 중창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한·중 해상교류 내지 불교교류사(佛敎交流史)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범일선사가 입당구법(入唐求法)한 절동지역(浙東地域)의 관음신앙(觀音信仰)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2.

「삼국유사」에는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옛날 의상법사가 처음으로 당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낙산사라 했는데 대개 서역에 보타락가산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을 소백화라 하는데 백의보살의 진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므로 이를 빌어 이름한 것이다. 의상이 재제한지 이레만에 좌고를 새벽 물위에 띄웠더니 용종과 천중 등 팔부 시종이 굴속으로 그를 안내하였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절 이름을 낙산사라 하고, 법사는 그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났다고 하여 의상대사가 두 이레 동안 각고(刻苦)의 기도(祈禱) 끝에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친견(親見)하고 낙산사를 개창(開創)하였다는 이야기를 진격(眞擊)한 종교적 화법(話法)으로 전해주고 있다.

대사는 당(唐)나라에 유학하여 화엄종(華嚴宗)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화엄십찰(華嚴十札)을 건립하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여 통일신라의 사회를 불교이념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점에서도 낙산사가 그에 의하여 창건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가 낙산에 관음도량을 세우고 「백화도장발원문(白華道場發願文)」

을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원력(願力)으로 구원(救援)의 손길이 내려지기를 기구(祈求)하며, 세세생생 관음대성(歲歲生生 觀音大聖)에 귀명(歸命)하기를 맹세하였다.

백화산(白華山)은 광명산(光明山) 혹은 보타낙가산(普陀落迦山)으로도 통용되므로 백화도장이란 곧 낙산관음도장을 일컫는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낙산사의 창건설화에 이어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참예기사(參禮記事)에 대해서도 흥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대사(大師)가 관음도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여인으로 화한 관음보살이 심술을 부리는가 하면, 또는 파랑새가 되어 장난하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 놓은 뒤 법사가 성굴(聖窟)에 들어가서 관음의 진용(眞容)을 보려하자 풍량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여 의상과는 달리 원효의 관음 친견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파계승(破戒僧)이어서 친견을 거부한 때문일까? 원효는 의상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불교계를 이끈 쌍벽(雙璧)이었으나 그들의 종교적 태

역사의 향기

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상대사에 의하여 창건된 낙산사는 신라말에 이르러 범일선사에 의하여 중창되었다.

「삼국유사」의 같은 조에서는 범일선사가 낙산사에 정취보살(正趣菩薩)을 안치(安置)하면서 사찰을 중창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선사가 입당(入唐)하여 명주 개국사(明州 開國寺)에 이르렀는데 좌중(座中)에 왼쪽 귀가 잘린 한 스님이 있어 “저도 신라인입니다. 집은 명주계(明州界) 익령현 덕기방(德耆房)인데 조사(祖師)께서 귀국하시면 반드시 제 집을 지어 주십시오”하고 호소하였다.

선사는 이윽고 제안선사(祭安禪師)에게 법(法)을 얻고 회창(會昌) 7년(847)에 귀국하여 굴산산문(山山門)을 개창하여 전법에 열중하게 되었다. 약 10년 후(大中 12년, 858) 어느 날 밤 꿈에 명주 개국사에서 만나 자기 집을 지어 달라던 스님이 나타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기에 조사는 곧 익령으로 가서 덕기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노는 다리 밑 물속에서 돌부처 하나를 찾아 보니 왼쪽 귀가 떨어져 나간 모습이 전에 본 스님과 같았다.

이것이 바로 정취보살로서 선사는 낙산에 불전세간을 지어 모셨다는 이야기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두 창건과 중창에 관한 설명에 이어 다음과 같은 주석(註釋)을 달아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다. 즉 고본(古本)에는 범일의 사적(事蹟)이 먼저 적혀 있고 의상과 원효의 이야기가 뒤에 적혀 있는데 이는 분명한 잘못이므로 순서를 바로

잡는다고 하고 있다.

추측컨대 범일선사는 그 신분이 강릉지방의 귀족일 뿐 아니라 나말려초(羅末麗初) 구산선문(九山禪門)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굴산사의 조사로서 그 명망이 한때는 의상을 능가하였을 것이며, 또한 범일에 의한 중창이 규모에 있어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사실상 창건에 못하지 않은 정도의 역사였을 수도 있는 일이다. 범일의 사적이 먼저 기술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3.

낙산이 한국의 대표적 관음도량이라면 보타산은 중국의 대표적 관음도량이다.

관음신앙의 소의 경전(所衣 經典)은 「법화경(法華經)」이지만 관음보살진신(眞身)의 상주처에 관해서는 「화엄경」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그러나 실제 관음도장에 대해서는 현장법사(玄奘法師)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인도의 포달낙가산에 관한 설명이 최초의 기록이다.

한국의 낙산사의 창건은 아마도 의상대사가 중국 유학중에 「대당서역기」에서 받은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타산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9세기 중엽에 개창되었다.

「불조통기(佛祖通紀)」에 의하면 일본국의 사문 혜약은 오대산을 참례하고, 관음의 상을 얻어 사명으로부터 장차 귀국하려고 하여 배가 보타산을 지나려는데 좌초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대중은 두려워하여 기도하기를 “만약 존상께서 해동에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이 산에 머무소서” 하였다니 배가 움직였다. 약은 애모하여 떼어 놓을 수가 없었으나 곧 암상에 초막을 지어 이를 봉안하였다 하여 보

역사의 향기

타산이 관음성지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는 조음동 부궁거관음전(潮音洞 不肯去觀音殿)의 창건이 일본의 혜악선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도경」에서는 달리 설명하고 있다.

즉 옛날 신라의 상인이 오대산에 갔다가 그 불상을 조각하여 싣고 본국으로 돌아 가려 하였다.

바다로 나갔으나 좌초하여 배가 걸려 나가지 아니하여 관음상을 바위 위에 내려 놓았다.

…이 후로 해상으로 왕래하는 이들은 반드시 나아가 기도함에 감응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여 여기서는 일본 스님이 아니라 신라상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어떻든 보타산은 한반도와 일본열도로 래왕하는 선박들이 바람을 기다리는 곳으로서 9세기이래 중국의 해상교역의 중심항으로 부상하면서 점차 관음성지로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당시의 동아시아 해상활동의 정황으로 보아 이른바 불궁거관음상의 주인공은 신라상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릴 여유는 없다.

다만 이러한 설명들은 어떻게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중심지 명주지역의 보타산이 9세기 중엽에 관음도량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보타산 관음도장의 개기가 되는 불궁거관음전이 9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이 시기는 낙산사의 중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양측이 모두 같은 대중 12년(858)으로서 한·중교류가 매우 활발한 시기의 일이다.

의상대사는 일찌기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북방항로를 이용한

데 반하여 범일선사는 주산열도(舟山列島)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남방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범일선사가 입당구법한 이 9세기는 중국사에 있어서 강남지역의 사회경제적 발달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사의 중심점이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해상교류의 중심지도 산동반도에서 절강 복건의 동남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승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선단(張保臯船團)은 주로 산동반도를 근거로하여 활동하면서 절동지방으로의 래왕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주로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동일한 재당신라상인(在唐新羅商人)으로 여겨지는 장우(지)신(張友(之)信)은 절동연해를 근거로 활약하였으며, 당대말기(唐代末期)로 접어들수록 절강연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항로의 이용이 더욱 잦게 되었다.

사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구산선문의 대부분이 절동지역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었으며, 사굴산선문을 개창한 범일선사도 그 중의 한 분에 속한다.

범일선사가 20여세의 나이로 사신 김의종(金義宗)을 따라 입당한 것은 태화연간(827~835)이며, 그가 입문한 곳은 염관 해창원 제안선사(鹽官 海昌院 齊安禪師)였다.

염관제안은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제자로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이른바 마조선풍을 이어 받아 그 제자 범일에게 전수함으로써 이 마조의 선지(禪旨)가 사굴산선문을 한반도에 흥전(弘傳)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가 염관제안의 문하에서 공부한 것은 6년간이나 되며, 회창 7년(847) 귀국할 때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불교탄압으로 산중에서의 은닉생활과 육조탑 참배등으로 보내었다.

역사의 향기

그리고 상당 기간은 명주 등 절동에서 보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명주나 소흥은 염관의 대안에 위치하여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명주개국사에서 만난 '귀떨어진 스님'으로 인하여 낙산사에 정취보살을 안치하게 된다는 「삼국유사」의 기록 등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귀국하기 위해서는 명주와 보타산을 경유하여야 하며, 염관을 포함한 이들 절강 연해지역은 동해관음신앙이 일찍부터 유행하던 지역으로서 범일선사의 중국에서의 구법활동이 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범일선사에 의하여 낙산사가 중창된 시기가 보타산의 불금거관음전이 이루어진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즉 범일조사에 의한 낙산사의 중창은 대중(大中) 13년이며, 불금거관음전의 개기도 역시 대중 12·3년으로서 모두 당시 회창파불(會昌破佛)

을 겪은 다음 신황제(新皇帝)의 즉위로 새로운 불교의 부흥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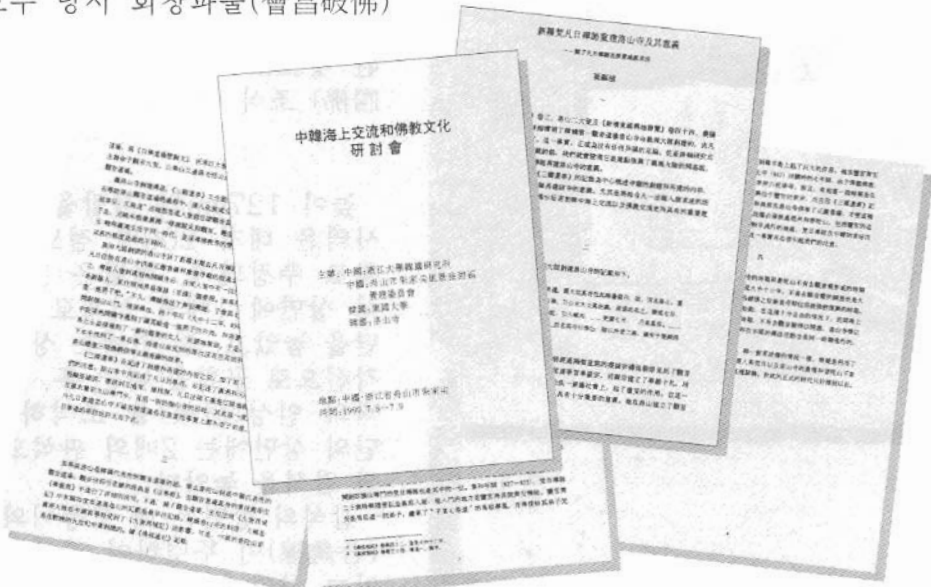
이 9세기 중엽은 나당 양국의 중앙집권적 통제가 점차 누수현상을 노정하여 사적 해양교역과 불교교류가 매우 자유로운 상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불금거관음전의 개기와 낙산사의 중창이 이루어졌으며, 범일선사의 중국에서의 구법활동과 본국에서의 전법활동이 역시 같은 시기에 저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니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일선사가 재당 구법을 마치고 귀국할 때는 구법승들의 일반적 경구와 마찬가지로 신라 상인들의 배를 이용하였을 것이 틀림 없다.

이렇게 볼 때 신라 상인과 범일, 그리고 낙산사의 중창과 보타산 불금거관음전의 창건,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앞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文



**위 논문은 99년 7월8일~9일 양일간 중국 절강성 주산시 주가침에서 가진 한중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무당골 사지 3층석탑

(노학동 3층석탑. 강원도 문화재자료 127호로 지정)

속초시 노학동『무당골 사지 3층석탑』이
강원도 문화재자료 127호로 지정되었다.

속 초시 노학동『무당골 사지 3층석탑』(속초문화 제14호 <p.56> “나도 당당한 문화재감”)이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지정심의(99. 12. 28)에서 강원도 문화재자료 127호로 지정되었다.

무당골 사지 3층석탑은 설악산 목우재휴게소 앞 도로 건너편 골짜기로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를 따라 개울 오른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방사불(四方四佛) 조식 석탑이다.

높이 127cm의 석탑을 안고 있는 사역은 대지 200평 정도의 남향사찰로 추정되며, 석탑은 1매의 지대석 상면에 1매의 석재로 구성된 기단을 놓았고, 각 면에는 상·하에 음각선으로 구획을 나눈 후, 각 면 2구씩의 안상(眼象)을 조식하였다. 기단의 상면에는 2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갑석을 놓았다.

갑석의 상면은 네 모퉁이의 합각선(合角線)이 뚜렷하여 경사를 이루고 있고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 받



역사의 향기

침을 조출하였다.

탑신부는 1층탑신만이 1석으로 조성되었고, 1층옥개석, 2층옥개석과 3층탑신, 3층옥개석, 노반석이 각각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탑신의 4면에는 양 우주(兩隅柱) 및 사방불이 조식되어 있다.

사방불은 2층의 원형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구비한 좌상이다. 마멸이 심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현상으로 보아 나발(螺髮)로 보이는데, 육계(肉髻)가 표현되어 있다. 상호(相好)는 살이 오른 둥근형태로 일자형의 눈, 코, 입, 짧은 귀가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하다.

법의(法衣)는 통견으로 두겹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슴에는 V자형의 의문(衣文)이 보이고 있다. 양손은 배꼽부근에 모으고 있어 선정인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무릎 하단에는 복엽(複葉) 16판(瓣)의 양연(仰蓮)이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대좌를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멸되어 정확한 형상을 살필 수 없지만, 안정감있게 부조(浮彫)되었다.

1층 옥개석은 하면에 낮은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는데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합각선이 두툼하여 둔중감을 주고 있다.

2층 탑신은 결실되었고, 상면에 3층탑신과 일석으로 조성된 2층옥개석이 놓여 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각형 3단의 받침이 조출되어 있는데, 낙수면의 경

사가 급해 둔중감을 주고 있다.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받침 위에 양 우주가 모각된 낮은 3층탑신이 있다.

3층옥개석은 1·2층과 같은 형태인데, 하면에 각형받침 대신 단판 연화문(蓮花文)을 조식하고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반파된 노반석 및 지름 5.5cm, 깊이 1.5cm의 원형(圓形) 찰주공(擦柱孔)이 있다.

속초 노학동 3층석탑은 영동지방의 석탑중 사방불이 조식된 진전사지 삼층석탑, 강릉시립박물관 석탑재와 함께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더한다.

이제 강원도 문화재자료 127호로 지정된 속초노학동 3층석탑에 관하여 우리는 먼저 자세한 안내판의 설치와 보호철책, 보호구역 측량, 석탑의 보수로 매달 점검을 실시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문화원 향토전시사료관에 그 모형이 향성사지 3층석탑(보물 제443호), 조양동 선사유적(사적지 제351호) 등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 속초가 문화유적의 명소로 그 이미지를 더 확고히 심어 주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文**

든대질 놀이

주동진

영북민속문화연구원 기획단장

동 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개안(항구가 있는 곳)과 날바리땅(항구가 없는 모래땅)을 주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속초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오산, 수산, 인구 북쪽으로는 봉포, 공현진, 문암, 가진등은 날바리 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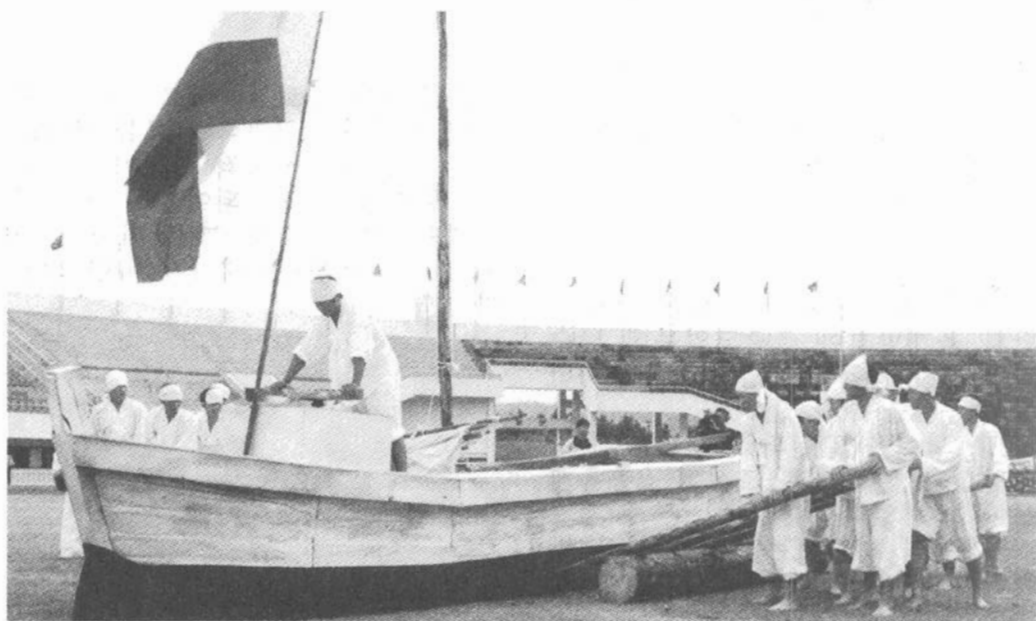
속초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사진리(장사동)가 대표적인 날바리 땅이므로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 올린다.

날바리 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초를 다투어 배를 끌어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있게 허리 도리(선도리꾼)의 유창한 소리에 맞춰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 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새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설이 여러 가지 삽입되고 있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進水)시에 사람들은 "배 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술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5색 만선기(성주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린다.



전통민속놀이 1

제물로는 술, 과일, 포,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장만해서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지내는데, 동해안에서는 첫출어를 '설망'이라 한다. 설망날은 택일을 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후 배성주신을 모실 돈은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킨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흰종이(한지)를 한쪽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겹으로 접어서 왕돈 한 푼과 청·홍실을 그 속에 넣어 어부들이 잠자는 '방장'이나 '큰대명' (고기를 잡은 것을 담아 두는 곳 중에서 가장 큰 곳)에 모신다.

배성주를 모실 때 제물로는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나 병용하지는 않는다. 선주가 제주(祭主)가 되며 도사공(선장)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꽃고 드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을 하여 배가 물에 닿으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따리(키)'를 잡는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돛을 올려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들고 뒷고물을 휘두른 뒤 바다에 던져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로 벽사의 뜻이 있는데 삼재(수재, 화재, 풍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 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게'라 하는데 '고인대'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속초든대질 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성주기(만선기)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묶으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2. 고사

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라고 한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히 차린다.

3. 액막이

액막이는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며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 것을 말한다.

불을 나쁜 것을 씻는 발양력을 지녔다고 보아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4. 비나리

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이때 쾌자는 입지 않는다.

5. 든대질

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

리와 뒷소리를 부르며 배를 내린다.

6. 설망

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고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7. 농악

농촌과 달리 농악대는 따로 없고 농기도 없다. 도가에 악기를 보관하며 놀이에만 사용하며 장단도 약하고 가락도 많지 않다.

속초지방에서는 정초에 걸립(乞粒)을 별로 하지 않고, 배걸립은 무녀를 대동하여 하는 수가 많다.

든대소리 자-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自地)하니 활금출이요 개문(開門)함이 만복래라 우리 배를 내리다 보니
 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 손발이 다 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 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동네 술집은
 낮에 나가자 자- 자- 이왕지사 왔던 걸음에 죽서루나 구경가자 삼척하면
 죽서루요 삼척바다를 떠나보니 강릉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강릉 앞바다를 떠나가 보니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 바다를 떠나가 보니 간성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 보니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장전 바다에 들어가 보니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 산이 일만이천 봉
 우리를 구름같이 물렸으니 천하명산 그 아니냐 장안사를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원산바다가 나서는구나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땡기다보니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워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잎이 피고
 꽃이 핀다 보고 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어라 자- 자- 자- 자- **文**



전통민속놀이 II
시범문화예술학교



양양조산(造山)초등학교



노광복/속초문화원 부원장

강 원도 양양군 강현면 조산(造山)초등학교(교장·정호익<鄭鎬益>)는 98년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예술학교로 선정된 한아름 특활학교이다.

조산초등학교는 20년전인 지난78년도에 최종덕 교사(崔鍾惠, 현 속초교동초등학교 교감)가 학생들에게 「패다리 농기」등을 가르치면서 농악놀이를 시작, 3년 후인 81년 봄 새학기에 어린이 농악대를 창단하여 오늘의 문화예술학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농악·사물놀이·예절교육 으뜸,
우리 전통민속놀이 - 학부모와 같이 맥이어

전교생 1백70여명(유치원생 포함)은 방과 후에도 하루 2시간씩 농악을 연습, 수준급인 상쇠가 5명이고 장고, 팽가리, 북 등을 마음대로 다루는 학생이 절반을 넘는다.

학생들은 10년전부터 매년 여름 낙산해수욕장에서 농악놀이를 공연, 피서객들에게 우리전통가락을 선보여 주고 있으며, 고장의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

전통민속놀이 II 시범문화예술학교

축제 등에도 출연하여 행사를 빛내 주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양양군의 날』에 군민을 대표하여 농악(사물놀이)을 공연, 관광객들의 박수갈채가 대단하였다.

조산초등학교는 전통문화예절 익히기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한복입는 날'로 지정하여 대님매기 등 한복 바르게 입기, 바르게 서고 걷기, 인사하고 절하기를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가족과 친인척의 관계 등 촌수 바로 알기를 심어 주면서 특히 유치원생들에게는 한복입는 날에 맞추어 생일잔치를 곁들여 주고 있어 우정의

돈독을 도모케 하고 있다.

김상초 교감은 「농악놀이의 특성상 아이들 여럿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이라 흥미를 느낄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대단한 도움이 된다」고 농악놀이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이 한아름교육을 실시한 날(11월 12일)에는 학부모들이 밥, 떡, 과일, 돼지고기, 추어탕, 김치 등을 가져와 푸짐한 잔치상을 차리고, 자식들과 같이 소고춤,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굴리기, 줄넘기 등을 같이 하여 우리 전통예술교육이 그 미래가 한층 밝음을 증명해 주었다. **文**





북청사자놀음의 재현

東宇大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병연

동우대학 관광과 교수

1. 북청사자놀음의 의의 및 기능

북청사자놀음은 함남 북청군 산하 11개 면과 8개 읍에 속하는 전지역에서 음력 정월 14일 밤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놀던 민속놀이이다.

14일 밤 달이 뜬 뒤부터 시작되는 사자놀음은 15일 새벽까지 밤새 놀고, 서당과 도청(道廳)광장에 모여 술과 음식을 갖춰 놓고 논 뒤 해산하였다가, 16일부터는 집집마다 돌아 다니므로 가정의 액운을 쫓아주었다.

이와같이 북청사자놀음을 거행하던 주목적은 벽사진경(辟邪進慶)과 풍농을 기원하는 종교적 기능과 마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었다.

2. 북청사자놀음 재현의 필요성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59년 5월 2일 청호동에 거주하셨던 고 김수석옹을 중심으로 북청동향 친목계를 만들면서 북청사자놀음 공연단 결성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도청(都廳)을 짓고 향수를 달래며 사자놀음을 즐기 시작하자 이북5도청에서는 60년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시키고, 6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수시키기 시작했다.

66년 10월 서울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민속경연대회에 고 김수석옹은 같이 속초에 거주하던 오동술, 이재섭씨 등과 함께 참가하여 개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67년엔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 받기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북청사자놀음은 전승지를 서울로 하여 일단 남쪽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몇몇 인사들은 북청사자놀음이 속초를 그 전승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속초에는 함경남도 출신들이 많이 있으며 이중 33%가 북청인으로 되어 있다.

그들이 속초지역에 살아온 지는 어언 반세기가 되어 가며 이들이 겪는 북청 고향에 대한 향수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동우대학 관광과에서는 실향민들이 가지고 있는 망향의 한을 달래주고 설악지역의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주민들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속초지역에서 북청사자놀음 재현행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북청사자놀음을 거행하던 주목적은 역사진경과 풍농을 기원하는 종교적 기능과 마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었다.

3. 북청사자놀음 재현과정

1999년 4월 사자의 모습을 재현시켜 실향민의 망향의 한을 달래고 이 놀이를 설악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부에 동우대학 관광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제출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교육부에 통과됨으로써 본격적인 사

전통민속놀이 Ⅲ

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1999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에 걸쳐 서울소재 주요대학 도서관 및 북청사자놀이보존회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북청사자놀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본격적인 전수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당초 계획은 1999년을 전수의 해, 2000년을 재현의 해, 2001년을 발전의 해로 구상하여 3개년 계획으로 실시코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지원계획이 1년 단위로 변경되다보니 부득이 1999년에 전수 및 재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축박한 시일이었지만 업친데 겹친 격으로 전수를 받아야 하는 관광과 학생들이 우리 지역 최대 이벤트인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전원 자원 봉사자로의 지원을 나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남아 있는 학생들 40명을 모아 전수를 하기에 이르렀다.



전수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 1단계

10월 2일 설악문화제 행사시 북청사자놀이보존회의 공연장면 녹화비디오를 통해 민속놀이에 대한 이해와 흐름 파악.

▶ 2단계

북청사자놀이보존회 소속 기능이수자 3명(박균일, 강선윤, 정강경)을 강사로 초빙 2주간 전수교육 실시.

▶ 3단계

연습장면을 비디오 분석으로 잘못된 춤사위 및 놀이과정 수정.

▶ 4단계

북청사자놀이보존회 주최 북청사자놀이 정기발표공연

(11월 6일, 남산골 한옥마을)관전을 통하여 원형 이해 및 뒷풀이 놀이마당에 참여 간접 발표.

이와 같은 전수과정을 통하여 11월 18일 동우대학 교정에서 재현 공연을 갖게 되었다.

재현공연을 마치고 못내 아쉬웠던 점은 북청사자놀이 연주악단이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외부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다음엔 보다 원형에 가까운 놀이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련다.

두 마리의 사자가 포효하며 몸부림칠 때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뭉쳐진 한이 조금씩 풀어지리라 기대해본다. 文

돈돌놀이

본원은 우리 속초가 전국 제일의 월남민이 많은 고장(인구 밀도를 보아)으로 이들에게 두고온 고향의 민속을 재현하고 또 함께 놀이를 하면서 통일의 의지를 재삼 다지는데 뜻을 보태고자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인 민속민요「돈돌놀이」를 함경남도 북청 민속예술보존회 조하립(趙夏立) 이사장의 집필로 소개 합니다.

(편집자주 사무국)

「돈돌놀이」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 민속민요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특별공연
 망향의 한 달래고, 통일의지 다져...

함 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인 민속민요「돈돌놀이」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99. 9. 15~17 제주도)에 이어 제17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99. 10. 9~10. 속초)에서 특별 공연을 가졌다.

6.25의 실향민들에게 고향의 전통 민속놀이의 부활이라는 수확과 또한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정서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함경남도 북청군이 원산지로 알려지고 있는 「돈돌놀이」의 「돈돌」은 회전(回轉)으로 제구비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가난에서 풍요, 억압에서 해방으로, 그리하여 일제시대에 반일사

상민요로 지목되어 금지 당한 역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돈돌놀이」가 해방후 함경도 전 지역일 정도로 집단적 가무놀이(북한의 정책적 개작이었지만)로 성대 하였으나, 6.25사변으로 하나의 망향으로 그리는 추억의 민속놀이였을 뿐 이었다

이 사랑된 민속동요 「돈돌놀이」를 함남 북청민속예술 보존회가 10년전부터 되살리기를 시작, 정부로부터 98년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전국각지를 순회하면서 북한민속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1. 놀이의 형식과 구성

「돈돌놀이」춤은 누구든지 바가지 장단 또는 북 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 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전통민속놀이 IV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전승과정을 통하여 놀이 구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흰 모래판의 춤판을 둘러싸고 큰 원형을 이루면서 둘러 앉으면 그중 몇 사람이 한 복판으로 들어가면서 춤을 춘다.

이때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통소들의 풍악 반주가 뒤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한 복판에 나간 사람들은 군중들의 손뼉 장단, 바가지 장단, 북과 징 장단 노래에 맞추어 명랑하고 경쾌한 "돈돌놀이" 춤을 춘다.

그러면 모여 앉았던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 들어가 본격적인 군무가 벌어진다.

처음에는 제각기 춤을 추다가 점차 대열을 지어가면서 원형을 이룬다.

그 중심에는 무동, 짚추, 유결이 등이 나타나서 연희한다.

2. 춤사위의 특징

"돈돌놀이" 춤 가락은 우리 나라 민간무용 가운데서도 고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속춤의 특징은 날씬하고 우아한 춤사위와 대조되는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고 절도가 명료한 낙천적이고 경쾌한 성격을 지녔다.

북청춤의 특징을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머리를 약간 숙인채 좌우로 사랑 사랑 흔들면서 춤을 춘다.

2)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손목을 돌리면서 잔가락을 쓰면서 춤을 춘다.

3) 발꿈치를 살짝살짝 뒤를 들면서 춤추는 다리 동작

3. "돈돌놀이"군 가요의 내용과 특징

"돈돌놀이"는 그 춤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곡조를 갖고 있다.

이 곡조는 열 가지 변형을 갖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돈돌놀이"군가요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모든 가락이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밝은 성격을 띠고 있다.

"돈돌놀이"놀이판에는 "돈돌놀이", "봄철나비", "해가 떨어진다", "거스러미 노래", "전감섬 타령", "도래미소", "라리라 돈돌리 띠리리 홀리리" 등 20여종의 노래들이 교대로 불렀다.

이중 돈돌놀이, 해가 떨어진다, 도래미소는 예언요, 거스러미 노래는 경계요, 전감섬 타령은 전통적 부요, 봄철나비, 미나리 꽃, 삼천리 노래, 양유나 청산, 라리라 돈돌리띠리 등은 유희로 분류할 수 있다.

돈돌놀이 (후렴) 돈돌놀이 돈돌놀이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1) 돈돌놀이 돈돌놀이 돈돌놀이
모래 청산에 돈돌놀이
모래 청산에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후렴-

(2) 돈돌놀이 돈돌놀이 돈돌놀이
시내 강변에 돈돌놀이
시내 강변에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후렴-

(3) 돈돌놀이 돈돌놀이 돈돌놀이
모래 산천에 돈돌놀이
모래 산천에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후렴-

(4) 돈돌놀이 돈돌놀이 돈돌놀이
보배 청산에 돈돌놀이
보배 청산에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후렴-

(5)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 강산에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리라 리라리 돈돌놀이 -후렴- 文

영랑호 보광사에서 맞이하는 정월대보름 장승제

우리지역의 전설어린 영랑호변에 위치한 사찰 보광사에서는 매년 돌아오는 정월 대보름날 대보름맞이 법회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 행사중에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양시키고자 장승제를 지내는데 이는 사라져 가는 우리들의 문화를 되살려 문화의 맥을 잇고자 함이다.

또한 매년 장승이 서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세워 사찰의 입구를 알리기 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불거

등으로 지난해의 모든 액운을 버리고 새해에 바라는 소원을 담아 달맞이를 통해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보름을 지내곤 했다.

이제 보광사에서 대보름맞이 장승제라는 문화가 있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은 본 행사에 참가해 또 하나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한다.

장승(長丞)이라 함은 장생(長性), 장성(長性), 장주(長柱)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지는데 따라서는 벽수, 벽수맥이, 수살

우리 지역의 전설어린 영랑호변에 위치한 사찰 보광사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여러행사를 개최하며 그에 따른 행사중에 장승제를 지낸다.

리 제공 등 문화발전의 계발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담당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들은 대보름 행사시 지신밟기, 소망등 띄우기, 액질태우기

(守煞)맥이 수구(守口)맥이 등으로도 불리며 긴 시간동안 서민들의 신앙의 대상, 마을과 사찰 등 신성한 장소의 경계표시로 역할을 해 왔다.

장승제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생의식을 영랑호에서 함께 하며 많은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승의 복판(腹板)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대장군(地下大將軍) 혹은 남방적제축귀대장군(南方赤帝逐鬼大將軍), 북방흑제축귀대장군(北方黑帝逐鬼大將軍) 등을 묵서(墨書)를 하고 또한 얼굴 부분을 붉은색으로 칠을 해서 사귀를 쫓아 내는 방액장승(防厄長丞)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노중제, 오방제 등으로도 불리는 장승제는 마을이나 장소에 따라서 제를 지내는 방법이나 제일(祭日), 혹은 장승을 제작하는 방법이 다르다.

매년 새로 깎아서 세우는 마을이 있

는가 하면, 2년 혹은 3년마다 새로 깎는 곳이 있고, 처음에 세운 장승을 사용해 복판에 글씨만 한지에 써서 새로운 묵서로 갈아 붙이는 곳도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매년 장승을 새로 제작해 전에 세운 장승 곁에 세움으로서 장승군(長丞群)을 이루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장승은 수호장승(守護長丞), 노표장승(路標長丞), 비보(裨補)장승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호장승은 마을입



구에서 질병이나 재앙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장승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장승은 수호장승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노표장승은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장승으로 경기도 광주군 무갑리 장승의 하단부에는 서울 백리, 수원 80리, 산성 30리라는 이정표를 놓아서 이 장승군이 이정표의 역할과 마을의 수호역할을 하는 수호장승과 노표장승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장승임을 알 수 있다.

비보장승은 마을이나 성(城)의 허(虛)한 지맥을 비보(裨補)하는 기능을 갖는 장승으로 옛 광주읍에서는 성의 동문 밖 자리에 석장승을 세워 풍수적으로 허한 곳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장승은 마을이나 사찰의 경계를 알리는 표시장승으로 대개 마을이나 절의 입구에 서 있다.

이는 마을이나 사찰의 영역을 표시함과 아울러 그 곳부터는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경계의 표시이다. 사찰입구에 서있는 장승에 새겨진 호법선신(護法善神)의 의미는 불법(佛法)을 수호(守護)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필경에는 성불(成佛)하게 돕는 것을 뜻하며, 또다른 장승에 새겨진 방생경계(放生淨界)는 이곳에서부터는 더욱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

랑하며 메인 것들에게 자유를 베풀어야 함을 뜻한다.

이와 같이 사찰의 입구에 세워진 장승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담겼다. 불법도량을 알리는 일주문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여기서부터는 사찰의 경계이니 벌써 몸과 마음가짐을 각별히 하라”는 주의가 있고, 장승의 신체에 금귀대장(禁鬼大獎)축귀의 경고를 담아 “경내의 부정을 금하고 잡귀잡신의 출입을 막는다”는 준엄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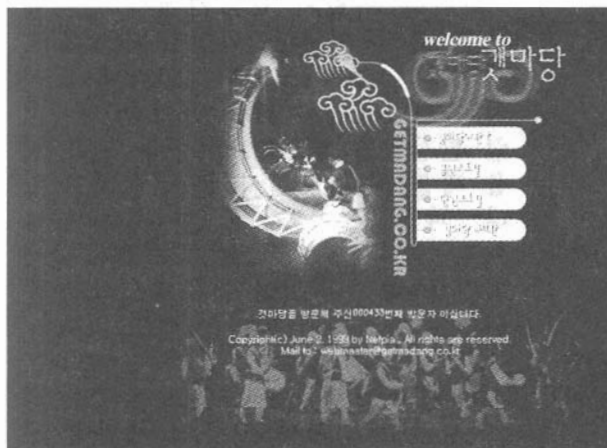
그리하여 “방생정계와 호법선신”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어 성불의 기원을 담은 것이 사찰의 장승인 것이다. 1999년 정월 대보름 행사시 보광사 입구에 세워진 장승은 기존에 서있던 목장승 4기 외에 새로 2기와 솟대 2기를 세웠는데 이날 속초문화원장과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복판이 쓰여졌으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보광사 장승의 복판에 쓰여진 번영대장군, 통일대장군, 화합대장군, 풍어대장군 등 지역주민들의 마음속 염원을 이룩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장승으로 함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생의식을 영광호에서 함께 하며 많은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장승제를 지내면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文

석문 스님/보광사 주지

인터넷과 문화예술, 지역정보화

설악지역정보센터/엄경선



■ 사이버 공간의 신인류 문화

세상이 무섭게 변한다. 만 1년만에 속초에 인터넷 게임방이 30여개나 들어섰다. 못 잡아도 속초에서 6백여대의 컴퓨터에 6백여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모니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게임방 모니터 화면 속에서 또다른 모니터 앞의 사람과 원격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채팅(컴퓨터 대화)을 하고 있다.

최근에 개봉된 어느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이 전화선을 타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징적 의미로는 허황된 것이 아니다. 몸만 모니터 앞에 있을 뿐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컴퓨터와 통신선로를 헤집고 있다.

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신인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5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조금만 인터넷을 접해보면 아무리 컴퓨터를 모른다 해도 금방 그 유용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다기능 매체로서의 인터넷

인터넷은 그 활용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분야를 내세워 설명하기 어렵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격 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전자우편과 화상통신용으로 사용

하면 신개념의 통신수단이며, 게임방의 오락용으로 사용하면 오락기가 된다. 그리고 종이도 없이 오직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과 잡지, 언제든지 듣고 싶은 방송을 시간



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등 언론과 대중매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한편 예전에는 도서관 열람카드를 일일이 뒤지고, 서점에서 한두시간 정도는 족히 뒤져야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책 목록을 찾을 수 있고, 전국 유명 서점의 책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

물론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문화가 긍정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만 보기 어렵다. 시간과 공간, 거리를 초월하는 인터넷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지만,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첫째로 인터넷에 대한 맹신과 과열양상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특정분야에 대해 너무 쉽게 과열양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 분야

가 기업의 성패와 연결되거나 대중문화와 결합하면 거의 광적이거나 맹신적으로 돌변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성장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통계수치는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열의 분위기에서 인터넷을 모르던 이제는 세상일을 모르는 듯 소외감마저 느낀다. 인터넷이 마치 슈퍼마켓에서 파는 아이들 과자처럼 선전되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인식되고 있다. 과열양상이 자칫 인터넷을 만능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그러다 잘못되면 아예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분위기로 반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두 번째로 정보는 넘쳐도 쓸만한 정보는 없고 정보의 오류에 책임질 단위가 없다. 끊임없이 깜박이는 모니터 화면을 접하는 것은 깜박임이 없는 책을 들여다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모니터 화면의 깜박임은 컴퓨터 사용자를 조금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에 올려지는 정보의 양은 넘쳐나는데(--국내에서 하루에 인터넷에 게시되는 홈페이지는 3백여건 이상), 차분히 한 정보에 집중할만한 시간도 많지 않고,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도 마음의 여유를 두지 않는다.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를 접할 때는 끊임없이 이 정보에서 저 정보로 훑어보기를 반복한다. 한편의 책을 펼쳐놓고 집중해 읽는 문화와 백과사전과 다름이 없는 '인터넷'을 통해 글을 읽는 것은 문화적인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검증되지 않는 정보제공자가 워낙 많아지다보니,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단위는 없다. 인터넷은 완전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자칫 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인터넷이 상업성과 오락성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의 눈길을 잡으려니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가볍고 오락성이 짙으며, 자극적이다. 괜히 진지하거나 어려우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한다. PC통신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사이버도 그렇고, 음악과 영상도 모두 그렇다. 사이버문화가 시간과 공간, 거리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자칫 상업성과 오락성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 추천 인터넷 문화 예술 정보

이미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면 지금까지 접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엔진>에서는 <추천사이트>를 선정해 운영한다. 믿을 만한 정보가 들어 있는 곳이다. 국내 문화예술정보 중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야후 코리아>와 <네이버> 등 국내 검색엔진의 등록된 정보에서 선별해서 추렸다.

▽ 시와 시인들

<http://www.poet.co.kr>

해방 이전의 시부터 90년대의 시, 신작시, 명시, 시의 원리, 시문학상, 동인지, 시인 주소록, 시인 및 작가 검색, 동시, 동화 등 소개.

▽ 시인의 마을

<http://www.simaro.org>

추천시를 자유롭게 등록가능, 작가,

작품, 키워드별 검색가능, 독자가 쓰는지, 사랑받는지 100, 작가목록 제공.

▽ 디지털 창비

<http://www.changbi.com>

창작과 비평사의 모든 책과 저자들을 사진자료와 함께 검색가능, 온라인 구입, 새로운 책, 창비사의 활동 및 신간소식 제공.

▽ 한국의 미술

<http://art.centerworld.net>

한국의 화가, 화랑, 미술관, 한국 현대 미술사, 관련 연구소, 단체 등의 정보 제공.

▽ Inter ART Korea

<http://www.artin.com>

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나라 작가들의 갤러리, 미술관련 동향과 정보 등 게시

▽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의 9개 국립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 200여점을 그림과 함께 안내. 기타 문화정보 수록

▽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

전시회 안내, 소장 작품 검색 및 감상, 작가 검색, 교육과 행사, 어린이 미술관, 출판물 안내.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경복궁내에 위치한 민속문화의 연구, 수집 보존과 문화교육, 생활문화 전시관으로 상설전시실 소장유물안내, 세시풍속 검색 안내.

▽ 일본속의 한국문화재를 찾아서

<http://mouse.chungbuk.ac.kr/remains/>

일본에 유출되어 일본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한국 문화재에 대한 자료 소개.

▽ 메가람

<http://megalam.chollian.net>

자연생태웹진으로 동물, 식물, 곤충, 새, 물고기, 동물원, 식물원, 꽃산행, 탐조여행, 동강 등을 다룸.

▽ 한국의 산들

<http://mountains.new21.net>

한국의 명산 소개 및 등산정보와 사진, 테마 및 계절산행, 등산지도, 사찰, 계곡, 온천 등 여행정보 제공.

▽ 한글재단

<http://www.hangul.or.kr>

한글 및 전통문화와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한글의 의미, 훈민정음의 창제과정과 해설, 한글자모, 고전소개, 집현전과 세종대왕 관련 자료 제공, 한글관련 책 소개 및 대학 사이트 링크.

▽ 신나는 소리나라의 음악세계

<http://www.sorinara.co.kr>

음악이론, 악기, 서양음악, 음악사, 용어사전, 국악 및 전통음악, 어린이를 위한 초등음악교육 상담실.

▽ 코리아 키드 인사이트

<http://korea.insights.co.kr/foorkid/korean>

한국 및 세계의 어린이에게 한국의 전통역사, 민족, 국토와 자연, 사회상, 생활, 예술과 음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http://www.fpcp.or.kr/>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활용

과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전수회관, '한국의집', 전통문화교육, 발굴조사사업, 서울놀이마당, 한옥마을 소개.

▽ 코리아 인사이트

<http://korea.insights.co.kr/korean>

다양한 문양의 한국자수박물관과 사물놀이 소개, 한국인의 사고방식, 의식주, 언어생활, 전통, 풍습을 알수 있는 사이트

▽ 이원복의 만화공간

<http://www.wonbok.com>

먼나라 이웃나라, 자본주의 공산주의, 세계의 만화 만화의 세계,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를 비롯한 저서와 칼럼, 일러스트 수록.

▽ 엄마랑 아기랑

<http://agilang.co.kr>

유아와 엄마를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로서 한글 및 숫자교육, 놀이자료 등 소개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130여만 권의 일반도서, 학위논문, 교서 등을 서명, 저자명, 주제어로 분류 검색,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

▽ 사이버문화관

<http://www.mct.go.kr>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향토문화원, 지역정보센터의 멀티미디어 DB 및 정보 제공.

▽ 아트 앤 아츠

<http://www.axisoft.co.kr/arts/kwelcome.html>

미술전문 데이터베이스, 국내활동 작가와 작품 소개, 이야기 미술사 등 제공

■ 지역정보화의 현 수준과 전망

속초를 비롯한 설악권지역과 관련해 지역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총 140개 정도. 이 중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북지역의 학교들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관광업체(콘도, 모텔, 음식점 등)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자도 상당히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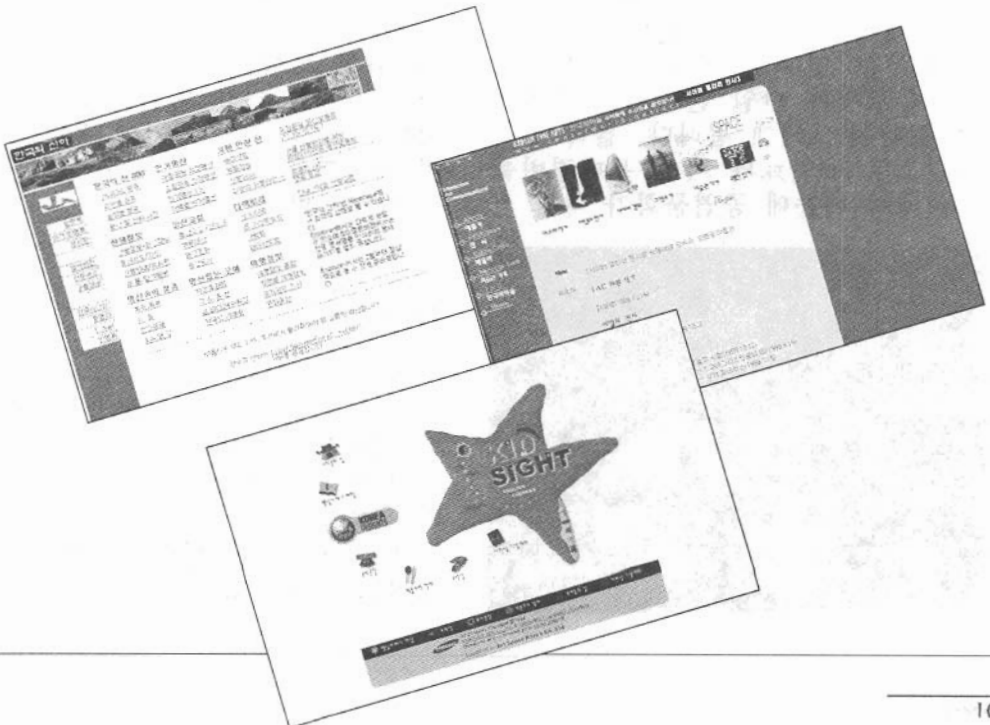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발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는 무엇보다 전국적인 정보수요가 있는 관광분야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앞서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악지역정보센터에서도 지난 1999년 1월 15일 설악권의 관광정보를 한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악관광종합정보 <http://toursorak.com>>을 오픈했다. 1년이 채 못된 지금 15만명이 접속해서 명실상부한 설악권의 대표적인 관광정보사이트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홈페이지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데,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http://www.getmadang.co.kr>>에서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터넷 정보제공은 아직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한 상태이다.

앞으로 지역관광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정보의 인터넷 서비스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설악권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고자 할 때 국내 홍보만이 아니라 국제홍보망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정보전달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정보 서비스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文**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

최근 몇 년 전부터 영북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콘서트가 심심찮게 열리고 있다. 자신들의 열기를 발산할 만한 장소를 모처럼 만난 청소년들의 함성이 공연장을 뒤흔드는 광경, 무대 위의 열정과 객석의 탄성이 하나로 어울어지는 공간. 무대의 뒷편에서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젊은이들을 만나보자. <편집자주>

지난해 11월 속초문화회관에서 단일공연으로 최대의 인원이라는 1천6백명의 청소년들을 불러 모은 윤도현밴드 콘서트가 열렸다.

대부분의 공연이 5백명의 관객을 끌어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공연을 준비했던 22C기획사(대표 고병관)는 재정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영북지역 업체들로서는 단일 콘서트의 후원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입장료만으로 출연료와 기타 부대경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연문화가 아직 성

숙되지 못한 지역의 형편상 공연기획은 시작부터 손해인 셈이지요.”

윤도현밴드 콘서트는 22C기획에서 준비한 공식적인 첫 무대였지만, 고병관씨와 서상표씨의 공연기획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97년과 98년 두차례에 걸쳐 열렸던 블랙홀 콘서트에 이들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작업에 참가했다.

이때의 경험은 이들이 이후 영북지역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공연기획을 여는 시발점(물론 이전에 유명연예인의 영북지역 공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이 되었다.

고병관씨(31세)는 영북지역 공연기획의 어려움으로 가장 먼저 공연장의 부재를 꼽는다.

다른 도시들의 1/3 수준에 불과한 지금의 입장료를 고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석 이상의 공연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다.

윤도현밴드 콘서트의 재정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과 한 달





뒤에 98년 12월 속초시 주최, 춘천 지방검찰청 속초지청 후원으로 열린 '김덕수 사물놀이패 초청공연'의 기획을 맡아 진행했다.

“주위에서 돈도 안되는 일들을 왜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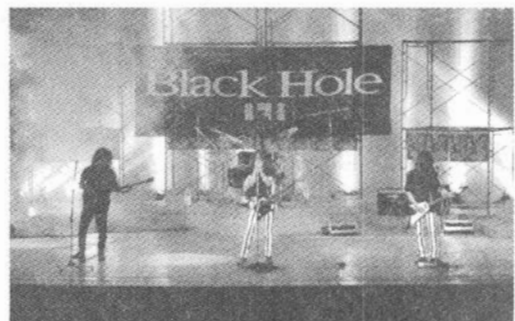
그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스쿨밴드의 리더보컬을 맡아 10여년 전에 당시 대원극장 등 무대에 직접 서기도 했던 서상표 공연기획팀장(31세)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청소년들의 폭발적인 열기를 발산할만한 공간과 기회가 적다는 것이 늘 안타깝다고 말한다.

“공연 관람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맛 본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1년에 2~3회 정도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초청 공연으로 지역에 콘서트 무대를 만들고 공연문화를 일궈가고 있는 22C기획은 여러 번의 공연기획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청소년 락 그룹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유명인들의 초청 공연에만 공연기획을 한정짓지 않고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갖지 못해 무대에서 서지 못하는 지역의 락그룹들을 위한 무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과 2000년 4월 아마추어밴드들의 연합 공연과 7월에는 인디밴드 8개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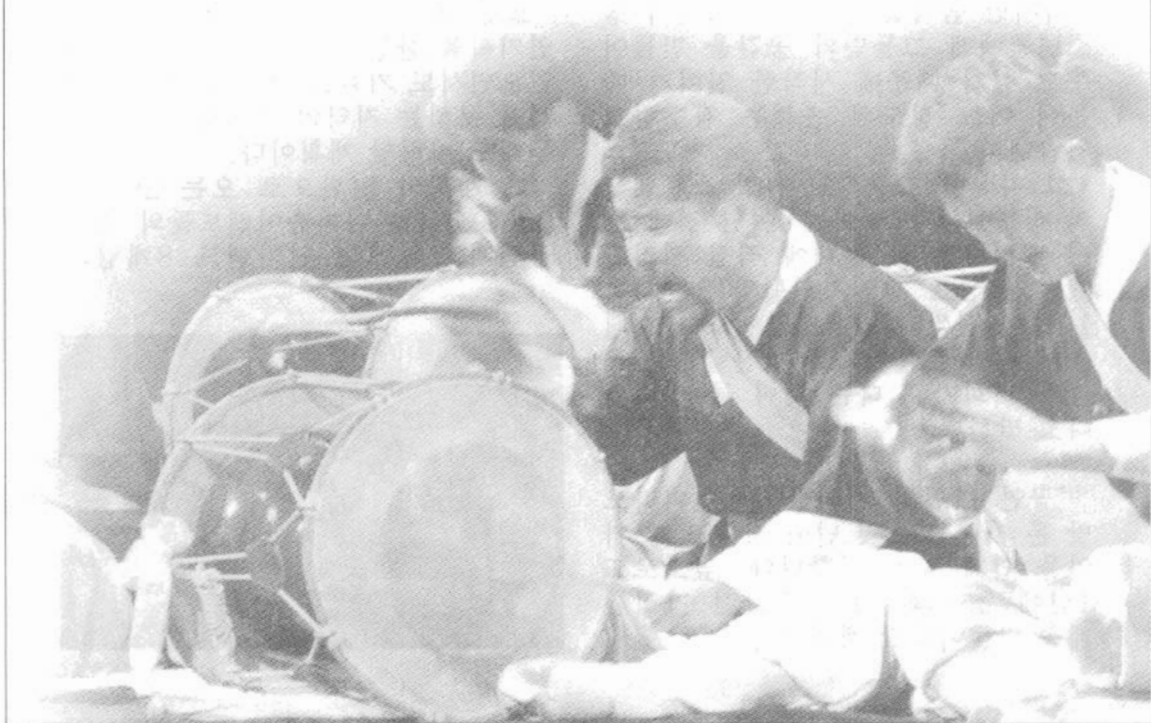


연합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그들은 대형콘서트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믿고 한국의 '우드 스타'를 영북지역에서 만들어 나갈 꿈을 꾸고 있다.

■ 22C기획에서 준비했던 공연

- 1998년 11월 제1회 윤도현밴드 콘서트
- 1998년 12월 김덕수 사물놀이패 초청공연
- 1999년 7월 속초시민 위안잔치(음향, 조명 지원)
- 1999년 12월 26일 아마추어 4개 밴드 공연
- 2000년 1월 8일 제2회 윤도현밴드 라이브콘서트
- 2000년 4월 아마추어 밴드 6개팀 연합 콘서트
- 2000년 7월 말 낙산해수욕장 아마추어 인디밴드 8개팀(예정)
- 2000년 8월 중순 한국 락 페스티벌 추진계획(대략 30개팀, 예정) ㉠



지역을 알리는 우리신문 — 설악신문



장재환/설악신문 편집국장

2000년 5월이면 설악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짧지않은 기간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달려온 길이기에 더욱 길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되돌아 보면 어떻게 왔나 싶다.

지난 90년 5월 교동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속초신문'이란 제호로 지역사회에 첫선을 보인 이후 초창기 두차례의 휴간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속초신문'이란 제호는 우여곡절 끝에 '설악신문'으로 바뀌었고, 신문판형도 창간 당시의 타블로이드판으로 자리매김됐다.

지난 92년 초까지만 해도 원고몽치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 여관에 머물면서 이틀간 인쇄소를 오가며 신문을 제작해야 했다. 지금은 컴퓨터 신문 편집기가 있어 조판 작업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같은 번잡함은 없어졌다.

2000년 5월이면 설악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짧지않은 기간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달려온 길이기에 더욱 길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되돌아 보면 어떻게 왔나 싶다.

그렇지만 작업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적은 인력에 밤샘작업 하기가 일쑤고 작업시스템도 수공업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영상태도 아직 안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쪼들리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지역에 꼭 필요한 질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임직원들의 의지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신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이런 저런 어려움도 마다않고 한 길을 가고 있다. 지역에서 많은 신문이 창간과 폐간을 거듭한 속에서도 설악신문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



을 바탕으로 영북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 물론 실악신문을 구독해 주고 광고를 내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 또한 큰 힘이 됐다.

실악신문은 잘알다시피 속초·고성·양양지역에 발행되는 지역신문이다. 130여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10명의 직원들이 매주 타블로이드판 24면을 발행하고 있다. 실악신문을 거쳐간 직원수는 지난 9년간 1백여명에 이른다.

영북시군 행정과 의정의 감시·비판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보호, 지역사회 이익 대변, 지역문화 육성,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도덕성 회복을 기치로 촌지와 부당한 광고수주를 거부하고

성역없는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문사 운영 또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이뤄짐에 따라 전체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를 한다. 참고로 실악신문은 '바른지역언론연대'에 가입된 회원사로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지역신문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올해 동아투위에서 주는 안중필 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플뿌리언론'인 지역신문의 창간 배경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의 변화와 바른 언론운동과 연관이 깊다.

87년 6월항쟁 이후 불완전한 형태지만 정기간행물법이 개정되면서 신문발행이 자유로워졌다. 지방자치도 추진됐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정치의 지방화가 이뤄지면서 지역신문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자치는 지역신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는 지역정보의 습득과 의견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나 언론은 철저하게 중앙집권화에 억눌려 있었다. 특히 기존언론들은 지면제한이나 매체 성격상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작은 시군의 주민들은 언론으로부터 소외돼 왔다.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않았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중앙이나 지방이냐에 따라서 뉴스의 가치가 달라진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지역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탄생

을 부추겼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신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또한 기존 언론으로부터의 소외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에는 인식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단순 정보 전달이나 관급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정과 의정 및 지역사회를 비판 감시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주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주민참여를 끌어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 땀땀히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체를 필요로 하고 지역신문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만들어진 것이다.

단순 정보 전달이나 관급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정과 의정 및 지역사회를 비판 감시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주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다.

설악신문은 아직 미진하지만 이같은 기능을 주요 편집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생선회축제'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해 여론화 시켰으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내놓기도 했다. 물론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와 항상 대립관계만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지역신문이 주민과의 가교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설악신문의 편집방향은 철저히 지역적 관점에서 출발하며 그 내용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중앙·지방일간지의 펜이 닿지않

는 지역의 작은 소식과 정보는 물론이고 행정·의정의 감시 비판, 지역사회 문제나 비리고발 내용도 깊이있게 전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의 소개 및 분석, 의정활동, 정치인 동향, 지역경제활동, 생활경제, 사건·사고, 향토문화, 지역교육, 사회단체·인물 소개 등 다양하다.

한마디로 지역신문인 '설악신문'은 언론의 기본적 기능인 정보전달, 사회감시 및 비판, 오락 제공을 지역적 관점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민주적인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의 주요 기능을 하게된다. 지역신문은 주로 주간단위로 발행되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전달 보다 기획·심층보도에 비중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적 성격도 갖는다. 주요 사건의 배경이나 뒷얘기 등을 자세히 실어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지역신문은 지역성과 심층성을 편집의 기본방향으로 삼는다.

우리나라 지역신문 역사는 짧다.

10여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아직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여기서는 설악신문과 연관된 과제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편집방향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신문과 다른 무언가가 없이는 지역독자들의 눈을 끌 수가 없을뿐더러 상품으로써 경쟁력을 갖기도 힘들다. 단순히 애향심에 호소해 구독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사 내용이나 형태가 기존신문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새로운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다.

진실보도를 전제로 기획심층성과

‘설악신문’은 언론의 기본적 기능인 정보전달, 사회감시 및 비판, 오락 제공을 지역적 관점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민주적인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의 주요 기능을 하게된다.



지역성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악신문 기자들은 행정이나 기관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발로 뛰며 주민들의 삶 속에서 기사를 찾는다. 또한 신문제작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바른지역언론연대 차원의 직원연수와 대학·언론재단이 공동으로 여는 언론아카데미에도 참가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이나 신문제작에 주민참여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신문은 단순히 몇몇 지역신문 종사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돼야 한다. 지역신문은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익만을 좇는 일반 사업체와는 구별이 된다.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 형태의 소유구조가 바람직 하다.

참여형태는 주주만이 아니라 신문

을 구독하고 지역신문을 통해 자신의 사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설악신문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또한 신문의 편집도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 주민들이 편집방향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신문 기사에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매체로써 지역신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설악신문은 이를 위해 오피니언 면을 늘리고 편집자문위원제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여론의 공론화를 위해 지역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심포지움이나 좌담회 등을 많이 개최할 계획이다. 설악신문 지면이 여론형성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밖에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쇄신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언론의 정도를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악신문은 우리 마을의 신문으로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구독과 광고를 하고 주민들이 만드는 주민의 신문이어야 한다.

소규모의 살림이지만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설악신문의 앞날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창간 10주년을 앞둔 설악신문 임직원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밝은 미래를 위해 힘없이 달려갈 것이다. 文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 발간

(2000년 발간 계획)



오윤근/속초문화원 이사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월남민의 정착지인 우리 속초시에서, 속초문화원이 주관하여 속초의 뿌리가 되었던 피난민들의 정착사가 2000년에 발간 될 계획이다.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가칭)”는 월남 1세대의 이미 지나버린 회고의 기억만이 아니라, 2세대 유년시절의 기록이자, 3세대 성장의 역사요, 또한 두고 온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한 곳에서 지켜보며 가슴 저려했던 망향의 기억을 담아 봄 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월남민의 정착지인 우리 속초시에서, 속초문화원의 주관으로 속초시의

뿌리가 되었던 피난민들의 정착사가 2000년에 발간될 계획이다.

속초지역의 향토사를 익힘에 있어 피난민들의 정착사는 그야말로 속초시의 성장과정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부산항을 비롯해 동해안 각 어항에 남하했던 피난민들은 북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북상하기 시작했으며,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고향을 영영 멀리하고 폐허의 땅 속초에 이른 것이다.

당시의 속초는 3천명 안팎에 불과했던 인구가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2만여명으로 늘었지만, 상설시장은 고사하고 생산공장이나 일할 수 있는 직장은 물론 전무한 상태였다.

피난민들은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하고, 쪽배로 고기잡이를 하고, 군 노무, 군수품 장사 등 실로 삶의 전쟁터였다.

피나는 삶의 노력은 점점 생활의 안정을 가지면서 2세대를 위한 교육이 시작되고, 외지에 유학을 보내는 여유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피난민들의 한 촌락은 군락으로 발전, 오늘에는 10만에 가까운 도시로 성장하게 이른 것이다.

이제 이들이 전쟁터에서 헤엄쳐 살아난 그 참상과 속초건설에 이바지한 그 역사를 되새겨 보자.

지난 4월 3일 재속초 이북5도민회(회장 이인철, 재속 함북도민회장) 대표 30여명이 속초문화원에서 모임을 갖고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를 태동 시켰다.

속초문화원이 주관하고 재속초 이북5도민회와 속초시가 후원(후원회장 김철섭, 재속 함남도민회장)한다.

속초문화원과 발간추진후원회는 피난민들이 고향을 떠나던 긴박했던 상황, 남하에 이용한 교통수단, 남하하는 동안에 겪었던 고초와 정착지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던 이야기 등을 담은 원고를 접수한다.

원고는 각 도민회 사무국에서 받고 있으며, 원고 작성요령은 자신의 경험담을 있는 그대로 메모식으로 기술하면 된다.

(문의전화 : 0392. 632-1231, 636-6339)

피난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사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웠던 예전의 기억이지만 그 기억들이 모여 속초시의 근간을 이루는 큰 흐름이 되고, 속초시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기자.

피난민들의 노력과 희생속에서 속초시의 역사는 시작됐으며, 이제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2세대, 3세대들이 속초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고향을 멀리하고 반세기를 흘러보내는 피난민들의 역사는 이제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로 묶어져 후세들에게 더 새로운 그들의 삶과 속초건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文**

20세기 강원인의 역사

타임캡슐 매설 - 속초의 또하나 명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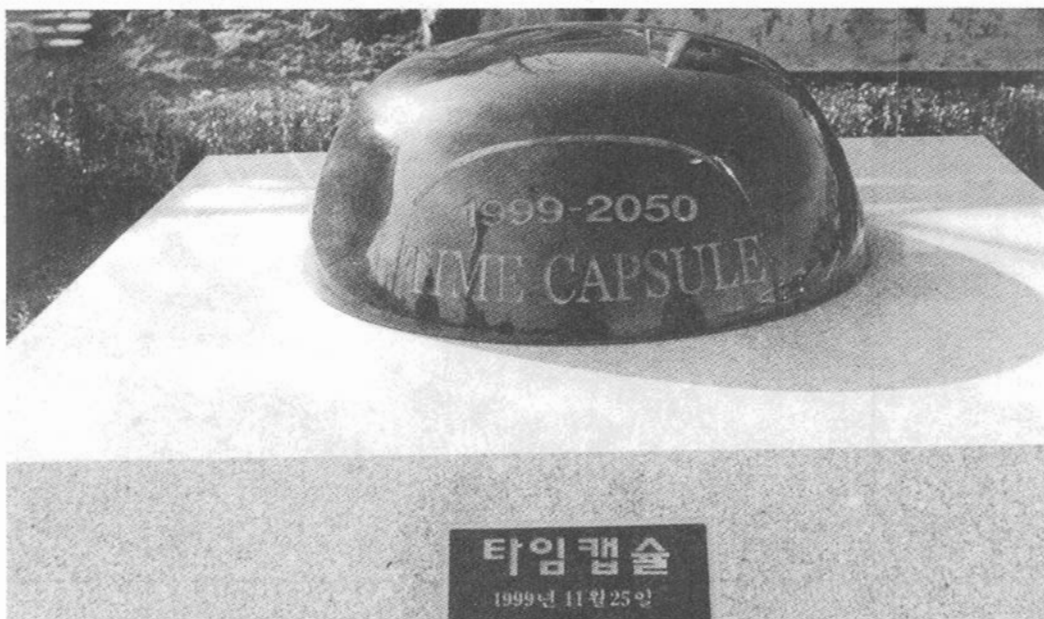


200만 강원인들의 20세기 삶의 기록과 21세기의 꿈을 담은 『타임캡슐』이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 주제관 앞에 매설. 또 하나의 강원역사의 장을 만들었다.

타임캡슐은 『강원 1000년사』를 마감하는 이정표이고, 역사적 교훈을 담고, 2000년을 살아갈 강원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주옥같은 문화유산인 것이다.

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함께하여 만들어, 지난 11월 25일 매설한 이 『타임캡슐』에는 관내 246개 기관·단체를 비롯해 초등학생부터 80대 할아버지의 편지나 가훈, 남기고 싶은 글 등 모두 2,066점이 들어있다.

속초의 상징 조형물을 더한 이 타임캡슐은 50년 후인 2050년 10월 24일 개봉돼 참여자의 가족은 물론,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돼 그 뜻이 무궁 할 것이다. **文**



(사진 강원일보사 제공)

문화광장

CULTURE

속초시 문화상 수상인

서예 한마당

속초예총 소식

민예총 소식

만화만평 조영길/강원도민일보 편집부 기자

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11회 속초시 문화상 수상인 문화예술을 비롯한 4개 분야의 공로인들



■ 문화예술상 김영복(金榮福)씨

김영복씨는 지난 92년 제3대 속초예총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영북지역 최대의 순수예술 축제인「종합예술제」를 정착시켰고, 지역예술인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속초예술인친목사업」, 「각종전시회」, 「청소년사업」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시민정서함양 및 문예육구 추축에 기여하여,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 및 대외적인 위상 정립에 노력을 하였다.

김씨는 한국미술협회 제2, 4대 속초지부장·한국예총 3대, 5대 속초지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강원도 미술대전 운영위원이며, 강원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이다.

■ 교육학술상 김택인(金澤仁)씨

김택인씨는 61년 경북 후포 고교 교사로 교육계에 몸을 담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을 위한 굳은 신념으로 인재 배출에 주체적 역할을 했다. 학생 연극제 극본, 기획연출을 담당하여 속초연극을 태동케 하였고, 문인협회를 구성, 초대회장에 취임하면서 문화도 양성, 교육자료(교육자치제 해설, 언어순화, 초등학교 한문, 의식개혁 훈화 등)



를 펴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학력배가 증진 및 교무실 사무자동화로 20세기 정보화 교육에 대처하는 교육풍토 조성을 했다.

또한, 각종대회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98년 제32회 대통령배 전국고교배구대회 우승으로 명예를 드높였으며, 같은해 제19회 회장배전국중고교 아마츄어복싱대회에 종합 우승하여 체육발전에 공로가 큼.

김씨는 양구여자고등학교장(84. 3.~91. 3.), 속초여자고등학교장(91. 3.~93. 3.)을 역임했으며, 올 8월31일 속초고등학교 교장을 마감으로 퇴임했다.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상 김태영(金兌泳)씨



김태영씨는 해방 후 청년단장과 읍장으로 고등학교 설립, 영랑·중앙·청호시장을 설립하고, 국민운동 촉진회장과 지부장 재임시 각종 관공서 유치, 농업협동조합 건물을 설립하여 조합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였고, 88올림픽·국제잼버리대회 추진 공로와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 기여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김씨는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장, 88년 국제잼버리대회 추진위원장, 83년도 88올림픽 속초시 추진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속초시노인회장이 다.

■ 체육부문상 조경식(趙慶植)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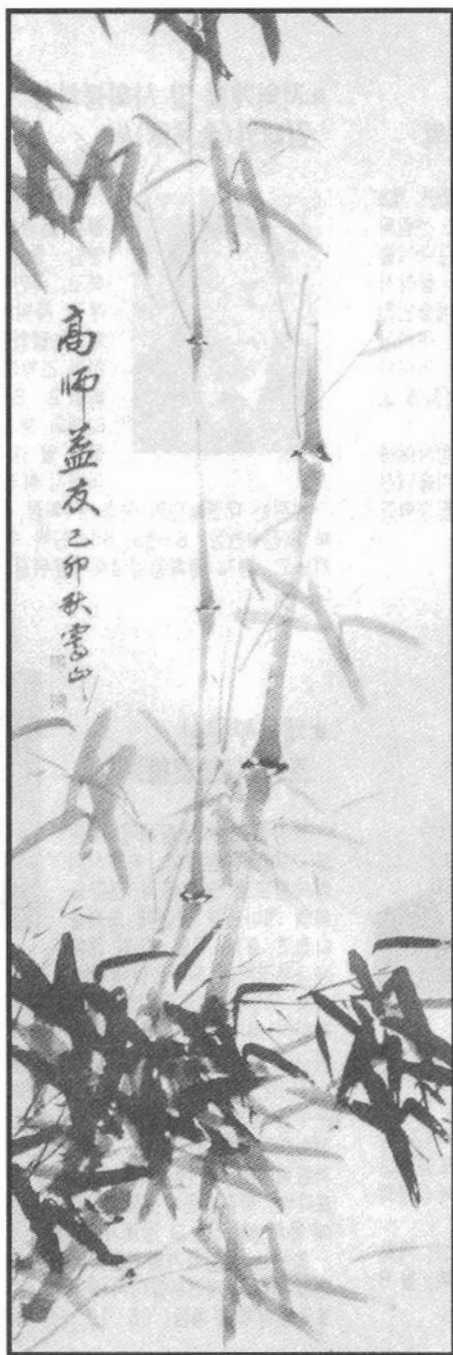


조경식씨는 생활체육 강원도 게이트볼연합회, 속초시의회의원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게이트볼 발전에 초석을 다졌고, 97년 6월 제8회 문화체육부장관배 게이트볼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 뱃부시 및 대만 타이베이 시간에 게이트볼 경기로 민간친선외교를 펼쳤다.

장기간 헌신적인 지도와 지원으로 속초시 게이트볼을 우수한 팀으로 신장시켰고 생활체육 강원도 게이트볼 연합회회장으로 18개 시·군의 많은 회원을 영입하는 등 저변확대의 혁신을 하였다. 특히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대비, 제7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대회를 속초시에 유치 하는 등 공로가 크다.

조씨는 설악동개발위원장('95~98. 3)을 역임하고, 현재 아시아게이트볼이사(97. 3.~) 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 부회장('96. 10.~), 속초시의회의원이다.

서예한마당



霽山 池應準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연4회)
- 중화민국 대북시장 공로상
- 한중 서화부흥협회 이사
- 한국서가협회 강원지회 감사
- 경동대학교 서예부 강사
- 속초문화원 서예강사

서예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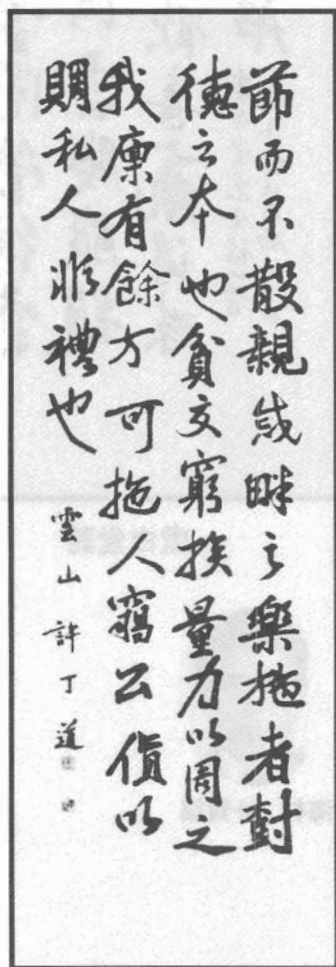
夏 (金克己)



原齊 崔鍾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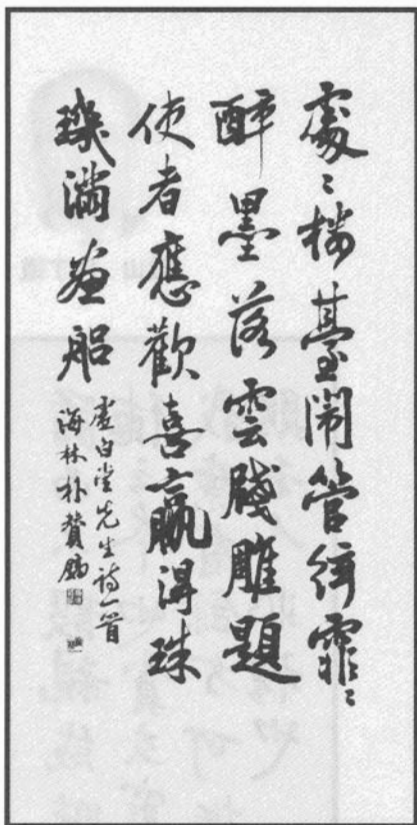


雲山 許丁道



樂施者樹德之本

서예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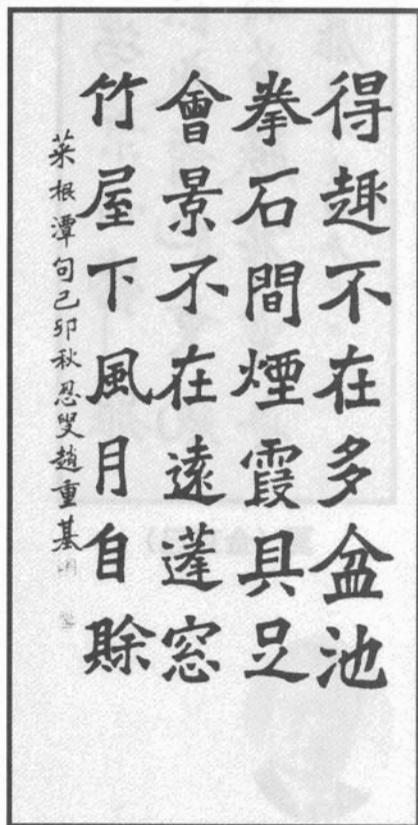
虛白堂詩



海林 朴贊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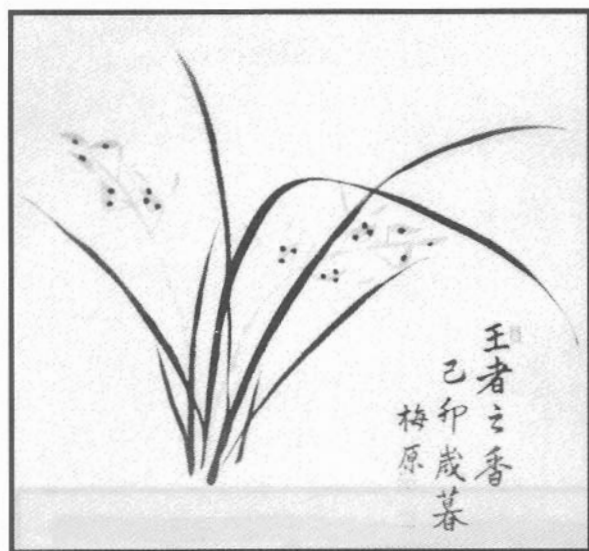


忍叟 趙重基



菜根潭句

서예한마당



寶香 金淑子



梅元 李永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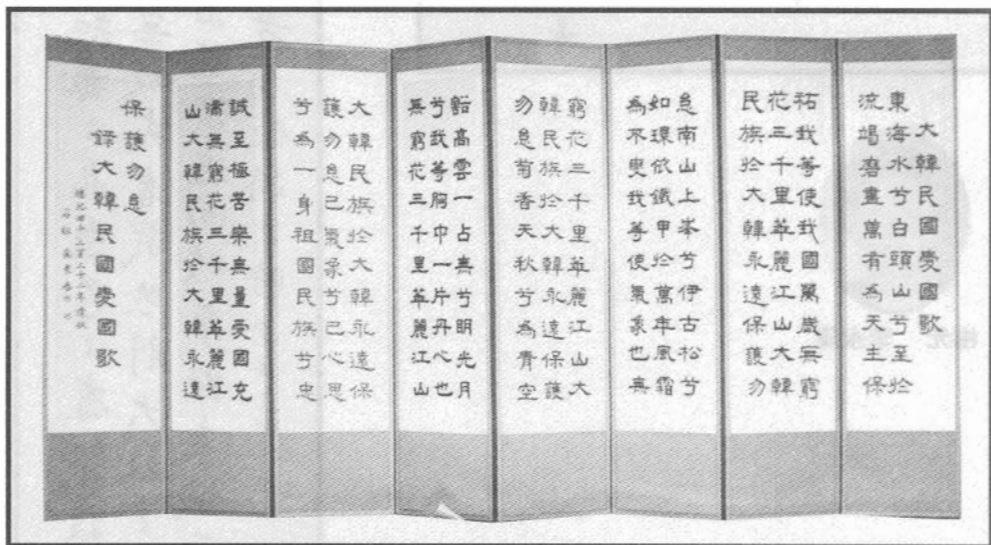
故知壽之凡思已之庸鄙投其自趣
 能無疑或者哉然則大教之興基乎
 西土騰漢連而皎夢照東域而流慈
 昔者分形跡之時

寶香 金淑子

서예한마당



石松 崔東春



■ 속초예총 소식 ■

'99년도 한국예총속초지부 주요사업 소개

제10차 예총속초지부 정기총회

예총속초지부 제10차 정기총회가 속초문화원 사랑방에서 1월 20일 개최되었다. 장규호 연극협회장이 예총 6대 회장으로, 김광희, 심연홍 간사가 각 부회장으로, 김동만, 최낙민 간사가 감사로 선출되었다.



제9회 학생예술상

2월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지난 한해동안 예술문화 부문에 뛰어난 기량으로 지역을 빛낸 지역 중, 고교 졸업생들을 선발해 졸업식에서 학교별로 학생 예술상을 시상, 속초예총 회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 속초중학교 / 은용근
- 설악중학교 / 유민수
- 속초여자중학교 / 안상희
- 설악여자중학교 / 김꽃보라
- 속초고등학교 / 홍영완
- 속초여자고등학교 / 유은미
- 속초상업고등학교 / 강영주
- 양양여자중학교 / 장정인

엑스포 D-200일 기념 속초시민 노래자랑

엑스포 D-200일 기념 정월 대보름맞이 속초시민 노래자랑이 3월 2일 엑스포 대회장내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1, 2부로 나누어서 각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다리밟기, 시립합창단공연, 아취점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던 행사였다.

각동 대표2팀 총16개팀이 출전하였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내역	동명	성명	곡명
대상	영랑	정경원	남은 먼 곳에
금상	금호	최영애	흑산도가가씨
은상	청호	최춘자	찰랑찰랑
동상	동명	정미랑	열정
장려	금호	고정애	추억의 남자
장려	노학	최은미	달타령
인기	동명	박지식	덕수궁 돌담길

제16회 강원연극제 개최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강원연극인 최대의 축제인 제16회 강원연극제가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은 극작가 오태영, 극단 혼성대표 김경태, 장규호 속초예총회장이 맡았으며, 대회 최우수상팀은 청주에서 열리는 제17회 전국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수상현황은 아래와 같다.

〈수상내용〉

- 대상(태백-풍금소리)
- 최우수상(춘천-불감증)
- 우수상(속초-작은할머니, 강릉-관노)
- 연출상(속초-김귀선)
- 연기상(태백-김대자, 원주-이지현)
- 무대기술상(원주-김탄일, 속초-김영래)

제10회 속초종합예술제

제10회 속초종합예술제가 예총속초지부(회장: 장규호)가 주최하고 예총소속 단일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6개협회지부는 문인협회(지부장: 윤홍렬), 미술협회(지부장: 김광희) 연극협회(지부장: 박영미) 연예협회(지부장: 김동만) 음악협회(지부장: 심연홍) 사진협회(회장: 최홍영)로, 연극공연을 시작하여 24회 미술협회전을 마지막 사업으로 근 1개월간 속초시내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특히 금번예술제는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D-100일에 맞춰 사업을 집중시켰다.

■ 속초예총 소식 ■

제7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15일 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강원도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7회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본선 진출자 30명이 경연을 벌인 결과 대상(한국음악협회 이사장상)에 장혜진양(교동초등학교 3학년·피아노 3-4학년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중국 길림성 훈춘시 문화체육부국장 초청강연회

중국 길림성 훈춘시 문화체육 부국장(이체순) 초청강연회가 5월 28일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및 일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변 조선족 문화예술인의 활동" 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제5회 주부백일장

제5회 주부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29일 엑스포 대회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번대회는 '99강원국제관광 엑스포 D-100일에 맞춰 주부백일장, 학생백일장,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청소년건강가요제를 엑스포장 대회장에 사업을 집중시켜 실행하였다.

주부 시 장원 백미선(교동3-9 정복연 모) 차상 오미경(영랑초3-1 방수원 모) 차하 김정희(교동3-7 김유주 모) 차하 김용주(영랑4-봉송아 김소연 모) 장려 전정화(영랑3-봉송아 장광수 모) 김성희(교동3-1 김경철 모) 주부 산문 장원 안점이(영랑3-4신석영모) 차상 엄옥선(교동1-11 유별 모) 차하 이순희(교동 3-4전혜인 모)

장려 김태경(영랑 2-4 이경주 모) 임기옥 (교동초5-8 박민환 모)

제10회 학생백일장

제10회 학생백일장이 주부백일장과 같이 5월 29일 엑스포 대회장에서 개최 되었다.

본 백일장에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시. 산문에서 각기 바다, 선물, 산, 신발, 엑스포 손님 맞이, 속초의 미래 등의 시제가 주어졌다

- 초등학교 저학년
- 시 <총58명 시상>장원 심혜지(청대초3-2)
- 초등학교 저학년
- 산문 <20명 시상>장원 이현정(교동초 3-5)
- 초등학교 고학년
- 시 <58명시상>장원 홍성애(교동 4-8)
- 초등학교 고학년
- 산문 <33명 시상>장원 신은영(영랑 6-개나리)
- 중학교 시 <5명 시상>장원 박배운(설악중1-1)
- 중학교 산문 <10명시상>장원 박은혜(속초여중3-2)
- 고등학교 시 <29명 시상>장원 고희령(양여고1-1)
- 고등학교 산문 <15명 시상>장원 박형환(속초고2-2)

제10회 전국학생미술 실기대회

제10회 전국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5월 29일 문협백일장과 더불어 지역 청소년 2,5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엑스포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 유치부
- 최우수상 (5명)이승훈, 이은성, 박 철, 조준호, 유나연
- 우수상 : 김보연 외9명
- 특 선 : 김찬영 외 29명
- 장 려 : 정영택 외64명
- 1부(초등학교 1~2학년)
- 최우수상(10명) 교동초 박민우 외 9명
- 우수상 : 설나라(강현초) 외 19명
- 특 선 : 강현 외 49명
- 장 려 : 차병철(속초초) 외79명
- 2부(초등학교3~4학년)
- 최우수상(10명) 교동초 구아림 외 9명
- 대표초 조재숙

■ 속초예총 소식 ■



우수상 : 최상은(영랑) 외19명
 특 선 : 김나영(교동) 외49명
 장 려 : 안경모(속초) 외69명
 3부(초등학교5~6학년)
 최우수상(5) 교동 장도연 외 4명
 우수상 : 교동 조인정 외9명
 특 선 : 영랑 광규 외34명
 장 려 : 교동 남궁정임 외49명
 중학부
 최우수상(5) 속여중 안은비 외 4명
 우수상(7) 설여중 박민희 외 6명
 특 선 : 속여중 외12명
 장 려 : 속여중 엄지연 외5명
 고등부
 최우수상(5) 속여고 남선이 외 4명
 우수상(7) 속고 박정훈 외 6명
 특 선 : 속여고 이연실 외12명
 장 려 : 속여고 손지혜 외13명

지도교사상 : 4명(한국미협이사장)
 1. 유치부 - 중앙미술학원 (백종숙)
 2. 초등부 - 교동초등(전)
 3. 중등부 - 속여중 (정광섭)
 4. 고등부 - 속여고 (신동진)

제10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제10회 청소년 건전가요제가 5월 29일 엑스포 대회장에서 1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상(김영민 동광농공고3) 금상(배인복 거진공고3)
 은상(황은정, 장은정, 권현주, 장은영-설악여중3)
 동상(이경인, 김정진, 윤영은, 함효정-속여중3)
 장려(김효덕 동광고교3, 박민철 속초고3)
 인기(김태복 설악여중2)

제8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8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한국희곡분과위원인 극작가 오태영,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이며 극단비파 대표인 연출가 김철리, 장규호 속초예총 회장이 맡았다.

아울러 도내 12개 고교가 참가한 금번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속초여고는 10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국청소년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출전권 및 한국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대회참가비 200만원도 함께 주어졌다.

제3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3회 설악청소년 음악회가 6월 12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장혜진 (교동초등 3 - 피아노: 대상)
 김은영 (속초여중 3-바이올린: 금상)
 구소영 (태백장성여고3- 성악: 금상)
 이은수 (교동초등 2 - 피아노: 금상)
 김희수 (속초초등 3 - 피아노: 금상)
 김혜인 (교동초등 5 - 피아노: 금상)
 홍성희 (인제 중 3 - 피아노: 금상)
 권예나 (교동초등 4 - 플루트: 금상)
 김지윤 (교동초등 4 - 성 악: 금상)
 한보경 (강릉여중 2 - 피아노: 금상)



제4회 국제아동미술 교류전

제4회 자매시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지난 6월14일 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개최되었다.

■ 속초예총 소식 ■

제10회 전국학생 미술작품 최우수수상작 40점, 서울 중구33점, 전북정읍시 30점, 일본 요나고시 43점, 일본 사카이미나토시 53점, 미국 그레샴시 35점등 총 234점이 전시되었다.

제24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제24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6월21일 부터 27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26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출품자는 김광희, 김광수, 김영복, 옥명준, 정봉재, 박흥기, 박영근, 최홍영, 고주리, 김동하, 박동국, 박종철, 서문일초, 장국보, 장승진, 윤재복, 정광섭, 함연호, 최낙민, 조영길, 이형섭, 김은숙, 허인호, 강익희, 신동진, 정원철 등이다.

제5회 강원도민의 날 문예행사

제5회 강원도민의 날 문예행사가 예총 주관으로 7월 6일 부터 12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경희대 타래무용단 초청공연이 7월 9일 오후7시에, 속초시민을 위한 가족영화제가 6일부터 12일까지 장편3, 단편21편으로 상영되었다.

본 사업은 99강원국제관광 엑스포 D-60일 기념을 겸한 사업 이었다.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D-30일 기념 연예인 초청공연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D-30일 기념 연예인 초청 공연이 8월 4일 종합운동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연예협회에서 가수, 코메디언, 무용단, 등 중진 연예인 250여명이 출연, 공연시간도 무려 3시간 30분 이상 걸린 대공연 이었다. 관람객 또한 2,500여명의 시민이 관람하여 강원국제관광 엑스포 붐 조성 크게 기여했다.

고령자, 장애인 미술작품 한일 교류전

미술협회 후원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일미술작품 교류전"이 9월 9~15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

되었다.

일본 토토리현에서 128명이, 강원도에서는 126명이 각기 공예, 서예, 도예, 유화 등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속초시민의 날 총체극 공연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속초시의 날 기념 총체극 공연이 9월 30일 엑스포장 내 설악마당에서 있었다.

"약속된 초원 속초"란 작품으로 자유와 개척정신을 지닌 속초의 얼을 표출하고, 역경을 딛고 국제관광 도시로 성장한 통일전초도시, 수산해양도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도시 성격과 속초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기획을 가졌다. 폐허, 정착, 재건, 약속의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재도, 오태영 공작으로 연출은 장규호 예총회장이 맡았다.



'99설악 가요제

제34회 설악문화제 기념 '99설악 가요제가 10월 3일 오후 7시 동명항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 대상(정우철 영랑동-에델바이스)
- 금상(김선미 교동-비와 외로움)
- 은상(김명자 대포-상처)
- 동상(양순남 교동-나비소녀)
- 장려(마경석 장사-갈대의 순정)
- 인기(이남수 조양-사랑이여)

속초예총 소식

제8회 전국 무용제

제8회 전국무용제가 10월 13일부터 10일간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연중 전국무용인들의 최대의 축제인 본 대회에 전체 15개 시도 대표단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참가하였다.

속초예총 및 연극협회에서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부속 문예행사로 예총의 연극공연, 연예협회 밴드공연도 우정 출연했다. 대전광역시 최성옥 현대무용단의 "낙원의 이방인 III"가 영예의 대통령상과 상금1,000만원을 수상하였다.

제3회 설악 전국 서예백일장

제3회 설악전국 서예백일장이 10월 23일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백일장에 총 156명이 대거 참가하는 성황이 있었다. 서제는 초등부1부 - 지혜롭고 착한마음, 外受傳訓 入奉母儀

초등부2부 - 지혜롭고 착한행실, 篤初誠美 慎終宣令

중등부 - 그릇됨을 고침에는 주저하지 말라, 修身則道立 尊賢則不惑

고등부 - 아름다움에는 지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귀함에는 어진 것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니라, 德和經國千年盛 勤儉持家百代安. 일반 뜻을 세웠다고 말하면서 힘써 나가지 않으며 뒷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명색만 뜻을 세웠다 할 뿐 공부를 하려는 성의가 없기 때문이다, 清心可持同龜壽 養性常 廣與鹿齡등의 서제가 주어졌다.

대상 일반부 김송금 외 4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25명

특상 46명, 장려상 31명이 수상하였다.

제3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제3회 전국청소년 연극제가 10월 27일 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연극협회 주관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다.

속초여고가 강원도 대표로 금번 전국대회에 출전하였으며 궁남경 학생이 우수연기상을 수상하였다.

속여고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기록도 남겼으며, 지난해에는 단체최우수상, 지도교사상, 최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한바 있다.

제20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

제20회 강원도 서예가 협회전이 11월 20~24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금번 전시회는 서예가협회 발족 20년이 되는 뜻깊은 전시회로 회장은 김광희 속초미술협회장이 맡고있다. 한국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전각, 현대서예 등 각1점씩 76점이출품 전시되었으며, 출품작가는 강원서예대전, 교원미전 등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강원도를 대표하는 서예가들이다.

아울러 그간 강원서예 발전에 애쓴 역대회장에게 공로패 전달식과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및 '99강원도서예상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제13회 예총 예술상 수상

장규호 속초예총 회장이 제13회 예총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2월 2일 서울 문화회관에서 한국예총 회장으로 상장 및 부상을 수여 받았다.

장규호 속초 예총회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 연극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박웅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의 추천으로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제9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 연주회

제9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가 12월 11일 문화회관 대극장 개최되었다.

지역음악인들의 최고의 창작발표의 장이자 청소년 음악공쿠르와 더불어 음악협회 연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다.

일년여간 연습해온 작품을 한해 마감하는 송년 음악회로서 성악, 기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갈뉘29집 발간 및 문학축제

문인협회 주관으로 갈뉘 29집발간 및 문학축제가 12월 18일 영광정 라고카페에서 개최 되었다.

갈뉘지는 30여년간 꾸준히 발간해온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지로 많은 문학인들의 창작발표의장 이기도하다.

속초민예총 소식

99년 속초민예총 사업활동

'99 민족예술제

매년 새순이 돌아오는 봄철을 맞아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지역민에게 제공하여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 연극공연 99. 4. 24-25 문화회관 대극장
제목 : 김치국씨 환장하다(장소현작 황헌중 연출)
- 시화전 - 99. 5. 1 - 3 문화회관 전시실
"생명-시와 응기의 만남"이란 주제로 응기에 창작시와 그림을 그려 전시 총 40점 전시
- 사진전시회 99. 4. 25 - 29 문화회관 전시실
'99 속초 그리고 사진이야기
6명의 회원이 30여점 전시
풍경, 다큐멘터리, 합킨스 사진등 전시

제3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 참가

99년 5월 5일에 속초공설운동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속초지회 주최로 개최된 행사에 갈래 마당으로 참가하여 사진위원회에서 가족사진무료촬영, 문학위원회에서 시·산문 백일장 개최, 연극위원회에서 지게놀이 마당을 맡아 시민들에게 큰호응을 얻었다.

제34회 설악문화제 경축 종합예술제



99년 10월 1~10일까지 지역문화축제를 경축하는 행사로 일정한 문화공간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공간에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연극공연 - 마당극 "밥" 99. 10. 2 속초 동명항
- 문학 시낭송대회 - 99. 10. 2 속초 문화원사랑방 / 청소년 60명 참가
- 사진전시회 - 지역순회전시 99. 10. 2 - 30 속초, 고성, '99 여섯사람 사진이야기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경축 행사

99년 10월 9~10일까지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경축하기 위한 행사로 일반 시민과 예술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시·산문 백일장 및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본 행사의 근본취지와 의미를 되살려 빛나게 하였다.

- 영화위원회 - 16mm 단편영화작가전
1999. 10. 9 - 10 청소년 수련관
총 6편의 단편영화상영
- 문학위원회 - 시민 및 관람객 대상 시·산문 백일장
1999. 10. 9 종합경기장 내
총 40여명이 참가
- 사진위원회 - 1999. 10. 9 종합경기장 내
총 30점 전시

제4회 통일문학제



99년 8월 15일 속초시민의 실항의 아픔과 슬픔을 문학이라는 예술적 장르를 통해 치유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 염원의 마음을 간직하는 목적으로 올해 4번째를 치뤘던 통일문학제는 예년에 비해 많은 관람



속초민예총 소식

객이 찾아와 시낭송 및 김금화(중요무형문화제) 통일기원 굿 공연등 볼거리를 통해 민족평화통일의 염원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제1회 청소년 문화교실

99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영북지역의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과 더불어 현직 예술가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와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사고와 미래의 꿈을 간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양양 면목치 분교 청소년 수련장, 약 30명 참가
주요행사 : 예술가 강의, 야외 독립영화 상영, 문학 백일장



【장르별 특별 활동 및 사업】

▶ 문학위원회

1. 이상국 회원
제1회 백석문학상 수상(99. 4. 23)
- 황지우 시인과 공동 수상
제9회 민족예술상 수상(99. 11. 20)
제3회 강원민족예술상 수상(99. 11. 20)
2. 민족문학작가회의 강원도지회 창립 주도, 강원문학의 질적 변모와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창립.
이상국 회원이 초대 강원도지회장으로 추대됨.

▶ 연극 위원회

강원도 순회 무료 공연

- 마당극 "밥" 작품으로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순회공연을 가짐.
- 속초 - 속초시 동명항(99. 10. 2)
 - 양양 - 남대천 고수부지(99. 10. 30)
 - 원주 - 원주 청소년 수련관(99. 11. 21)
 - 인제 - 인제 문화관(99. 12. 4)

▶ 영화위원회

-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영화위원회가 창립 됨.(99. 7. 13)
속초지역 영화동호회 모임인 "8과 1/2"의 창립의 주체인 엄기명 회장과 변재갑 기획실장이 강원영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예총 영화위원회를 창립함.

- 다큐영화제 개최 - 99. 11. 6 - 7 KBS 공개홀
강원의 현실상을 고발한 기록영화로 총 6편 상영,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소재로한 다큐영화 제작을 계획중에 있음.(내년 3월에 출품예정)



조영길/강원도민일보 편집부 기자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2022년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 무 처	자 택	
원 장	최용문(崔龍文)	속초시 동명동 250-5 5/4	632-1231	633-3233	
부 원 장	이인철(李仁鐵)	교동 동부APT 102-1306		633-2177	영북지구함복도민회회장
	노광복(盧光福)	중앙동 468-142	632-8907	632-9014	장안슈퍼대표
이 사	강철훈(姜哲勳)	영랑동 163 5/6	631-5675	632-0188	강동건설사장
	고재양(高在陽)	교동 780-60 15/3		633-4931	교사(전)
	김광수(金光洙)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원장
	김병학(金炳學)	중앙동 503-44	632-6400	631-7425	속초요리학원원장
	김봉해(金鵬海)	동명동 450-39 4/2	633-2021	633-3411	합동문화인쇄사사장
	김창구(金昌九)	교동럭키설악타운2차101-1106	(0391) 642-2114	632-8275	LG 화재 강릉합동사무소소장
	김철섭(金喆燮)	조양동 부영APT 302-1304	636-6339	631-2292	속초지구함남도민회장
	김호응(金鎬應)	동명동 250 5/4	636-0130	633-3674	(주)상록 교문
	동문성(童文星)	동명동 450-22 4/4	(교)633-3171	633-3721	속초시장
	박상복(朴相福)	교동 627-130 20/2		632-3888	의료보험대표이사(전)
	박정기(朴政基)	도문동 177-1 4/5	636-7667	636-8738	기자유통상사대표
	안동섭(安東燮)	노학동 619-5 2/3		632-0909	속초시기획실장(전)
	어재석(魚在奭)	중앙동 468-67		633-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오윤근(吳允根)	교동 656-5 13/2	632-5357	633-8817	청운독서실대표
	윤숙자(尹淑子)	교동 627-42 19/5	633-4014	633-4014	설악유치원장
	이영호(李永鎬)	청학동 483-20	632-9244	632-9244	유성여관 대표
	이태형(李泰亨)	동명동 261-40 10/3		633-3618	동우대학교수(전)
	임호성(林鎬成)	노학동 159 1/2		633-2178	속초시의회의장(전)
	전복식(全福植)	교동 삼환APT 108-1004		631-7130	대우장회장
	최경순(崔敬順)	중앙동 496-55 1/4	633-3668	632-6590	화신상회대표
최현식(崔顯植)	조양동 부영APT 303-604	(0396) 672-2448	633-2632	낙산사기획실장	
사육구장 감 사	한정규(韓正圭)				
	정연태(鄭然泰)	동명동 104-2 3/1		633-2364	교육행정자문위원
	김종규(金鍾圭)	동명동 72 2/4		633-4472	속초시의회과장(전)
사육구장	한정규(韓正圭)	교동 866-12 2/6	632-1231	635-5933	
간 사	장은선(張銀善)	교동 하나나2차A 1109호	632-1231	636-4344	
사료관리사	최봉하(崔捧河)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632-1231	631-5298	
			635-8827	635-8428	

속초문화원부설
풍물패
갯마당



- 사물놀이 공연 및 행사기획
 - 풍물놀이 강습 및 연출
 - 문의 : 0392) 632-1231 속초문화원
0392) 633-6250 풍물패 갯마당
- <http://www.getmadang.co.kr>



갯마당

전국의 공항에서
금호렌터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
국내 최고의 렌터카서비스를 갖추었습니다.
국내 최대 차량보유, 국내 최대 영업망, 그리고 첨단 예약 시스템
앞선 규모와 선진서비스로 열어나가는 금호의 초일류 렌터카문화—
고객을 위한 최고의 렌터카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Hertz



錦湖렌터카

속초 (Sokch'o) 0392. 632-8000

속초공항 (Sokch'o Airport) 0396. 671-2626

<http://www.kumhorentcar.co.kr>

人材 養成의 搖籃

재단법인 청구(靑九)문화장학재단



趙秀雄 이사장

우리들이 마련한 작은 용달샘이 청운의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역의 인재들에게 지혜의 샘을 마시고 마음껏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뜻을 다하겠습니다.

연혁

▲1967년~1990년까지 이 지방출신 속초중·고 제9회 동창생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3억원의 기금조성. ▲1991년 8월 3일 이사회구성, 재단명칭을 "청구문화장학재단"이라 칭함. ▲동년 12월 24일 문교부와 내무부의 심의를 거쳐 법적인 등기를 필한 후, 도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 인가 됨. ▲1992년 1월 20일 속초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1992년 속초·고성지역 중·고생 52명에게 15,668,250원 지급. ▲1993년 중·고생 42명에게 18,306,500원 지급. ▲1994년 중·고생 43명에게 21,424,850원 지급. ▲1995년 중·고생 28명에게 16,500,000원 지급. ▲1996년 중·고생 23명에게 15,116,000원 지급. ▲1997년 고등학생 20명에게 17,638,600원 지급. ▲1998년 대학생 1명 외 고등학생에게 18,619,600원 지급. ▲1999년 대학생 1명 외 고등학생에게 22,200,000원 지급. ▲8년간 262명에게 164,093,350원을 지급.

이사명단

이사장 조수웅(조수웅 법무사)
총무이사 노광복, 재무이사 김종명,
이사 김용현, 박대식, 최동웅, 최영수,
감사 김희철, 박상규.

■사무실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20번지 조수웅법무사

■전화 : (0392) 631-9222, 632-8907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嶽山新興寺

新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2年 (1644)에
靈瑞, 惠元, 蓮玉 세 스님이 중건하여
新興寺라 개명하였다.
新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락보전 (指定文化財 14號),
경관 (指定文化財 15號),
보제루 (指定文化財 104號)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 (寶物 第 443號)이
보존되어 있다.
이외의 문화재 11호 신흥사
(계조암, 내원암, 안양암, 부도 포함)
동산문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존 좌상의 9점

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 (雪嶽山新興寺)

우 217-120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0392)636-7044 전송 636-7556

雪嶽山新興寺